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6

고린도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고린도전서

## 1 Corinthians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24)

*αὐτοῖς δὲ τοῖς κλητοῖς, Ἰουδαίοις τε καὶ Ἕλλησιν,  
Χριστὸν θεοῦ δύναμιν καὶ θεοῦ σοφίαν.*

## 고린도전서 차례

---

고린도전서 서론 .....	〈15제〉	… 11
제 1 장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 .....	〈21제〉	… 21
제 2 장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	〈14제〉	… 30
제 3 장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	〈19제〉	… 36
제 4 장 그리스도의 일군인 사도들의 사역 .....	〈19제〉	… 45
제 5 장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 .....	〈14제〉	… 54
제 6 장 소송 및 성 문제(性問題)에 관한 성도들의 자세 .....	〈14제〉	… 61
제 7 장 혼인(婚姻)에 관한 바울의 교훈 .....	〈25제〉	… 67
제 8 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태도 .....	〈14제〉	… 78
제 9 장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다 .....	〈19제〉	… 84

제 10 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	〈19제〉	… 93
제 11 장	올바른 공적 예배와 성찬 .....	〈22제〉	…102
제 12 장	다양한 은사와 목적 .....	〈16제〉	… 114
제 13 장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 .....	〈14제〉	… 124
제 14 장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동하라 .....	〈21제〉	… 131
제 15 장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 .....	〈25제〉	… 141
제 16 장	헌금에 대한 호소 .....	〈19제〉	… 154

## 고린도전서 특별 자료 차례

---

고린도전서 서론 〈화보 자료〉 고린도 교회의 유적 .....	20
제 1 장 〈본장의 요절〉 .....	29

제 3 장	〈화보 자료〉	아폴로 신전 .....	44
제 4 장	〈연구 자료〉	교회의 치리권(治理權) .....	53
제 5 장	〈연구 자료〉	인간의 구성 요소 .....	60
제 7 장	〈본장의 요절〉	.....	77
제 8 장	〈연구 자료〉	하나님의 유일성(Unity) .....	83
제 9 장	〈연구 자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 .....	92
제 10 장	〈화보 자료〉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세 .....	101
제 11 장	〈본장의 요절〉	.....	113
제 12 장	〈연구 자료〉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 .....	123
제 15 장	〈화보 자료〉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	153
제 16 장	〈화보 자료〉	로마 시대의 필기 도구 .....	162

# 고린도전서 서론

## 1.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는 초대 교부들의 전승과 같은 외적 증거와 성경의 내적 증거를 고려해 볼 때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 (2) 더우기 본서는 고등 비평 학자들에게서도 가장 논란이 적은 책 중의 하나로 인정받을 만큼 확실한 정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바울 저작설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3) 먼저 이러한 저작설을 뒷받침해 주는 외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는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서신'(To the Corinthians)에서 본서를 '축복받은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 ② 폴리갑(Polycarp)의 '빌립보인에게 보내는 서신'(To the Philippians)을 비롯해 이레니우스(Irenaeus)의 '이단 반박론'(Against Heresies), 터툴리안의 '이단 반박론'(de Prae-script), 이그나티우스(Ignatius)의 서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의 저서 등에서도 본서를 인용하면서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과 마르시온 경(Marcion Canon)에서도 본서를 각각 바울 서신의 첫 부분과 갈라디아서 뒤에 배치하여 바울이 그 저자임을 밝히고 있다.
- (4) 다음으로 내증에 대해 살펴보면
- ① 본서신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저자라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1:1-3, 12-17; 3:4, 6, 22; 16:21).
  - ② 본서신의 문체와 언어, 사상 등이 다른 바울 서신과 일치하고 있다.
  - ③ 고린도 교회가 본서신을 바울의 편지로 받아들여 보존해 온 사실도 바울 저작설에 대한 강한 입증이 된다.
  - ④ 본서에 언급된 사건들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고린도 전도 여행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역시 충분한 내증이 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      건                      내                      용	본 서 신	사 도 행 전
회당장 소스테네에 관한 언급	1:1	18:16
아볼로에 관한 기사	1:12; 16:2	18:24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행한 일	1:14	18:8
노동울 통한 자급 자족 및 전도	4:12	18:3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로 돌아가기로 약속함	4:19	18:3
고린도 전도 여행 후 에베소로 간 사실	15:32	18:19
아가야에 대한 언급	16:15	18:12
아굴라와 브리사가(브리시길라)에 대한 언급	16:19	18:2

(5) 이상과 같은 사실들로 보아 본서신의 저자는 사도 바울임에 틀림없다.

##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12 고린도전서 서론

- Ⓐ (1) 사도 바울은 본서신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있기를 원하노라'(1:1-3) 라는 인사말을 기록하고 있다.
- (2) 이 인사말을 볼 때 본서의 수신자는 바울이 손수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주축으로 하여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모든 성도들임을 알 수 있다.
- (3) 뿐만 아니라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서신의 수신자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신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Ephesus)에서 기록되었다.
- (2) 이러한 근거는 본서신 중 16:8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이라는 귀절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 (3)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16:19)라는 귀절은 본서신의 기록 장소를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자료가 된다.
- (4)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거주했던 곳 역시 에베소(행18:18-21)라는 사실로 보아(참조, 행 18:24-26)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에베소임이 분명하다.

### 4. ⓑ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바울은 본서신을 기록하면서 장소는 에베소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반면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 (2)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한 회수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두 차례나 되기 때문에 그중 어느 시기인가를 밝히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 (3)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들(1:11)이나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을 통해서(16:17)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분쟁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본서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4) 그런데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A.D. 53-58)을 떠나기 직전에 발생한 점과 바울의 에베소 체류 기간(참조, 행19:8-10,22;20:31)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55년 전후로 볼 수 있다.
- (5) 한편 본서의 저작 연대를 추정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행18:12에 언급된 로마 황제 갈리오에 대한 기록을 들 수 있다. 1905년 델피(Delphi)에서 발견된 비문에 의하면 그의 섭정 기간이 A.D.52-53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기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갔던 것이다(행18:18).
- (6)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본서신 16:8에서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문 후 그곳을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사실로 보아 본서신은 바울의 에베소 체류 기간 (A.D.53-56년경) 중 말기에 완성되었음이 판명되어진다.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오순절이 늦은 봄에 해당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본서신은 최소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던 해의 이른 봄까지는 완성되었음이 분명하다.
- (7) 이러한 사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본서신은 A.D.55년말에서부터 A.D.56년초 사이에 기록되었음에 틀림없다.

### 5. ⓒ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동기는 무엇인가?

㉠ (1)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은 1:11과 16:17을 통해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동기에 기인한다.

(2) 첫째,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들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였다.

(3) 둘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7:1)를 받고 거기에 제기되어 있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했다.

6. ㉡ 본서신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1)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들의 보고와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대담함에 있어서 잘못된 예배 행위를 비롯해서 생활 속에서 종종 범하기 쉬운 교리적, 도덕적 범죄와 불법 행위를 시정해 주려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여기서 바울이 시정해 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친 상간과 간음죄를 비롯해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들(5장)

②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송사하는 비그리스도적인 행위(6장)

③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오해함으로써 생기는 방종한 행위(8,10장)

④ 무질서하게 주의 만찬을 행하는 행위(11:17-34)

⑤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질서한 행위들(14장)

⑥ 그리스도의 부활 및 육체의 부활에 대한 그릇된 견해(15장)

7. ㉡ 본서신의 문학적 특성에 대해 설명해 보라.

㉠ (1) 바울의 유창한 헬리어 실력과 탁월한 문장력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본서신은 심오하고 격조 높은 구성으로 인해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특히 내용 전개에 있어서 각 부분을 그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면서 각각의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킨 점은 본서신의 문학적 가치를 더욱 높여 주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3)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대표적인 예로서 13장과 15장을 들 수 있겠다. 먼저 일명 '사랑의 송가'라고도 불리는 13장은 감동적인 시어(詩語)들로 구성된 완벽한 운문으로서 읽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해지게 한다.

(4) 다음으로 부활에 대한 바울의 교리적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15장은 13장처럼 운문체적인 구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논리성에 입각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사변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교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성을 띠게 되었고 나아가서는 그의 사상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는 강한 설득력을 지니게 되었다.

8. ㉡ 본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역할 및 그것에 따른 바울의 인간성을 말해 보라.

㉠ (1) 본서신에는 바울이 평범한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 목회자, 신앙 상담자, 이단과 투쟁하는 신실한 종교 운동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2) 이러한 그의 역할이 말해 주듯이 그의 성품도 각 역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즉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을 완수하는 데 요구되는 지혜, 열정, 겸손, 사랑을 소유한 인격자였으며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의와 불의를 엄격히 구분하는 단호함과 엄중함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실천에 옮길 때는 불굴의 행동력과 놀라운 인내력으로 일관하는 행동가이기도 했다.

9. ㉡ 본서신이 지닌 신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 Ⓐ (1) 첫째, 본서신은 신약 성경 중 다른 어느 책보다 이교와 투쟁하는 기독교의 면모를 보여 줌으로써 유일신 사상을 더욱 고취시켜 주고 있다.
- (2) 둘째, 본서신은 교회의 권징, 교회와 사회의 교류 및 관계, 공중 예배와 관련된 제반 원리들, 성만찬의 본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통해 목회의 제반 원리와 실제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 (3) 셋째, 본서신은 초대 교회의 형성, 발전, 교리의 정립, 바울의 전도 여행 등 초대 교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기념비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4) 넷째, 본서신은 예배 행위를 비롯해 그리스도인의 은사와 교회를 위한 각종 은사 등 교회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실재를 밝혀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10. ⓐ 본서신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당시의 고린도(Corinth) 시(市)가 본서신의 주요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이러한 고린도 시의 지리적 여건과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3) 그리이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Peloponnesus)를 연결하는 고린도는 에게해(Aegean Sea)와 아드리아 해(Adriatic Sea) 사이의 좁은 지협(地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다.
- (4) 이러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고린도는 선로(船路)의 요충지가 되었고 급기야는 일약 해양 무역의 중심지로 등장하게 되었다.
- (5) 그 결과 고린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야의 극장, 운동 경기장, 각종 이방 신전 등을 골고루 갖춘 경제·문화·종교 도시로 성장 발전하게 되었다.
- (6) 그러나 이러한 급속적인 발전 뒤에는 항상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게 마련이듯이 고린도에는 사치와 환락, 매춘이 득버섯처럼 피어 올라 결국 도시를 온갖 죄악으로 오염시키고 말았다.
- (7) 고린도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는 <코린디아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의미이나 그 당시 고린도의 시대적 상황을 지적하는 의도로 사용됨에 따라 '매춘 행위를 행하다'라는 의미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 (8) 이처럼 고린도는 역사적으로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는데 그 수치는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이 사실은 현대에 통용되고 있는 영어 단어 '코린디안'(corinthian)에 '사치하고 게으른', '활량', '난봉군' 등의 나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 (9) 한편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에 관한 기사로는 ① 바울이 2년간 전도하며 교회를 설립한 일(행18:1-8) ② 아볼로의 방문(행19:1) ③ 바울이 에라스도를 머물게 함(딤후 4:20) ④ 바울의 동역자인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등의 거주지(1:14,16;행18:8) 등이 있다.

11. ⓐ 고린도 교회의 설립 경위는 어떠한가?

- Ⓐ (1) 고린도 교회의 설립 경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진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그 경위를 추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고린도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대하게 된 시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도중인 A.D.50 년경이다.
- (3) 그 당시 아덴(Athens)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던 바울은 처음에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 도시의 죄악상을 목격하고 심히 두려워했으나(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2:2)을 전파하기로 결심했다.

- (4) 이러한 결심 후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훌륭한 동역자와 만나게 되었으며(행 18:2) 얼마 안 있어 마케도니아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가 돌아옴으로써 그는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행 18:5).
- (5)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참조, 행 13:5,14;14:1;17)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강론하면서(행 17:2;18:4) 복음을 전파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아(행 18:6) 급기야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 (6)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해 많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참조, 행 18:7-11).
- (7) 한편 이러한 경위에 따라 설립된 고린도 교회는 점차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와 신앙 윤리적인 논쟁으로 인해 일대 혼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심각성은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12. ㉠ 본서신은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 ㉠ (1) 물질 만능주의 사상과 각종 문명의 이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세대는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의 고린도 시와 너무나 흡사하다(참조, Q 11).
- (2) 즉 전례 없이 풍부하고 편리한 생활을 맞본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윤리와 질서에 권태감을 느끼게 되었고 급기야는 보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일을 찾게 되었다.
- (3) 이러한 추세는 결국 현대 사회를 환락, 음란, 나태, 이기심, 질투, 증오 등 온갖 병폐로 물들게 했는데 이 시대의 죄악상(罪惡相)은 바울 당시 고린도의 시대상(時代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 (4)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본서신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서신을 읽을 때 각 장, 각 귀절의 내용이 바로 자신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대한다면 보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3. ㉠ 바울의 생애와 행적을 약술(略述)하여 이를 도표로 나타내 보라.

구분	내 용	세 부 사 항
바울의 내력	출 신	①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행9:11;21:39;22:3) ② 로마의 시민으로 출생(행 16:37, 38;22:25-28) ③ 베냐민 자손(롬11:1;빌3:5) ④ 본명은 사울(행8:1;9:1, 11;13:9)
	인 간 적 특 성	① 선교 사역 중에도 손수 장막을 만들어 비용을 충당할 만큼 독립심이 강함(행 18:1, 3) ② 자신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할 정도로 겸손함(고후4:7) ③ 외모는 빈약했으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음(고후11:24-27;갈6:17)
	개종 이전의 행 적	①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움(행 22:3;26:4, 5) ② 유대교에 열심인 엄격한 바리새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섬(행9:1-3; 23:6; 빌3:5, 6; 갈1:14) ③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의하고 지켜 봄(행7:58;8:1;9:1-3;22:20)

개종과 초기 사역들	개 종 의 경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비친 빛에 의해 눈이 멀게 됨 (행 9:1-19; 22:6; 26:13)</li> <li>②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 (행 9:4-9)</li> <li>③ 아나니아에게 세례받음 (행 9:6, 10-18)</li> <li>④ 개종에 대하여 다시 말함 (행 22:1-16)</li> </ul>
	초 기 사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 (롬 1:1)</li> <li>② 자신을 작은 자로 여김 (행 3:1-8)</li> <li>③ 자신의 변화를 자세히 말함 (빌 3:4-10)</li> <li>④ 과거의 생활을 회개함 (딤후 1:12-16)</li> <li>⑤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음 (롬 1:16; 딤후 1:8-12)</li> <li>⑥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함 (행 9:19-22)</li> <li>⑦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음 (행 9:23, 24; 고후 11:32, 33)</li> <li>⑧ 아라비아로 감 (갈 1:17)</li> <li>⑨ 예루살렘을 방문함 (행 9:25-29; 갈 1:18, 19)</li> <li>⑩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음 (행 22:17-21)</li> <li>⑪ 다스로 보내짐 (행 9:29, 30; 갈 1:21)</li> <li>⑫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감 (행 11:22-26)</li> <li>⑬ 안디옥에서 1년간 봉사함 (행 11:26)</li> <li>⑭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扶助)를 전하고 요한과 안디옥으로 돌아옴 (행 11:27-30; 12:25)</li> </ul>
전도 여행	1 차 전도 여행 (A. D. 46-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성령의 택하심과 보내심 (행 13:1-4; 26:19, 20)</li> <li>② 바나바와 요한과 동행 (행 13:1, 5)</li> <li>③ 실루기아로 감 (행 13:4)</li> <li>④ 구브로로 감 (행 13:4)</li> <li>⑤ 살라미에서 전도 (행 13:5)</li> <li>⑥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을 전도함 (행 13:7-12)</li> <li>⑦ 박수 엘루마를 책망함 (행 13:6-12)</li> <li>⑧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 (행 13:13)</li> <li>⑨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행 13:13)</li> <li>⑩ 유대인들에게 추방됨 (행 13:50, 51)</li> <li>⑪ 이고니온에서 추방됨 (행 14:1-5)</li> <li>⑫ 루스드라에서 들에 맞음 (행 14:6-20; 딤후 3:11)</li> <li>⑬ 더베로 감 (행 14:20, 21)</li> <li>⑭ 안디옥으로 돌아옴 (행 14:21-26)</li> <li>⑮ 장로들을 세움 (행 14:23)</li> <li>⑯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 결과를 보고함 (행 14:27, 28)</li> </ul>
	예루살렘 공회 (A. D.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방인 전도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 (행 15:1, 2; 갈 2:1, 2)</li> <li>② 소수의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행 15:5)</li> <li>③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역설함 (행 15:7-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들은 회중들에게 야고보가 몇 가지 제안할 사항을 제시함(행15:12-21)</li> <li>⑤ 유다와 실라가 공회의 결정 사항을 전함(행15:22-31)</li> <li>⑥ 바울과 바나바를 재파견하기로 결정(행15:26)</li> </ul>
<p>2차 전도 여행 (A. D. 50-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남(행 15: 36-41)</li> <li>② 수리아 길리기아의 교회들을 굳게 함(행15:41)</li> <li>③ 더베와 루스드라를 찾아감(행16:1)</li> <li>④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행16:1-5)</li> <li>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로 감(행16:6)</li> <li>⑥ 드로아로 감(행16:8)</li> <li>⑦ 마게도나 사람에 대한 환상(행16:9)</li> <li>⑧ 마게도나로 감(행16:10, 11)</li> <li>⑨ 루디아에게 세례를 줌(행16:11-15)</li> <li>⑩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냄(행16:16-18)</li> <li>⑪ 옥에 갇힘(행16:19-24)</li> <li>⑫ 간수를 밋게 함(행16:25-34)</li> <li>⑬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행16:35-39)</li> <li>⑭ 루디아의 집에 유숙(행16:15, 40)</li> <li>⑮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함(행7:1-9; 살전1:7; 2:2-18)</li> <li>⑯ 베뢰아에서 복음을 전파함(행17:10-13)</li> <li>⑰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 두고 아텐으로 감(행17:14-17)</li> <li>⑱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파(행17:18-34)</li> <li>⑲ 고린도에 도착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생활함(행18:1-3)</li> <li>⑳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다(행18:4)</li> <li>㉑ 디모데, 실라와 다시 합류함(행18:5; 살전3:6)</li> <li>㉒ 유스도의 집에 1년 6개월간 체류함(행18:6-11)</li> <li>㉓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냄(살전3:1-6; 살후2:2)</li> <li>㉔ 고린도에 교회를 세움(행18:5-18)</li> <li>㉕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로 감(행18:12-18)</li> <li>㉖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함(행18:19-21)</li> <li>㉗ 안디옥으로 돌아감(행18:22)</li> </ul>
<p>3차 전도 여행 (A. D. 53-5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갈라디아, 브루기아의 교회를 굳게 함(행18:23)</li> <li>② 연보에 대해서 가르침(16:1)</li> <li>③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함(행19:1-12; 20:31)</li> <li>④ 에베소에서 환난당함(15:32; 행19:13-41)</li> <li>⑤ 갈라디아서툼 쓴 것으로 추측됨(갈 1:1, 7)</li> <li>⑥ 본서신을 씀(5:9)</li> <li>⑦ 드로아에 갔으나 디도를 만나지 못함(고후2:12, 13)</li> <li>⑧ 마게도나에서 디도를 만남(행20:1; 고후7:5-16)</li> <li>⑨ 고린도후서툼 쓴 다음 디도를 통해 발송함(고후8:6-18)</li> <li>⑩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함(행20:2; 롬15: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⑪ 헬라와 고린도를 방문함 (행20:2,3)</li> <li>⑫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씀 (롬1:1)</li> <li>⑬ 드로아에서 밤중까지 강론함 (행20:5-13)</li> <li>⑭ 아소에서 형제들을 만나 밀레도로 감 (행20:14-16)</li> <li>⑮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의 말을 남김 (20:17-38)</li> <li>⑯ 가이사라에 도착함 (행21:1-8)</li> <li>⑰ 선지자 아가보의 우려를 무시함 (행21:9-14)</li> </ul>
전도여행 이후의 사역들	예루살렘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이사라 성도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영접을 받음 (행21:15-19)</li> <li>②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부당히 체포당함 (행21:20-40)</li> <li>③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변명함 (행21:33-40;22:1-21)</li> <li>④ 영문 안에서 심문을 받음 (행22:24-30)</li> <li>⑤ 유대의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함 (행22:30;23:1-5)</li> <li>⑥ 로마에서 증거하라는 환상을 봄 (행23:11)</li> <li>⑦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함 (행23:12-15;25:2,3)</li> <li>⑧ 가이사라로 호송됨 (행23:16-33)</li> <li>⑨ 헤롯 궁에 감금됨 (행 23:35)</li> <li>⑩ 벨릭스 앞에서 변명함 (행24:1-23)</li> <li>⑪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말씀을 강론함 (행24:24-26)</li> <li>⑫ 2년 동안 구류됨 (행24:27)</li> <li>⑬ 베스도 앞에서 유대인에 의해 고소됨 (행25:1-9)</li> <li>⑭ 가이사에게 상소함 (행25:10-12)</li> <li>⑮ 아그립바 왕 앞에서 심문을 받음 (행25:13-17;26:1-32)</li> </ul>
	로마에로의 항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백부장 율리오의 배로 행선 (행27:1-5)</li> <li>② 알렉산드리아 배로 바꾸어 탐 (행27:6-8)</li> <li>③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 (행27:14-20)</li> <li>④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킴 (행27:21-25)</li> <li>⑤ 배는 파선되었으나 모두 구원됨 (행27:26-44)</li> <li>⑥ 멜리테 섬 원주민들의 영접을 받음 (행28:1,2)</li> <li>⑦ 독사에게 물렸으나 죽지 않음 (행28:3-6)</li> <li>⑧ 보블리오의 부친을 낮게 함 (행28:7-10)</li> <li>⑨ 로마로 항해를 계속함 (행28:11-16)</li> <li>⑩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음 (행28:17-30)</li> <li>⑪ 2년간 로마에 체류함 (행28:30,31)</li> <li>⑫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씀 (엡3:1,6;20; 빌1:7,13;골4:7-18;몬1:10,22)</li> </ul>
	마지막 사역과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로마의 감옥에서 석방됨 (빌1:25;2:17,24;딤후4:16,17)</li> <li>②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함 (딤후전1:1-3;딤후1:1-5)</li> <li>③ 마게도냐와 기타 여러 곳을 방문함 (딤후4:20)</li> <li>④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함 (딤후1:8;4:6-8)</li> </ul>

		⑤ 마지막 소식과 인사를 전함(딤후4:9-22) ⑥ A. D. 67년 로마에서 순교
--	--	---

14. ㉠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인사말 / 1:1-9

- ① 문안 / 1:1-3
- ② 감사의 말 / 1:4-9

(2) 고린도 교회의 분쟁 / 1:10-4:21

- ① 분쟁의 상황 / 1:10-17
- ② 분쟁의 원인 / 1:18-2:16
  - ㄱ.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 / 1:18-2:5
  - ㄴ. 성령의 계시에 대한 무지 / 2:6-16

- ③ 분쟁의 결과 / 3:1-23
  - ㄱ. 영적 성장의 중지 / 3:1-9
  - ㄴ. 상(賞)을 잃어버림 / 3:10-15
  - ㄷ. 세상 지혜를 자랑하게 됨 / 3:16-23

- ④ 분쟁에 대한 권면 / 4:1-21
  - ㄱ. 그리스도의 일군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 / 4:1-5
  - ㄴ. 그리스도의 일군을 멸시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함 / 4:6-13
  - ㄷ. 바울의 모범 / 4:14-21

(3) 교회의 도덕적 문제 / 5:1-6:20

- 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근친 상간 / 5:1-13
- ② 불신자들 앞에서의 송사 문제 / 6:1-8
- ③ 도덕적 혼란에 관한 경고 / 6:9-20

(4) 결혼에 대한 교훈 / 7:1-40

- ① 결혼과 독신 생활 / 7:1-9
- ② 이혼에 관한 교훈 / 7:10-24
- ③ 처녀에 대한 교훈 / 7:25-28
- ④ 결혼과 봉사 생활 / 7:29-35
- ⑤ 결혼할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교훈 / 7:36-38
- ⑥ 재혼에 관한 교훈 / 7:39, 40

(5) 영적 자유에 관한 교훈 / 8:1-11:1

- ① 제물(祭物)을 먹는 문제 / 8:1-13
  - ㄱ. 제물에 대한 지식 / 8:1-3
  - ㄴ. 제물을 먹는 행위의 의미 / 8:4-6
  - ㄷ. 신중하게 행해야 할 자유 / 8:7-13

- ② 바울의 모범 / 9:1-27
  - ㄱ. 바울의 권리 / 9:1-14
  - ㄴ. 바울의 절제 / 9:15-27

- ③ 바울의 권면 / 10:1-11:1
  - ㄱ. 방종을 금할 것 / 10:1-13
  - ㄴ. 우상 숭배 금지 / 10:14-22
  - ㄷ. 형제를 위한 생활 / 10:23-11:1

(6) 공중 예배에 관한 교훈 / 11:2-14:40

- ① 예배시 여자들의 복장/11:2-16
- ② 올바른 성만찬/11:17-34
- ③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12:1-14:40
  - ㄱ. 영적 은사의 근원/12:1-5
  - ㄴ.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12:6-11
  - ㄷ. 은사의 다양성 및 통일성/12:12-26
  - ㄹ. 직분과 은사/12:27-31
  - ㅁ. 은사보다 뛰어난 사랑/13:1-13
  - ㅂ. 방언보다 나은 예언의 은사/14:1-25
  - ㅅ. 예배시 지켜야 할 질서/14:26-40

(7) 부활에 관한 교리/15:1-58

- ① 그리스도의 부활/15:1-11
- ② 부활의 확실성/15:12-19
- ③ 부활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15:20-28
- ④ 부활을 부인하는 견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15:29-34
- ⑤ 부활한 육체의 모습/15:35-50
- ⑥ 부활을 통한 승리/15:51-58

(8) 결어 및 마지막 인사/16: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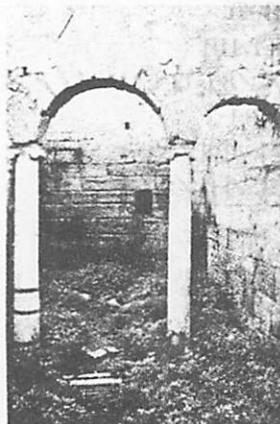
- ① 성도들을 위한 연보/16:1-4
- ② 바울의 방문 계획 및 개인적 요청/16:5-9
- ③ 마지막 인사와 축원/16:10-24

15. ㉠ 본서신의 요절을 제시해 보라.

- ㉠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1:24).

화보자료

고린도 교회의 유적.  
A. D. 4세기경 고린도에  
설립되었던 한 교  
회당의 유적이다.



고린도에 최초로 설립된 것은 A. D. 50년경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에 의해서이다. 그런데 1896년에 진행되었던 고린도 탐사 작업 결과 이곳에는 A. D. 4-6세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설립된 교회의 유적이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곳에 부렸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 제 1 장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

단락구분 1-3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문안 인사 / 4-9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다 / 10 성도의 연합 / 11-17 교회의 분쟁에 관한 책임 / 18-19 십자가의 도(道) / 20-25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 / 24-25 하나님의 지혜 / 26-29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간 / 30-31 그리스도 인혜(仁혜) 있는 자의 축복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밧 형제 소스데네는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14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

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20 지혜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5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러 하시나니

22 고린도전서 1장

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

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의 서두는 발신자의 이름 명기(1절), 수신자의 이름 명기(2절)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3절)의 순으로 시작되고 있다.  
 (2) 이와 같은 서술 형식은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를 제외한 19권의 모든 서신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3) 그러나 이에 덧붙여 나오는 집필 목적, 동기, 다루려는 내용 등을 밝히는 서론 부분에 있어서는 각 서신마다 차이점이 있다.  
 (4) 본장에는 그 같은 서론부의 내용으로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4-9절)와 그들에 대한 교훈(10-31절)이 기술되어 있다.  
 (5)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본장은 서신서의 서론부로서 지녀야 할 형식적 특징과 내용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하겠다.

2. **㉠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 ㉠** (1)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로 소개하고 있다.  
 (2) 여기서 '사도'(헬, 아포스톨로스)란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로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통해 부르심을 입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란 곧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사명을 바울에게 맡기려 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참조, 행9:5).  
 (3)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기 소개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4) 그러면 이와 같이 바울이 굳이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5) 왜냐하면 그는 종종 자신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는데(참조, 12절, 9장) 그와 같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도전받거나 무시될 경우 복음 사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참조, 17절).

3. **㉠ 소스데네는 어떠한 자인가? (1절)**

- ㉠** (1) '소스데네'(Sosthenes)란 이름의 뜻은 '권세를 힘입어 안위(安慰)를 누리다'이다.  
 (2)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이름이 본절 이외에 단 한 곳에만(행18:17) 제시되어 있다.  
 (3) 하지만 이 두 곳에 나오는 인물이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4) 만일 행18:17에 나오는 고린도 회당장(會堂長) 소스데네가 본절에 나오는 바울의 동역자 소스데네와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는 바울의 일로 인해 유대인들로부터 매를 맞은 후(행18:12-17)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5) 한편 바울이 본서신의 공동 발신자로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한 것과 같은 일은 바울 서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고후1:1; 빌1:1; 살전1:1; 몬1:1) 아마도 이는 동역자들과 바울 자신의 사역 목적이 같음을 나타내려는 데 뜻이 있는 듯하다(참조, 23절).

4. **㉠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定義)하고 있는가? (2절)**

- ㉠** (1)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 (2) 이처럼 '교회'(헬,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총체(總體)이다(참조, 엡3:10;골1:18).
- (3) 둘째, '각처에서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 (4) 여기서 '부르다'(헬, 에피칼레오)란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10:13).
- (5) 이상과 같은 정의에 있어서 우리는 첫번째 것을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에 대한 정의로 볼 수 있는 반면 두번째 것은 가전적, 지역적 교회에 대한 정의로 볼 수 있다.
- (6)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지역적 교회는 우주적 교회에 포함되는 개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교회는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한 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 (7)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개인의 영욕(榮辱)이 곧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영욕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가 각자의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5:16).

5. **㉠**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축원(祝願)에 대하여 설명하라(3절).

- ㉠** (1) 이러한 축원은 롬1:7;엡1:2;빌1:3 등에서도 볼 수 있는 바울의 문안 인사이다.
- (2) 그러나 이 같은 인사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신 진리(참조, 계5:9,10)가 내포되어 있다.
- (3) 왜냐하면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만(고후8:9;엡2:8,9) 그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를 흘려 본래 죄인이었던 성도들과 하나님 간의 화평을 사셨기 때문이다(엡2:12-18).
- (4)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진리에 대하여 '은혜'와 '평강'은 구속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또한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게 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6.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4-9절)

- ㉠** (1)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구변(口辯)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족케 되었기 때문이다.
- (2) 본래 헬라인들은 선천적으로 지혜와 지식에 대한 탐구욕이 강하였고(참조, 22절)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능숙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부한 사상과 지식을 가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깨닫고 말로 표현하는 능력까지도 풍족히 주신 것이다.
- (3)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영적 지식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 가운데 확고히 배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도 결국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를 믿는 자마다(요3:16)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요17:23)에 기인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31절)는 말씀을 생의 좌우명(motto)으로 삼아 우리의 전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도록 힘쓰자.

7. **㉠**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관하여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10절)

- ㉠** (1)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여기서 '내가 권하다'(헬, 파라칼로)라는 말은 '권고하다', '격려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보다 강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한 입으로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

이다(롬15:6).

- (4)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하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분쟁'(헬, 스킨스마타)이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의견 차이'를 뜻하기 때문이다.
- (5) 그런데 이상과 같은 권면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분의 권위를 힘입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바울은 벵전4:11 말씀을 실천한 자라 할 수 있으니 우리도 그를 본받아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같이 하자'.

8. **㉠**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누구로부터 전해 들었는가? (11절)

- ㉠** (1) 클로에(Chloe) 집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 (2) 그런데 '클로에의 집 편'(헬, 톤 클로에스)이란 말은 단순히 '클로에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의미이니 이들이 클로에의 친척들인지 아니면 종인지 또는 친구들인지는 분명치 않다.
- (3) 그러나 이들이 꾸지람을 들어 마땅한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 소식을 바울에게 전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면서 교회의 중직에 있던 자들이었음에 틀림없다.
- (4) 한편 '클로에'라는 이름의 뜻은 '푸른 나무'인데 그녀에 대한 성경상의 다른 언급은 전혀 없다.

9. **㉠**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어떠한 것인가? (12절)

- ㉠** (1)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다.
- (2) 이중 첫째 파벌은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의 모임이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이방 전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를 추종했을 것이다.
- (3) 두번째 파벌은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출신으로서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한 아폴로(Apollos, 행18:24)를 따르는 자들이었다.
- (4) 그리고 세번째, 게바(Cephas)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유대인들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자들이 분명하다. 한편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다(참조, 요1:42).
- (5) 마지막 파벌은 자칭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일컫는 자들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거나(참조, 고후10:7) 그리스도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 (6)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예수의 권위 아래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호도(先好度)에 따라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자들끼리의 모임을 가졌다. 이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요13:34)을 거역한 일로서 사단의 획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분쟁의 결국은 멸망뿐이다(참조, 갈5:14,15).

- (7) 그러면 이와 유사한 분쟁을 초래할 요인이 우리들 교회에는 없는가? 하찮은 구실하에 불필요한 그룹을 만들어 교회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자들은 없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골1:18) 성도들은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형제(엡2:1-6)라는 사실을 명심함으로써 교회 내에 분쟁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10. **㉠**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형성된 파벌을 꾸짖기 위해 어떤 질문을 했는가? (13-17절)

- ㉠** (1) 첫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여기서 '나뉘었다'(헬, 메메리스타이)라는 말은 완료 시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뉘어지셨고 지금도 회중(會衆) 가운데 계속 나뉘어진 상태로 있느냐?'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 (2) 이처럼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형성된 파벌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임을 역설하였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기 때문이다(참조, 요17:21-23).
- (3) 둘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같은 말은 바울이 자신을 추종하는 파벌까지도 엄히 책망함을 보여 준다.
- (4) 그렇지만 이러한 물음은 '아불로가 아니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혔느냐'라는 질문으로도 대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 물음의 근본 취지는 그 어떠한 인간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속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셋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물론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전혀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도 세례를 주었다.
- (6) 그런데 이와 같이 세례 의식을 집전하는 것은 바울도 할 수 있지만 세례를 주는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만 줄 수 있다(참조, 마28:18). 왜냐하면 '...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을 인증하는 예표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의롭게 하셨으며 성령께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롬 8:30).
- (7)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음을 주지시키고, 이로써 교회 내의 파벌을 없애도록 중용하고 있는 것이다.
- (8) 이처럼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와 인연이 있는 자들과만 교제를 나누려는 편협한 인간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의 분열과 상처를 안겨 줄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분으로 옷 입는 작업을 계속해 가야 한다(참조, 엡5:1-14).

#### 11. ㉠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라 (14, 16절).

- ㉠ (1) 그리스보(Crispus) : 고린도 지방의 회당장(會堂長)이었으나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고 온 집안 식구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은 자이다. 그의 개종은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었다(행18:8).
- (2) 가이오(Gaius) :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와 온 고린도 교인들의 식주인(食主人)이었던 자이다(롬16:23). 여기서 '식주인'이란 말은 '나그네를 치르고 음식을 파는 집주인'을 의미한다.
- (3) 스테바나(Stephanas) 집 사람 : 스테바나는 바울이 아가야(Achaia) 지방에서 처음으로 얻은 신자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를 가리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일컬었다(16:15). 한편 여기서 '집 사람'(헬, 오코시)이란 말은 가족 및 친척 그리고 종들까지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을 가리킨다. 그 집안의 통솔자인 스테바나가 개종함에 따라 자연히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 12. ㉠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17절)

- ㉠ (1)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 (2) 이처럼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도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다(막16:15). 그런데 바울도 이 일을 위하여 다메섹(Damascus) 도상(途上)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었다(행9:1-14).
- (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보나 가이오, 스테바나 집 사람 외에도 루디아(Lydia) 및 그의 가족들(행6:14,15),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권속(眷屬)들(행16:33) 그리고 에베소서 12성도들(행19:1-7)에게 세례를 주었다.

- (4) 그러나 이처럼 세례를 베푸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일이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초점을 '복음 증거'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 (5)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은 아니다. 사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4:1).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껏 구원의 도(道)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내 이웃과 친구, 동료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증거해야 한다(6:19).

### 13. ㉠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되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가? (17절)

- ㉠ (1) 복음을 증거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의 지혜'(헬, 소피아 로구)란 플라톤(Plato, B.C. 427? - 347?)이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B.C. 384-322)와 같은 그리이스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구사하였던 논리 정연한 웅변술, 수사법(修辭法), 변론술 등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사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의 지혜'를 사용한 자이다. 그는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리이스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으며(골 1:15-20) 그리이스 철학자나 문학인들의 말을 인용하였다(15:33; 행17:28; 딤후1:12). 그리고 그는 변증법의 형식을 빌어 유신론적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롬1:19,20; 2:14,15).
- (4)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곧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기 보다는 논쟁을 위한 논쟁술로서 그러한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 (5) 왜냐하면 인간의 말재주에만 너무 치중하다보면 정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진리 자체가 빛을 잃고 말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 지닌 그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정작 내세워야 할 그리스도가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
- (6) 이와 같은 점은 복음을 증거하여야 할 사명을 지닌 우리들도 깊이 명심하여야 할 점이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며 오직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십자가의 도(道)'만 바로 증거하자.

### 14. ㉠ '십자가의 도'가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는 이중성(二重性)에 대하여 설명하라(18절).

- ㉠ (1) '십자가의 도'(헬, 호 로고스 호 스타우루)란 '십자가에 대한 말',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기독교 진리의 진수에 대한 증거를 가리킨다(참조, 23절).
- (2)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며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 (3) 여기서 '멸망하는 자'란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 자(참조, 요3:8), 즉 십자가의 도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이를 믿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반면에 '구원을 얻는 자'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소속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 (4) 한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다(참조,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부류에 대하여 일찌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마13:13,14)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5)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곧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이다(요일1:7).

- (6)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어 구사로 전해지는 세상적인 지혜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즉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일이다(참조, 요3:16).

15. ㉠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

- ㉠ (1) 사29:14에서 인용한 것이다. 거기에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고 기록되었다.
- (2) 그런데 이사야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제명과 입술로만 자신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한탄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다(사29:13).
- (3) 사실 그와 같은 행위로써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사29:14에서 자신의 사랑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사용된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 (4)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써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주장(20-25절)을 펼치기에 앞서 그 전제로서 사29:14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 (5)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근본 원리를 자신의 이성이나 지혜에 둘 것이 아니라 절대 지혜자이시며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두고 생활해야 한다.

16. ㉠ 20절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지혜있는 자 : 본장에서는 헬라인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22절).
- (2) 선비 : 이는 헬라이어 <그람마투스>로서 '서기'(書記)를 뜻하기도 하지만(행19:35) A.D. 1세기경 유대인 사회에서는 '율법사'(teacher of the law), 즉 '유대 율법에 능통한 자'를 지칭하는 특수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 (3) 변사 : 이는 헬라이어 <쉬제테테스>이며 '학자', '변론가', '변사'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여기서는 무슨 문제든지 변론하는 가운데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인간 이성에 지나친 신뢰를 두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그런데 소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십자가의 도'가 지니고 있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박사나 교수가 될 수 있는 학문적 재능을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자. 그분께서는 나에게 그보다 더 고귀한 영안(靈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니 내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여겨야 하겠다(고후12:9).

17. ㉠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전도의 미련한 것'이다.
- (2) 그런데 '전도의 미련한 것'이란 말은 헬라이어 <테스 모리아스 투 케루그마토스>를 번역한 것으로 이를 좀더 정확히 번역하면 '전해진 것들의 미련한 것'(NIV,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이란 말이 된다.
- (3)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해진 것들'이란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동 번역에는 <테스 모리아스 투 케루그마투스>란 말이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으로 번역되어 있다.
- (4) 그러나 여기서 복음을 가리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편에서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는 뜻이지 결코 복음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은 아니다.

- (5) 한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 하는 까닭은 인간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지혜로써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복음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우리들(참조, 마16:16,17)은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아가 이 같은 구원의 도를 증거함으로써 저들도 믿고 깨달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

18. **㉠**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각각 어떠한 성격을 띠게 되는가? (22-25절)

- ㉠** (1) 첫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리끼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분으로 소망하는 메시아와 그로 말미암을 구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적을 찾던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막8:11; 요6:30).
- (2) 그러나 정작 메시아로 여겼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간주하기를 꺼려 하였던 것이다.
- (3) 둘째, 이방인들, 즉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철학적 기준에 의해서는 중죄인(重罪人)에게만 가해지는 십자가형(十字架刑)을 당한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4) 셋째,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하시려 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다(딤후1:9,10; 히12:2).
- (5) 이처럼 세상 지혜로 판단할 때에는 가장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나 실상은 인간의 가장 현명한 계획보다 더 뛰어난 것이다(참조, 사55:8,9).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아무런 근거도, 조건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능력과 지혜이시다.

19. **㉠**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 주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6-29절)

- ㉠** (1) 바울은 본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지혜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들에 편중되어 있기 보다 미련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들에 편중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 여기서 '지혜있는 자'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지적 수준이 뛰어난 자를 말한다. 그리고 '능한 자'란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을 포함하는 말이다. 또한 '문벌 좋은 자'란 상류 계급의 사람을 의미한다.
- (3) 반면에 '천한 것들'은 노예 계급을 포함하는 말이며, '없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 즉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한다.
- (4)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힘있는 자들을 즐겨 부르시지 않고 약한 자들을 즐겨 부르실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5) 첫째, 약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다. 둘째, 보잘것없고 천하여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시 유력자(有力者)들을 무력하게 하려 하심이다. 셋째, 이로써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혈통이나 학식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엡1:5)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임을 분명히 깨닫고 자랑하되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자'(31절).

20. **㉠** 성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라(30절).

- ㉠** (1) 본절에 의하면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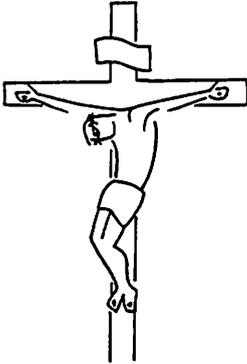
님께로서 나와 성도들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셨음을 알 수 있다.

- (2)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의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참조, 요14:20).
- (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말은 그분께서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의미한다(요8:42).
- (4) 한편 이처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의미한다(고후5:21; 딤텔2:14).
-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6) 그러나 이 같은 진리를 망각한 채 자신의 선행으로써만 의롭다 함을 받으며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롬1:17; 3:28)을 거스리는 것이니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저들의 가르침에 대항하여야 한다.

21. Q 31절 말씀은 구약의 어느 귀절을 인용한 것인가?

- A (1) 렘9:24, 즉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 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 (2) 그런데 본절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29절)는 말과 뚜렷이 대조되는 듯하다.
- (3) 하지만 바울은 이 같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비록 인간이 스스로에 대하여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義)를 힘입을 때엔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였음이 분명하다.
- (4) 이상에서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로서 더 이상 나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안 되는 '주의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보여져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갈2:20).

본장의 요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

## 제 2 장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

단락구분 1-3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 3-5 하나님의 능력 / 6-9 하나님의 지혜 / 10-13 신령한 일 / 14-16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함이니라

15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1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전장에 이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바울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 (2) 먼저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뿐이나 이것도 말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했다고 밝히고 있다.
- (3) 그리고 6-13절에서는 본래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처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써만 분별할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
- (4)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자를 구분짓고서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자라고 결론짓고 있다 (14-16절).
- (5) 그러므로 본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인간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해결될 수 없음)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과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2. **㉠ 바울이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1-5절)**

**㉠** (1)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A. D. 50-52) 중에 아덴(Athens)을 거쳐 고린도(Corinth)에 도착한 후(행18:1)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유(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때(행 18:11)를 가리킨다.

(2) 이때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 강론(講論)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는데 회당장 그리스보(Crispus)와 그의 온 가족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었다(참조, 1장 **㉠** 11).

(3) 이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개심 이후 온 정열을 토하면서 자신이 위치한 곳이 어디든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主) 되심을 증거하였다. 즉 그는 예수의 대사(大使)로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 역할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일이다.

3.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며 전한 방법은 어떠하였는가? (1-5절)**

**㉠** (1)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사실이었다.

(2)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빼놓지 않았는데 이는 그분의 죽음이 본래 죄인이었던 성도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간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고 화평을 가져왔기 때문이다(롬5:8-11).

(3)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함에 있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곧 탁월한 웅변술이나 철학적 논쟁, 변론술 등(참조, 1장 **㉠** 13)에 의지하지 않았다.

(4) 그는 그 같은 도를 전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성령의 도우심(참조, 마 10:19,20)만을 의지하였다.

(5)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웅변술이나 변론술과 같은 '지혜의 원하는 말', 즉 지혜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피상적이고 오도된 믿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참된 믿음이 되게 하려는 데 있었다.

(6) 그런데 이상과 같은 바울의 전도 내용 및 전도 방법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주지하여야 할 항목이다. 즉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말로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전도 방법론 연구에 치중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노력에만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생겨나는 잘못된 결과들을 오히려 인식하고 항상 전도의 근본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 바울이 고린도에 유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1) 사실상 육체적으로는 약하기만 하였던 그(참조, 고후10:10;12:7)가 복음 증거의 중요성을 깨닫고서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고린도인들을 대하였다는 의미이다.

(2) 이처럼 바울은 복음 증거와 그 복음대로 사는 삶의 중요성에 대하여선 항상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권면하기를 '너희가 나 있을 때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입술과 생활 자체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매사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껏 우리에게 남아 있는 죄의 습성이 우리를 걸걸로

인도하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나아갈 신앙 궤도를 향하여 달음박질하되 오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달음박질하여야 할 것이다(빌3:14; 히12:28).

5. **㉠ 바울이 '온전한 자들'에게 들려주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6-10절)**

- ㉠** (1)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성도들의 영광(롬8:17,18)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미리 마련하여 감추어 두셨던 심오한 지혜이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도 다르며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와도 다르다. 그러므로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말았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러한 지혜를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참조, 마13:11; 요6:68).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1:24)를 믿고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롬8:17,18).
- (4)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심오한 것이니 바울은 이에 대하여 사64:4을 인용하여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라고 언급하였다.
- (5)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도 우리는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결코 자력(自力)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자랑할 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골3:15-17).

6. **㉠ '온전한 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 ㉠** (1) 온전한 자 : 이 말은 영적인 일을 이해함에 있어서 성숙한자인 '신령한 자'(헬, 프뉴마티코스, 15절)와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온전한 자'(헬, 텔레이오스)란 구원받은 자들, 즉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는(영적인 측면에서 성숙한) 자들을 의미한다.
- (2) 이 세상의 지혜 :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러한 진리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단편적인 지혜를 의미한다(참조, 1:23).
- (3)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 :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관원들(참조, 8절), 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율법사들,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 B. C. 4-A. D. 39)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A. D. 26-36)와 그의 군병 등을 가리킨다(행4:25-28). 따라서 '관원의 지혜'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정도로 어리석었던 판단력, 우둔한 지혜를 의미한다. 한편 '관원'이란 말 앞에 '없어질'(헬, 카타르쿠메논)이란 수식어가 붙은 것은 이 세상의 관원들이 결국에는 다 죽고 사라질 것을 뜻한다.
- (4) 이상과 같은 정의(定義)에서 우리는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는 결코 온전한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지혜에 있어서는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면서도 영적 일에 있어서는 비둘기 같은 마음 자세를 지녀 성령의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참조, 마10:16)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7. **㉠ 성령께서 지니고 계시는 통찰력의 범위는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는가? (10, 11절)**

- ㉠** (1)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정도에까지 이른다.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란 '하나님의 깊은 경륜(經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완해(完解)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 (2) 한편 바울은 이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까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람의 속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
- (3) 그런데 사람의 속에 있는 '영'과 하나님의 '영'은 동일한 '영'(렐, 프뉴마)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란 사람의 속에 있는 인격, 즉 사고하고 행동케 하는 실재적인 인격을 의미하는 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인격도 성령과는 전혀 판이한 성격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三位)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장 ㉒ 27)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창1:26,27).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인간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까닭(롬1:19,20)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8. ㉒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은 어떠한 영이며 이에 반해 '세상의 영'은 무엇인가? (12절)

- ㉒ (1)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이다.
- (2) 그러면 '성령'과 구별되는 '세상의 영'이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선 학자들마다 서로 의견을 달리 하는데 대표적인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 첫번째 견해는 '악의 영'(엡6:12), 즉 사단이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요14:16,26)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성도들임에 반해 불신자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임을 지적해 준다.
- (4) 두번째 견해는 11절에 나오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곧 인격이 바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인격은 출생과 더불어 사람의 속에 내재(內在)하는 것이지 별도로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합당치 못하다.
- (5) 세번째 견해는 아예 본질 전체의 뜻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공동 번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받은 성령은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풀이하는 것이다.
- (6) 따라서 이상과 같은 세 견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는 첫번째 것과 세번째 것이 되겠는데 이중 어느 견해가 더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 (7)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은혜를 체험한 자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

9. ㉒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12절)

- ㉒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 (2)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들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7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9절) 가리킨다
- (3) 그런데 그것들은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받을 수도 알 수도 없던 것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 계획을 의미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지상 사역,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 재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들의 삶 등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원 계획에 무지했던 인간들은 자신들의 내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모든 섭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5)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고 하였던 것이다.
- (6) 이러한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간에서도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 (7)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일까?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좇아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과 이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롬12:2-11).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열심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롬12:3).

10. **㉠ 바울이 자신의 전도 방법에 있어서 제차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하여 증거함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한다는 점이다.
- (2) 이 같은 점은 전장에서부터 본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혀 온 사항(1,4절;1:7)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말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하여 애타게 갈구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감지(感知)할 수 있다.
- (3)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과연 성도들의 참된 영적 성장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을까? 아니 그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우리 자신들은 과연 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혹은 형제에 대한 사랑의 발로에 서라기 보다는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못 이겨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 (4) 만일 정녕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같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부터는 스스로가 먼저 성령에 사로잡힌 후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써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겠다(참조, 행1:8).

11. **㉠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 말은 <프뉴마티코이스 프뉴마티카 썸크리논테스>라는 헬라이어 원문을 번역한 것이다.
- (2) 그런데 <썸크리논테스>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뜻이 ‘가져오다’, ‘주다’, ‘비교하다’, ‘설명하다’, ‘해석하다’ 등과 같이 다양하므로 본절에서 나타내려 한 뜻이 어느 것 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 (3)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일’로 번역된 <프뉴마티코이스>는 ‘신령한 자들’을 의미하는 남성 명사일 수도 있고 ‘신령한 일들’을 의미하는 중성 명사일 수도 있다.
- (4)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영적인 진리에 영적인 형식을 부여한다. 둘째,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진리를 비교한다. 셋째,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해석해 준다. 넷째, 영적인 말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거나 표현한다(참조, 공동 번역).
- (5)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우리는 네 가지 해석 중 네번째 것이 비교적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6) 이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겸손이다.

12. ㉠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란 각각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4, 15절)

- ㉠ (1) '육에 속한 자' (헬, 프쉬키코스 안드로포스)란 오직 육적(肉의)인 것에만 지배를 받는 사람,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內在)해 계시지 않는 자를 가리킨다.  
 (2) 이러한 자들은 도무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오직 육신의 정욕과 안목(眼目)의 정욕과 이생(生)에 대한 자랑과 같은 일에만 관심을 둘 뿐이다(참조, 요일2: 15,16).  
 (3) 그러나 이에 반해 '신령한 자'(헬, 호 프뉴마티코스)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온전한 영적 통찰력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  
 (4) 그러므로 이들은 항상 '영의 일'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영의 생각'은 곧 '생명'과 '평안'을 이 세상에 주는 것이다(롬8:5,6).

13. ㉠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라 (14, 15절).

- ㉠ (1) 먼저 '육에 속한 자'는 신령한 일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게 있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야로 신봉한다는 것 자체가 허황된 일이며 미련한 일이기 때문이다(참조, 1장 ㉠ 18).  
 (2)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는 이와 같은 영적 일을 깨닫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영안(靈眼)이 없기 때문이다(사6:9).  
 (3)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종류의 영적 일을 분별하여 판단을 내릴 줄 안다(참조, 요일 4:1-6).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안을 주셨기 때문이다(마13:11,16;18:17).  
 (4)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와 행동들에 대하여서 판단할 수는 있지만(참조, 5:1-12) 스스로가 영적인 일로 육에 속한 사람의 판단을 받지는 않는다.  
 (5) 하지만 아무리 신령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잃어버릴 때 그의 영안은 육신의 안목이라는 덧창이 씌워져 더 이상 영적 일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의 연수(年數)가 깊어 갈수록 자신이 선 줄로 생각하지 말고 삼가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10:12).

14. ㉠ 16절 말씀은 어느 성경 귀절을 인용한 것인가?

- ㉠ (1) 사40:13,14을 인용한 것이다.  
 (2) 거기에는 '누가 여호와와 의 신(神)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지혜로는 감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상상할 수도 없으며 측량할 수도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3) 그런데 바울은 본절에서 이 같은 말을 인용하여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지만 주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성도들은 알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7절)를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10절).  
 (4) 이와 같이 '주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들은 비록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과 생활 방법이 이 세상의 영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마5-7장; 빌1:8).

## 제 3 장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단락구분 1-2 고린도 교인들의 유약성(幼弱性) / 3-4 교회 내의 시기와 분쟁 / 5-9 하나님의 동역자들 / 10-15 그리스도 위에 세운 신앙의 공력(功力) / 16-17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 / 18-20 이 세상의 지혜 / 21-23 하나님의 것

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 하리라

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4 어떤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흙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

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8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있는 줄로 생각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20 또 주께서 지혜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계바나 세제나 생명이거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 1. ㉠ 본장에서 바울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미 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영적 분별력(2:13,14)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2절).
- (2) 이러한 증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견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3-9절).
- (3)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올바르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10-17절)과 인간의 지체를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18-23절)를 말함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아 주고 있다.

- (4) 이러한 잘못된 사고와 행동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권면이었다. 이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처리(治理)해 갈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행동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사랑이어야 한다(참조, 13:1-3).

2. ㉠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떠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가? (1-3절)

- ㉠ (1) '육신에 속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란 전장에서 말하고 있는(2:4) '육에 속한 사람'(헬, 프쉬키코스)과는 다르다.
- (3) 뿐만 아니라 본절에 있어서도 앞(1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헬, 사르키노스)와 뒤(3절)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헬, 사르키코스) 간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세 단어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 (4) 첫째, <프쉬키코스>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해 계시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르키노스>와 <사르키코스>는 불신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5) 둘째, <사르키노스>는 '육적(fleshy)인 사람', 즉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르키코스>는 충분히 심오한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스스로 옛날의 습성을 좇아 육욕(肉慾)을 버리지 않고 있는 '육정적(fleshly)인 사람'을 의미한다.
- (6) 그런데 <사르키노스>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부터 점차 성숙하여 신령한 자(헬, 프뉴마티코스)가 될 수 있다(참조, 2장 ㉠ 12). 그러나 <사르키코스>는 자신의 구습(舊習)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이 될 것이다(15절).
- (7)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 중에 신앙의 연수는 깊으면서도 아직 육욕을 좇아 사는 <사르키코스>가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때를 맞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눅12:35-48).

3.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되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한 까닭은 무엇인가? (1, 2절)

- ㉠ (1) 아직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 '밥'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말하는 '젖'과 '밥'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젖'은 초신자들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를 의미한다. 반면에 '밥'은 삼위 일체(三位一體) 교리(敎理)와 같은 보다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이처럼 이해의 정도와 담고 있는 뜻의 심도(深度)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젖'이나 '밥' 등에 비유한 표현은 히5:12-14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젖'과 '단단한 식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 가운데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신앙인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결코 비난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서로 보완하며 짐을 저주어야 하는 필연적인 사랑의 교제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참조, 갈6:1).

4.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헬, 사르키코스)로 규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3, 4절)

- ㉠ (1) 그들 가운데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떤이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또한 어떤 이는 아블로에게 속하였다 하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은 파벌 현상은 바울이 1:10-17에서 이미 언급하였는데 거기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파, 아블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와 같은 4개의 파벌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에게 속한다든지 또는 그를 따른다든지 하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단순히 인간적 수준에서 행동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어찌 사람, 즉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라고 공박하였다.
- (5) 여기서 '육신에 속하였다'(헬, 사르키코이 에스테)는 말은 구원받은 자이면서도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육욕(肉慾)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한다'(헬, 카타 안드로폰 페리파테이테)는 말은 통상적인 죄인의 삶의 방식대로 이기심과 교만, 시기로만 세상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 (6) 그런데 이상과 같은 양태(樣態)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만일 있다면 그러한 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감당하여야 할 성도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마5:13-16)은 어디로 가고 만 것일까?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 내의 이같이 덕스럽지 못한 삶의 양태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5. **㉠** 하나님께 있어서 아블로나 바울은 단지 무엇에 불과한가? (5절)

- ㉠** (1)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使役者)에 불과하다.
- (2)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헬, 디아코노이)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자들(참조, 빌1:1)을 뜻하는 단어이기 보다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종들'(servants)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 (3)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말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파벌 의식과 어떠한 사역자를 절대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잘 깨우쳐 주고 있다 하겠다.
- (4) 한편 그러면 이상과 같은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 귀에 이따금씩 들려오는 소식은 어떠한가? 교회 내에 목사와 장로 간의 분쟁이 생겨 장로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분열해 나갔다는 소식은 참이 아닌가?
- (5)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이며 장로는 누구인가? 그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가? 따라서 성도들이 어느 한 편을 절대시하여당(黨)을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목사나 장로가 스스로를 절대시하는 것도 잘못이다.
- (6)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여하한 소지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님의 교회(1:2)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전심 전력하자.

6. **㉠** 바울이 말하는 '심는 일' 과 '물 주는 일' 그리고 '자라나게 하는 일' 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6, 7절)

- ㉠** (1) 여기서 말하는 '심는 일'이란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물 주는 일'이란 세워진 교회 내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일은 인간이 맡아 하는 사역이다.
- (2)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라나게 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역으로서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내적(內的) 사역을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 (4) 그렇다.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농부이지만 그 씨앗이 발아(發芽)되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듯 인간의 마음 밭에 뿌려진 신앙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역시 하나님이다.
- (5) 따라서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이건,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이건 또는 교회의 일원인 성도들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현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5:10)임을 깊이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

7. ㉠ 하나님의 일꾼들이 받을 상급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8절)

- ㉠ (1) 교회를 세우는 자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이건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들이 받을 상급에 있어서는 각자가 일하는 대로 각자의 상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 (2) 그러나 이 말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받을 상급이 따로 있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받을 상급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이 말은 각자가 수고한 정도에 따라 받을 상급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 (3)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므나(Mina) 비유’(눅19:11-27)에서도 유사한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에서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긴 종은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고,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든 종은 다섯 고을을 차지할 것이나 한 므나를 활용치 않은 종은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할 것임을 교훈하셨다.
- (4)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받을 상급은 각자가 수고한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다. 자! 그렇다면 각자의 달란트대로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양 각처에 배치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5) 우리들은 영생이라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어 내려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선한 경주(競走)를 경주해야 한다(히12:1).

8. ㉠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을 무엇으로 정의(定義)하고 있는가?(9절)

- ㉠ (1)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동역자’(헬, 데우 수네르고이)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란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서 ‘교회’를 뜻한다.
- (3) 그런데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자로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울과 아볼로도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교회(Catholic Church)의 일원이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지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아볼로는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 (5) 따라서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팔, 다리 또는 눈과 귀 등과 같은 신체적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공교회가 온전히 존속케 되는 것이다.
- (6)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느 지체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냐를 따지기에 앞서 한 지체가 영광을

언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보다 공고(鞏固)히 하여야 한다(12:12-27).

9. **㉠**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가? (10, 11절)

**㉠** (1)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 (2)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터 위에 세우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그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이다(행20:28; 계5:9).
- (3) 더우기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라는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설립된 신앙 공동체이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시118:22 말씀을 인용하시어 자신이 교회의 머릿돌임을 주장하시었다(마21:42).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엡5:23과 골1:18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릿돌임을 증거하였다.
- (5)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교회를 세우기는 하나 개인의 이름과 개인의 사상 위에 교회를 세운 자들이 많으니 통일교의 문 선포문 써가 그러하고 전도관의 박 태선 씨가 역시 그러하다.
- (6) 하지만 올바른 영적 지식이 없는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은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받기 쉽다. 따라서 우리들은 먼저 스스로가 저들의 가르침에 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영적 진리로 무장할 뿐 아니라(엡6:14,17)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을 파는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을 깨우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참조, 약5:20).

10. **㉠** 바울은 교회의 터를 닦은 것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어떠한 점을 증거하고 있는가?(10, 11절)

**㉠** (1) 첫째, 자신이 교회의 터를 닦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 (2)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목적(참조, 행9:15)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썼다(1:1; 행22:1-21; 26:1-29).
- (3) 둘째,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터를 닦되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일꾼을 의미한다(참조, 마25:14-30; 엡3:7-11).
- (4) 셋째, 닦이어진 교회의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울 자들은 타인, 즉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이지만 그들은 각각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하여 삼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증거하고 있다.
- (5)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세워질 교회는 세우는 자에 따라 그 건축 양식이 다르며 재료에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세운 공력을 판단하실 때 결코 불에 타 없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2-15절).
- (6)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닦아 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까닭에 대하여서는 **㉠** 9를 참조하라.
- (7)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터를 공고히 닦은 지혜로운 건축자 바울의 신실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이 바울과 우리의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교회의 터를 닦은 자들이라면 우리들은 그 터 위에 신앙의 구조물을 세워야 할 일꾼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조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

답고 튼튼한 구조물을 세워 나가도록 하자(참조, 마7:24-27).

11. **㉠**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이 세상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11-15절)

- ㉠** (1) 마치 건축가들이 금, 은, 보석 또는 나무나 풀, 짚 등으로 집터 위에 집을 건축하는 수고로운 삶과 같다.
- (2) 그러나 나무나 풀 또는 짚으로 지은 집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심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견뎌 내지 못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생활과 그리스도 및 그의 교회를 위한 수고도 정녕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이 되지 못한다면 주께서 판단하실 때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 (3) 따라서 우리의 수고는 헛 것이 될 것이며 수고하고 충성된 일군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벧전5:4)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요3:16)만은 여전히 유효하니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성(삼상15:29)을 깨닫게 된다.
- (5)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구원으로서 이는 성도이면 누구나가 다 받게 된다(참조, 롬1:16). 그러나 다른 하나는 경기(競技)하는 자가 법대로 최선을 다하였을 때 차지하는 상급과 같은 수고의 대가이다(딤후2:5).
- (6)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충성스런 삶을 경주한 후 구원과 더불어 주어지는 상급을 차지하지 않으려는가? (딤후4:7,8)

12. **㉠** 금이나 은 또는 나무 등과 같은 건축 재료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12절)

- ㉠** (1) 이에 대하여 주석가들간에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견해로 나누는데 그중 한 견해는 이것들을 성도의 행실과 결부시켜 이해하고 있다. 즉 금, 은, 보석은 성도들의 순전한 행실을 의미하며 나무, 풀, 짚은 그렇지 못한 삶을 의미한다고 한다.
- (2)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고후2:15)를 발하며 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마5:3-16)을 사는 성도들의 생활 모습은 금, 은, 보석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 무실(有名無實)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사는 자들의 생활 모습은 나무, 풀, 짚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 (3) 한편 다른 견해는 이러한 재료들을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한다. 즉 금, 은, 보석은 십자가의 도(1:18)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의미하며 나무, 풀, 짚은 이 같은 복음의 기본 진리는 도외시된 채 '말의 지혜'(1:17)로만 증거되는 어리석은 주장, 궤변 등을 의미한다고 한다.
- (4) 그런데 이상과 같이 그 재료들이 의미하는 바를 굳이 두 견해로 나뉘 시비(是非)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 순전한 생활과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삶, 이 두 가지는 서로 어우러져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금, 은, 보석처럼 더욱 빛내 주는 것이 아닌가?
- (5) 그러므로 우리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행실을 제어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힘씀으로써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아름다운 금, 은, 보석 집을 세워 나가야 하겠다.

13. **㉠** 13절에서 말하는 '그날'이란 어느 날을 가리키며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1) '날'(헬, 헤메라)이란 말과 함께 쓰인 정관사 '그'(헬, 헤)는 특별한 때를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최후 심판의 날'(마12:36; 롬2:5; 계20:11-15)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불'은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 (3) 이때에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일과 은밀한 것들이 날날이 드러나 선악간에 판별되며(전 12:14; 롬2:16) 양과 염소가 구별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된다(마25:31-46).
- (4) 그리고 악인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며(마25:46; 계20:15) 성도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각자 불 시험을 견뎌 낸 자기 공력에 따라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참조, 마 5:12).

14. **㉠ 자신의 공력이 불타게 될 자가 얻을 구원은 마치 어떠한 것과 같을 것인가? (15절)**

- ㉠** (1)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의 원 의미는 구원을 얻되 간신히 얻을 것이라는 뜻이다(참조, 벰전4:18).
- (2) 불에 의해 자신의 공력이 탈 때 그 사람은 마치 불타고 있는 목조 건물로부터 사람들이 뛰쳐 나오듯이 그 불꽃으로부터 도피해 나온다.
- (3) 하지만 목조 건물의 주인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듯이 자신의 공력이 불타 버린 사람은 일평생 쌓아 올렸던 자신의 모든 수고가 헛 것으로 돌아가고마는 해(害)를 입는다.
- (4) 그러나 이렇게 자신의 공력이 타 버려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자라도 성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원만은 얻게 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며 구원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된다(롬3:19-30).
- (5)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별 노력 없이 신앙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예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가 받을 상급 없는 구원이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더불어 받게 될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간직한 채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다.

15. **㉠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까닭은 무엇인가? (16절)**

- ㉠** (1)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벰전2:5).
- (2)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과 관련지어 세 종류의 성전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던 구약 시대의 성소(출40:34,35)이며,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던 성전이다(요2:19-21).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오늘날의 교회(하나님의 집)이다(9절).
- (3) 이중 구약 시대의 성소는 영적 성소인 신약 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며(골1:18) 또한 터전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서로 불가분(不可分)의 관계라 할 수 있다.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 개개인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의 영혼을 더럽히고 온 교회의 질서와 윤리를 문란케 하는 악행과 거짓 교리의 가르침은 성령을 거스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죄악에 해당된다.
- (6) 바울은 엡2:20-22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닦은 터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건축물은 서로 연결되고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16.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참조, 레15:31).  
 (2) 그런데 여기서 '더럽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데이로>는 '더럽히다'는 뜻 외에도 '파괴하다', '못 쓰게 하다', '부패케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갖 거짓과 방탕함으로 더럽히고 부패케 하는 자(갈5:16-21) 뿐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교회의 분열과 파괴에 일조(一助)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4)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성별된 곳이기 때문이다(사28:16; 계3:12).  
 (5)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殿)인 성도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5)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스스로의 정결성을 잃지 않도록 하자.

17.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인가? (18, 19절)

- ㉠ (1) 스스로를 속여 미련하면서도 지혜 있는 줄로 생각지 말라는 것이다.  
 (2) 이같이 하여야 할 까닭에 대해서는 이미 1:20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본질에서 바울은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기 때문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3)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 즉 철학, 논리학, 과학 등과 같이 인간의 사고 능력이 모든 진리를 규명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 학문에 대하여서는 무지한(無知漢)인 것처럼 처신하여야 한다.  
 (4)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照明)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2:7-10)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5)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겸손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훈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 뿐 아니라 세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10:12)는 말을 유념하여 이를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18. ㉠ 19, 20절에 나오는 인용문은 어디에서 인용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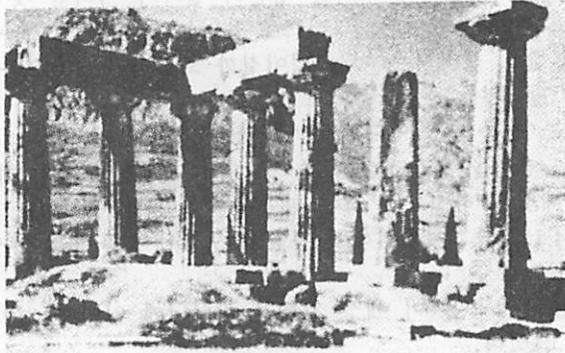
- ㉠ (1) 19절에 나오는 인용문은 ㉠ 5:12,13, 즉 '하나님은 궤환한 자의 계교를 파하시라...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인용문은 시94:11, 즉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는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다.  
 (2) 그런데 이러한 인용문은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서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 왜냐하면 첫번째 인용문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아무리 궤계(詭計)에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4) 그리고 두번째 인용문은 소위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자들의 심중에 있는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참조, 잠16:2; 살전21:4)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획을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1:19; ㉠ 4:15)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통괄하시며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여 계신 분임을 아는 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겸손과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다.

19. ㉠ 바울은 자신의 권면을 어떠한 말로 맺고 있는가? (21-23절)

- Ⓐ (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로 맺고 있다. 이 말은 곧 어떠한 성도들도 인간의 지혜나 업적을 믿고 자랑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2) 그 이유는 바울 자신 및 다른 사역자들 그리고 우주 만물, 생명이나 사망,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하던 것이었다.
- (3) 그런데 비록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렘10:16; 롬11:36).
- (4)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속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성도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 (5) 한편 바로 이러한 상관성을 바울은 '만물은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말로 잘 나타내고 있다.

### 화보자료

아폴로 신전. 고린도에 남아 있는 아폴로 신전의 유적이다. 이 같은 유적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린도 지방에서 발달된 건축 양식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띠고 있는데 오늘날에까지도 건축계에서 모방되고 있는 이러한 양식을 가리켜 우리는 '코린트식'(Corinthian order, the)이라 한다.



고대에 건축되었던 아폴로 신전이 오늘날에까지도 남아 있어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할 수 있는 까닭은 반영구적인 석조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목재로 지어졌었다면 각종 재난과 풍상(風霜), 화재로 인해 소멸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쌓아 올려야 할 신앙의 구조물(構造物)도 쉽게 마모되거나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쌓는 것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공력에 대한 불과 같은 하나님의 판단을 거친 후에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10-15절).

## 제 4 장 그리스도의 일군인 사도들의 사역

**단락구분** 1-2 그리스도의 일군에게 요구되어지는 중성 / 3-5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 6 바울과 아볼로가 보인 본(本) / 7-8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 / 9-13 사도들이 당한 고난 / 14-16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권면 / 17-21 바울이 자신의 방문에 앞서 디모데를 보내다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8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 노릇하기를 원하노라

9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라

10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

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11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13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고도다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7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8 어떤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같이 스스로 교만한하여졌으나

19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21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1) 본장은 1:10부터 지금까지 다루어져 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한 결론부로서 권면의 말을 담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지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생긴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세상 지혜를 좇아 사람들이 자고(自高)하였기 때문임을 밝혀 왔다(참조, 3:18).

- (3)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본장에서 자신이 보여 준 본을 좇아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도록 권면하고 있다(6,16절).
- (4) 게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을 바로잡기 위하여 이미 디모데(Timothy)를 파송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도 속히 고린도를 방문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저들이 빨리 분쟁을 종식(終熄)토록 간접적인 촉구를 하고 있다(17-21절).
- (5) 이처럼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유책을 강구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부교역자 또는 사모 등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두고 자신은 설교 노트만 작성하려는 안일한 목회자들이 주위에 종종 발견된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2. **㉠**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사역자를 어떤 자로 여기도록 촉구하고 있는가? (1절)

- ㉠** (1)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도록 촉구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일군’(헬, 휘페레테스)이란 말은 본래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란 어원을 가진 단어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본래의 의미는 상실되고 단순히 누군가의 밑에 종속되어 ‘시중을 드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통용되게 되었다.
  -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군’이란 오직 그리스도께만 종속되어 그분의 시중을 드는 자를 의미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 (4) 그리고 ‘맡은 자’(헬, 오이코노모스)란 말은 간혹 노예가 차지하는 직위를 뜻하기도 했는데(참조, 창39:2-19) 결국 이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 일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 (5) 물론 ‘맡은 자’란 말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 즉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의미한다(참조, 2:6-14).
  - (6)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그리스도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1:18)를 증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임을 알 수 있다.

3. **㉠**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가?(2-5절)

- ㉠** (1)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며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 (2)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 (3) 이 말은 곧 자신의 봉사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실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 심지어 자기 자신의 가치 판단도 하찮은 것이며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뜻이다.
  - (4)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위를 심판한 후 상 주실 날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권면하였다.
  - (5)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행위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주저치 아니하며 수군거리며 비방하며 시기하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판단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처럼 자고(自高)하고 있지는 않은가?
  - (6) 정녕 그러하다면 바울의 교훈을 내 것으로 삼아 더 늦기 전에 그릇된 행실을 고치고 오직 자신에게 맡기어진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참조, 요일2:27,28).

4. **㉠** 바울이 자책할 만한 아무런 일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한 의인임을 주

## 장하는 말인가? (4절)

- Ⓐ (1) 물론 바울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 (2) 이 말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1절)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한 한 자책할 만한 아무런 점도 깨닫지 못할 만큼 최선을 다하였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바울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도 육정(肉情)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그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7:22,23)라고 고백하였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魁首)니라'(딤후1:15)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하였다.
- (5)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죄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요일1:8)는 말씀을 새삼 기억케 된다.
- (6) 따라서 우리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옛 행실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의 형상을 덧입기를 힘써야 하겠다(골3:5-11).

## 5. ㉠ 5절에서 말하는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 Ⓐ (1) '때'를 가리키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일정한 기간(롬3:26) 뿐 아니라 한 순간의 시각(마24:45)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 (2)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때'란 '약속된 시간'(an appointed time)으로서의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전장(前章)에 나오는 '그날'(3:13)과 동일한 말임을 알 수 있다(참조, 3장 ㉠ 13).
- (3)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인류를 심판하게 된 이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도래하기 때문이다(참조, 마25:31-46; 요5:24-30).
- (4)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때'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까지'란 말을 결부지어 언급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5) 한편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때를 앞두고 세상 각처에서 일어날 성경적 말세지말(末世之末) 현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다(마24:7-14, 29, 30).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세상 각처에서 비일 비재(非一非再)하게 일어나고 있다.
- (6)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의 때가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이르렀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유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마25:1-12).

## 6. ㉠ 바울이 '이 일'에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먼저 '이 일'이란 자신이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 사건을 의미한다.
- (2) 그리고 '본을 보이다'(헬, 메타스케마티조)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어떠한 것의 형태를 바꾸다'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다른 형태로 무엇을 말한다' 또는 '비유적으로 말하거나 실제적인 예를 들어 말하다'이다.
- (3) 따라서 바울이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하여 언급하던 중 3:5-9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예로 들어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은 밭과 집이며, 사역자들은 그분의 동역자일 뿐임을 교훈하였던 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 **㉠** 이처럼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인 까닭은 무엇이며 '기록한 말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과 아볼로에게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한 것'을 배워 서로 당(黨)을 지어 대적하며 자기 편을 추켜 세우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2) 그렇다면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관하여 바울 자신이 본서신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온 모든 교훈(참조, 1:10,30,31; 3:16-21)들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교만하지 말며 겸손할 것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성경 말씀(잠16:18;22:4;사57:15)을 의미하는가?
- (3) 이에 관하여서는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파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훈한 것 중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많다(1:19,31;2:9;3:19,20). 뿐만 아니라 본절에는 '우리에게서 배워'라는 말까지 나온다.
- (4) 그러므로 여기서 '기록한 말씀'이란 바울이 본서신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록해 온 모든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 (5)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교역자가 교회 내에서 담당하여야 할 사역의 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것은 곧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교인들간의 알력과 질서, 반목 등을 접하게 될 때 성경에 입각한 바른 교훈으로 교인들을 권면하며 훈계하여 깨우쳐 주는 것이다.
- (6) 그러나 교역자도 인간이므로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 중의 어느 한 편을 감싸고 드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역자들은 항상 정결한 양심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교인들을 주(主)의 사랑(눅15:3-7)으로 보살피기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

8.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반문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7절)

- ㉠** (1) 첫째,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는 것이다. 즉 이 말은 '누가 너희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구분지었느냐'는 반문이다(참조, 1:12).
- (2) 이 같은 바울의 반문에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1:13),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자들이 아니냐'(1:2)라는 간접적인 책망이 담겨 있다.
- (3) 둘째,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말은 곧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 (4) 셋째,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는 것이다. 즉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가 잘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인 양 자랑하고 있느냐'는 게반문의 요지이다.
- (5)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의 반문을 접하여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점이 없는가? 우리는 교회 내에서 혹은 직장과 학교 내에서 당을 짓기를 즐겨 하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의 재능과 미모가 뛰어난이 모두 제 잘난 덕인 양 자만하지는 않는가?
- (6)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약1:17)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름 받은 한 형제(히2:11)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9. **㉠**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을 어떠한 말로 책망하고 있는가? (8절)

- ㉠** (1)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도다'라는 말로 책망하고 있다.

- (2)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자기 도취(참조, 7절)와 어리석은 영적 교만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일종의 풍자(諷刺)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되고 있다.
- (3) 첫째,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이미'(헬, 에테)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태가 과거에 이루어져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해 준다.
- (4) 둘째,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다'는 점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지니게 된 영적 지식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인한 것인데 이제는 그러한 사도들이 없이도 그들이 모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5) 그러나 이처럼 이미 배부름과 부요함에 처해 있으며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는 자신의 '곤고함과 가련함, 가난함, 눈먼 것, 벌거벗은 것' 등을 알지 못한 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계3:17)과 같은 자기 기만의 상태이다.
- (6)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신령한 '밥'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서 사도 바울이 공급하는 '젖'으로 양육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3:121).
- (7) 이처럼 예수를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신앙의 걸 모양만을 내리는 자들은 자신의 조금 아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지도했던 자들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자신을 확실히 알 때 이러한 교만은 사라질 것이다.

10.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8절)

- ㉠** (1) 그들이 참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다.
- (2)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소망에 대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 (3)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왕 노릇하는 것이 사도들도 함께 왕 노릇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 (4)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降臨)하실 때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사도들의 소망과 기쁨, 사랑의 면류관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이다(살전2:19,20).
- (5) 이와 같은 점은 오늘날의 교인들과 교역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이 교역자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신령한 일을 능히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되면(2:13-16) 이는 본인에게도 축복된 일이지만 교역자에게 있어서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교역자는 그 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벧전5:1-4)을 얻게 될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역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의 영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스스로와 교역자가 함께 영광 된 자리에 이르도록 하자(참조, 딤후5:5).

11. **㉠**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는가? (9절)

- ㉠** (1) '죽이기로 작정한 자갈이 미말(微末)에 두어 천사와 못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란 말은 바울 당시 노예나 사형에 처해질 죄수들이 콜로세움(Colosseum)에서 맹수들 앞에 던져져 찢김을 당하는 광경을 연상시켜 준다.
- (3) 그리고 '미말(헬, 에스카투스)에 두었다'는 말은 다스리는 자와는 거리가 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비천한 자들의 모습을 연상시켜 준다.
- (4) 이제 이상과 같은 기술(記述)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광경을 연상해 보라. 입추(立錐)의 여지도 없이 콜로세움을 메운 천사들과 사람들, 그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운동장 한복판에서 맹수와 더불어 생사의 결투를 벌이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5) 바울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겪는 고초가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였다(참조, 11,12절).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들의 이러한 고초에는 아랑곳없이 저들만이 잘난 양 자고(自高)하고 있었으니(6-8절)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지를 능히 헤아릴 수 있다.

12. ㉠ 10절에서 대비되고 있는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 (1)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고 약하며 비천하되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하다는 점이다.
- (2) 여기서 '그리스도의 연고로'(헬, 디아 크리스톤)라는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헬, 엔 크리스토)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므로'라는 뜻이다.
- (3) 즉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세상 지혜에 대하여 무지한(無知漢)이 되었으며(참조, 1:17,21;3:18)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비천한 자같이 매맞으며 핍박을 당하는 자(11,12절)가 되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이에 반해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까닭에 지혜롭고 강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굉장한 역설(paradox)이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면서도(참조, 3:1, 2) 서로를 판단하며 사도들 없이 왕 노릇하기를 서슴지 않은 것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1:38).

13. ㉠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살펴보라(11-13절).

- ㉠ (1)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사도들의 고난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라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 (2) 첫째, '우리는 이 시간까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定處)가 없다'. 이와 유사한 바울의 증언은 고후11:23-27에도 나오는데 생전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마8:20;막15:19;요19:28)을 연상시켜 준다.
- (3) 둘째, '우리는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 누(累)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사도들이 자신의 쓸 것을 벌여 가면서 전도를 하였다는 뜻이다(살전2:9).
- (4) 이 같은 예는 사도 바울에게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손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여 자신의 생활비와 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벌여 가면서(행18:3)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자이다.
- (5) 셋째, '우리는 후욕(詬辱)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다'. 이러한 사도들의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원리'(마5:38-48)를 실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사도들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고충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수했던 것이다.
-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오늘날의 성도들과는 무관한 것인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요16:33)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가?
- (7) 그렇지 않다. 모든 공공 시험이 대부분 주일(主日)에 치뤄지고 있는 우리의 현 실정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불이익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처하는 일종의 고난이다. 그러나 그러한 때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벧전2:19)는 말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참아 나가자.

## 14. ㉠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 (1) 먼저 '세상의 더러운 것'이란 말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란 헬라어로 <페리카다르마타>인데 주변을 깨끗히 청소하여 한군데 모아 놓은 먼지나 오물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란 말에 있어서의 '찌꺼기'란 헬라어로 <페리프세마>인데 물로 닦아 내고 문지르면 없어지는 옷이나, 물건, 사람 몸의 때(dirt)를 가리킨다.
- (3)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사도들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맺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얼마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모욕하며 배척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 준다.
- (4)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땅에서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도 크다는 점이다(참조, 롬8:17,18).
- (5) 이 같은 점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6).

## 15.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서신을 써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다.
- (2) 즉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간의 분쟁 소식을 듣고서(1:11,12) 그들에게 책망의 글을 써 보낸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행동과 교만이 그릇된 것임을 깨우쳐 주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 (3) 그런데 이 같은 권면의 도(道)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터득하고 있어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일상 생활에 있어서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우리들은 형제의 잘못을 보고서는 권면하기 보다 오히려 책망하며 정죄하기 쉽기 때문이다.
- (4) 만일 그 형제가 우리의 조소, 비난, 정죄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난다고 가정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의 영혼을 실족케 한 죄 값을 누구에게서 찾으시겠는가?(마18:7)
- (5)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권면하자.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권면하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자(마8:15-17).
- (6) 그와 같이 하여 그 형제를 바른길로 돌이킨다면 첫째는 하나님께 있어서 큰 기쁨이며 둘째는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참조, 눅15:3-7)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16. ㉠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본서신을 써 보내게 된 간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고린도 교회에 스승은 많으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스승'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이>인데 고대 로마 제국에서 주인의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올 때 호위하는 일과 그 소년들의 일반적인 행동을 책임졌던 '노예 신분'의 인도자(slave-guide)를 가리킨다.
- (3) 반면에 '아버지'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회심(回心)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을 젖과 밥(3:2)으로 양육하는 영적 아버지를 가리킨다.
- (4) 따라서 우리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권면하며 훈계하고 의(義)로 양육하려 한 자들보다는 지도자라는 직책만을 얻기에 급급한 자들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5) 그러나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참조, 행18:1-11) 그 교인들을 위하여 제

속해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참된 영적 아버지였다(1:3;3:2).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1:11,12)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권면의 필(筆)을 든 것이다.

- (6)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교인들을 위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면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성도들과 교역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과연 나는 그런 자들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자일까?
- (7)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 부끄러움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빌1:27).

17.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밝히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17-21절)**

- ㉠** (1) 첫째, 자신이 이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디모데(Timothy)를 파송하였다는 것이다.
- (2) 이 디모데는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참조, 딤후4:12) 성실하게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한 바울의 동역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로부터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딤후1:2)라는 불리움을 받았다. 행19:2에 의하면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 디모데를 마케도냐(Macedonia) 지방으로 파송했음을 알 수 있다.
- (3) 둘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이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 (4)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방문 계획과 관련지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반문하고 있다.
- (5) 이 같은 말은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여 엄히 징계하기 전에 너희들의 잘못을 고치라'는 뜻을 지닌 일종의 권면이다. 즉 이 말에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 (6)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사람을 보내며, 서신을 띄우며, 자신이 직접 방문하려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講究)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역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은 어떻게 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양 무리들을 바른길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요2:5-17; 벰전5:1-3).

18. **㉠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이'란 어떠한 자들인가? (18, 19절)**

- ㉠** (1)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 교만히 행한 자들이다.
- (2) 아마도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하였으며(9:1-17) '그의 몸은 약하고 그의 말은 시원치 않다'(고후10:10)고 조소하기를 주저치 않았던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이었을 것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체하지 않고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자신을 험담하고 적대하는 이들의 실제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 (4) 왜냐하면 사실(查實)해 보면 교인들로 하여금 비성경적이고 교만한 생각을 갖도록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교인들을 의(義)로 교육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교회 내에 참된 지도자가 없을 시엔 거짓 교사가 나타나 교인들을 미혹케 하는 현상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참조, 벰후3:3).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바른 진리에 확고히 서 자신의 주위에 거짓 교사들이 근접치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달은 한 마디 말로써라도

그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자(14:19; 행17:11).

19. ㉞ 2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 ㉞ (1) 먼저 '하나님의 나라'(헬, 헤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는 말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 (2) 첫째는 이 세상 끝날에 도래하게 될(참조, 마19:28; 25:31) 하나님의 신천 신지(新天新地, 계21장)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초림(初臨)으로 인해 이미 성도들간에서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눅17:21),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현재 영적으로 지배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이다.
- (3) 그런데 바울이 본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첫번째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두번째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고후5:17)과 그 능력(요3:3-8)에 대하여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5)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마땅히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한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바로 이 언행(言行)이 일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자신의 전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이다.

### 연구자료

교회의 치리권(治理權).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말씀 선포권과 치리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고유 권한 가운데 교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다. 첫째,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범죄한 자를 회개시키기 위함이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범죄한 성도에 대하여 먼저 신앙의 형제들이 훈계할 것이며, 그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가 권고할 것이며, 그 말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8:15, 16). 또한 그분께서 그 범죄자가 회개하거든 기꺼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눅 17:4).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첫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가 방탕한 생활을 할 때이다. 본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치리권을 행사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까닭(21절)도 바로 이런 면에서이다(참조, 6절; 3:3; 5:1-3). 둘째,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짓된 사상과 가르침을 유포시키는 자에 대하여서이다(참조, 딤후 1:20; 딤후 2:17, 18).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치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할 것이지 원수 대하듯이 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고후 2:6-8; 살후 3:15).

## 제 5 장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

단락구분 1-5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 / 6-8 묵은 누룩을 제(除)하라는 바울의 촉구 / 9-11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 / 12-13 외인(外人)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탄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3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6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 이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9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 내게 무슨 상관인 오히려 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13 외인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 1. ㉠ 본장의 개요를 살펴보자.

- ㉠ (1) 바울은 1-4장에서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런데 이제 본장에서는 주제를 달리 하여 고린도 교회 내의 성적 부도덕과 이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을 다루고 있다.
- (2) 즉 바울은 본장에서 고린도 교인들간에 자행되고 있는 근친 상간(近親相姦)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며 바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다.
- (3) 그는 먼저 교회가 그 같은 일에 대하여 충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과 범죄자를 교회에서 제명시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다(1-5절).
- (4) 다음으로 그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순결한 삶을 유월절 절기 때 먹는 누룩 없는 떡(출 12:1-20)에 비유하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누룩을 제(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6-8절).
- (5)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가 성적 부도덕자를 징계함으로써 교인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성경적 기준을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9-13절).
- (6) 이상과 같은 본장의 메시지는 윤리적인 기준이 모호해지고 성(性) 풍속도가 점점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 꼭 귀담아 들어야 할 생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2. ㉠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는 성적 부도덕은 어떠한 것인가?(1절)

- ㉠ (1)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인데 이것은 영혼 없는 짐승이나 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서 '아내'로 번역된 헬라어 <구나이카>는 '여자'란 뜻으로서 '제모'(헬, 메트뤼아)라는 말과 거의 뜻을 같이한다.  
 (3) 그리고 '취하다'라는 말인 헬라어 <에케인>은 현재 부정사로서 지금도 성적 부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기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말은 제모와 결혼하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한편 바울은, 이러한 근친 상간의 죄는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범해질 수 없는 죄라고 통렬히 비난하였다. 사실 이 같은 죄는 모세의 율법에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것(레18:8; 신22:30)으로서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었다(신27:20).  
 (5) 하지만 20세기 후반기인 오늘날의 도덕적 수준에 버금가는 지역으로 유명하였던 고린도(참조, 서론 ㉠10)에서 생활하던 교인들 중의 일부는 성적으로 문란한 주위 환경의 영향을 물리치지 못하고 근친 상간의 악행을 자행했던 것이다.  
 (6) 이처럼 시대적, 환경적 요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至大)하다. 그러나 그 같은 요인이 성경적 삶의 원리에 배치(背馳)되는 것일 때 성도들은 이를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구속하신 존재로서 더 이상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舊習)을 좇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엡4:22-24).

3. ㉠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으로 인하여 바울이 교회를 책망한 점은 무엇인가? (2절)

- ㉠ (1) 교회 내에 이 같은 충격적인 죄악이 있음을 보고도 교회가 슬퍼하며 그 죄악을 제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죄인을 관대하게 여긴 점이다.  
 (2) 물론 교회가 못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듯 그리고 그분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요일4:7-11)는 가르침은 기독교 정신의 일면이다.  
 (3)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인간의 죄악이다(슌34:12; 렘11:20; 행17:30,31).  
 (4)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신다. 또한 아무리 은밀히 행한 죄나 마음속으로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전12:14; 롬2:16).  
 (5) 그러나 이러한 죄악에 대하여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자복(自服)하고 용서를 비는 길뿐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赦)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다(요일1:9).  
 (6) 이 같은 공의의 정신은 교회가 준수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독교 정신이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범죄자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권면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참조, 마18:15-17). 그러나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범죄자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할 책임 또한 교회에 있다.  
 (7)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이 같은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인해 바울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의 생각과 공의의 정신을 혼돈할 경우 교인들의 잘못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여겨 지나쳐 버리는 누(累)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케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의 정신이니 교회는 이 점을 결코 간과(看過)해서는 안 된다(참조, 약5:20).

4. **㉠**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미 교회 내의 음행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음을 밝히고 있는가? (3절)

- ㉠** (1) 자신이 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나 영(靈)으로는 그들과 함께 거기 있는 것같이 음행한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2) 여기서 '영'(헬, 프뉴마)이란 말은 '마음'(헬, 카르디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다. 그리고 '판단하다'(헬, 크리노)는 말의 의미는 '정죄하다', '재판하다', '심판하다', '구분하다' 등이다.
- (3) 따라서 위의 말은 바울이 이미 음행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가 교회의 치리(治理)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4) 이처럼 참된 목자인 사도 바울은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항상 그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바른길로 이끄는 일에 충심(忠心)을 다하였다.
- (5) 그러나 이 같은 사역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 주신 천직(天職)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도 단호히 결정하지 못하는 우유 부단한 성격의 교회 지도자들이 더러 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과 짝이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라 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오늘날 목회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역자들은 항상 투철한 사명 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를 정확히 판가름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 바울이 밝히고 있는 교회의 치리(治理) 목적은 무엇인가? (4, 5절)

- ㉠** (1)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들과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따라서 회개하지도 않는 범죄자의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어 멸하도록 하지만 그의 영혼만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 (2) 여기서 '육신'(헬, 사룩스)이란 인간의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는 부패한 '죄의 본성'(sinful nature, 롬7:21-24)을 의미한다. 그리고 '범죄자를 사단에게 내준다'는 말은 교회가 범죄자에게 출교(黜敎)를 선고한다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이처럼 범죄자에게 출교를 선고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의 본성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복종시키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4) 이와 같이 하여 그 범죄자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비록 교회로부터 출교라는 징계를 받긴 하였지만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회복죄를 제외하고선(막3:9) 여하한 죄를 지은 자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요일1:9).
- (5) 그러나 이 같은 치리의 목적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에만 급급하여 남발되는 교회의 치리권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치리를 받은 자가 영영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잘못된 제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같은 점을 깊이 명심하여 그릇되게 치리권이 행사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6. **㉠** 바울은 치리권을 행사하되 누구의 권위로 하고 있는가? (4절)

- ㉠** (1) '주 예수'의 권위로 하고 있다.
- (2) 즉 본절에서 말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란 곧 그분의 인격과 권위를 힘입어서 한다는 뜻이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란 그분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말씀 선포권과 치리권에 근거하여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선포권과 치리권이란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요

(6) 이와 같은 잘못은 누구라도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항상 적은 누룩이 큰 밀가루 덩어리를 발효시킨다는 사실과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격언을 명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9. ㉠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여기서 가리키는 '명절'이란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을 온 인류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주신 날을 의미한다.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요19:14)로서 사실 이미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때이기도 하다(참조, 막14:12).
- (2)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그 한 날에만 특별히 기억하여 기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건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기억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다.
- (3)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고후5:14-17).
- (4) 그런데 이 같은 명절을 지키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한 것과 같은 자세(참조, ㉠ 7)가 요구되니 곧 성도들이 매일 순전하고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다.
- (5) 바로 여기에 바울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말한 참된 의미가 있다.
- (6) 그러니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마15:1-9)의 행실을 좇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며(요4:24)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산하도록 힘쓰자(고후2:14-16).

10. ㉠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8절)

- ㉠ (1)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다.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성경 본문을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묵은 누룩 곧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가 된다.
- (2) 그런데 여기서 '묵은 누룩'이란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죄의 습성을 가리킨다. 이 같은 죄의 습성은 음란과 정욕, 술취함과 방탕, 연락(宴樂)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벧전4:3)과 같은 참으로 괴악하고 악독한 죄악을 탐하는 마음이다.
- (3) 이와 같은 죄의 습성은 성도들도 쉽게 문득문득 엿매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빛어 낸 반죽 덩이이니(7절) 단호하게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않는 한 아무리 새로운 반죽 덩이라 할지라도 누룩의 영향을 입어 마침내 발효되고 말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엿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1,2).

11. ㉠ 9-13절의 요지(要旨)는 무엇인가?

- ㉠ (1)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한 바울의 재설명이다.
- (2) 바울은 이전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교훈했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결과는 어떠하였을까? 성적(性的) 부도덕이 극심했던 고린도에서 교인들은 사업상의 동료나 사회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심지어 가족과의 교제도 끊었을런지 모르겠다.
- (3) 이렇게 될 때 과연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불신자에 대하여 전도하는 것도 가능할까?
- (4) 이상과 같은 오해를 풀어 주기 위하여 바울은 본단원에서 이전에 자신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도들 중에서 음행하거나 토색(討索), 우상 숭배 따위의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말이었지 불신자들에 대해서까지 애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다.

- (5) 이처럼 한 공동체의 영적 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자는 단순히 권위만 내세워서는 안 되며 자신이 돌보는 자들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리고 미숙한 자들의 영적 수준만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12. ㉠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 (1)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데 혹자는 본서신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 (2) 그러나 다른 학자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란 바울이 본서신에 앞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으나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한 서신인 것으로 본다.
- (3) 그런데 이 두 견해 중 첫번째 견해는 다음과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의 본서신의 내용 중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언급된 부분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바울이 본단원에서 이에 대한 부언(附言)을 할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 (4) 그러면 두번째 견해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영감서(靈感書)인 신·구약 66권으로 된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다. 그 외 성경 기자들의 다른 저작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자연스레 소실(消失)되었거나 성경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번째 견해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5) 한편 이상에서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성경의 완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딤후3:16)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이것을 날마다 영(靈)의 양식으로 상고(詳考)하여야 할 것이다.

13. ㉠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후욕하는 자'란 어떠한 자들인가? (10, 11절)

- ㉠ (1) 탐하는 자: '탐람하는 자'로도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플레오네크테스>는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즉 욕심이 지나쳐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로 하는 자를 가리킨다.
- (2) 토색하는 자: 헬라어로 <하르팍스>인 이 단어는 완력(腕力)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extortioner)를 의미한다.
- (3) 후욕하는 자: 욕장이(reviler)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어 <로이도로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 (4) 이상과 같은 죄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것들이며, 교회 내에서는 발견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에서 만일 성도들 중에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 (5)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옛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없는가? 만일 있다면 교회로부터 쫓겨 나기 전에,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기 전에 자신의 못된 행실을 끊어 버리도록 하자.

14. ㉠ 바울이 맺고 있는 본장의 결론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교회가 교인들에게 영적 규범을 실천하도록 가르치고 이에 대하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까지 이 규범을 적용시키려 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것이다.

- (2) 이처럼 교회가 교인을 감독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감독할 수 없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교중 사람들'(헬, 투스 에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들은 그리스도 공동체이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분부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갖는다(참조, 요14:15,24).
- (3) 그러나 '외인들'(헬, 투스 외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날까지 자신의 뜻을 좇아 살도록 내버려진 자들(참조, 롬1:24)로서 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 (4)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영적 규범을 거스리는 자들을 권징하여야 하는데 바울도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명하고 있다.
- (5) 그러나 이처럼 악한 자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영혼을 사랑하여 그가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데 그 목적이 있음(5절)을 교회는 어느 때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연구자료

인간의 구성 요소. 우리는 본장 5절에서 간접적이거나 인간이 육신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이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분설' (Dichotomy)이라고 한다. 이 같은 견해는 하나님께서 흠으로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후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창2:7 말씀과 일치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학자들 중에는 인간이 몸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견해를 가리켜 '삼분설'(Trichotomy)이라고 한다. 이 삼분설은 본래 고대 그리스인들의 철학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를 주장하는 자들은 살전 5:23; 히 4:12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표면적으로 그 같은 성경 귀절들이 인간의 구성 요소로서 영(헬, 프뉴마), 혼(헬, 프쉬케), 몸(헬, 소마)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살전 5:23과 히 4:12 말씀의 근본 의미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 보호되고 성경 말씀에 의해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데 있지 인간이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하는 데 있지 않다. 둘째, 성경에서 영과 혼이라는 단어는 빈번하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창 35:18↔행 7:59; 전 12:7↔마 6:25). 그러므로 인간은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되고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몸이 두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제 6 장 소송 및 성 문제 (性問題) 에 관한 성도들의 자세

단락구분 1-5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성도 / 6-8 성도들간의 송사(訟事)로 인한 허물 / 9-11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 12-14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몸 / 15-18 음행을 피하라 / 19-20 성령의 전(殿)인 우리의 몸

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4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5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 도적이니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2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13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4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 1. ㉠ 본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에 이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자행(恣行)되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교훈을 담고 있다.
- (2) 본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교인들간의 그릇된 소송(訴訟) 문제(1-11절)이고 또 하나는 음행(淫行)에 관한 것이다(12-20절).
- (3) 그런데 바울은 소송 문제에 있어서 먼저 교인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판단 아래로 가져가는 것을 책망한 후(15,6절) 교인들이 피차 송사하기 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는 편이 낫다고 교훈하고 있다(7절).

- (4) 다음으로 바울은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이자 성령의 전(殿)인 사실(15, 16절)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18절)을 지적한 후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하고 있다(20절).
- (5)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육체를 즐기고 절제 없는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 2. Q 성도들간의 소송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요점은 무엇인가? (1절)

- A (1) 성도들간에 송사(訟事)할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교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구태여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려 한다는 점이다.
- (2)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지적은 성도들이 세상 법정을 이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어디까지나 성도들간의 다툼은 교회의 권면을 좇아 사랑과 화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벧전3:8,9).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 세상을 상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바울도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하여 로마의 천부장(행22:25-29)과 총독(행23:27;24:10-21), 가이사(행25:4-12)에게 소청한 적이 있다.
- (4) 그렇지만 그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법정 문제로까지 가져가기 보다는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한 성도의 양식이 아니겠는가?
- (5) 아뭏든 오늘날과 같이 이해 득실(利害得失)의 관계가 첨예(尖銳)하게 따져지는 사회에서 성도라고 해서 소송 문제에 얽혀 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니 그러한 때를 당했을 때 성도들은 이해와 사랑, 관용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벧전4:8).

## 3. Q 성도들이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A (1) 이 말은 종말론적(終末論的) 사건과 관계가 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그와 함께 왕 노릇하며 이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것을 의미한다.
- (2)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後嗣)가 될 성도들(롬8:17)은 그리스도 재림시에 그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하며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마19:28;계20:4,6).
- (3)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재림시에 천사, 즉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유1:6) 곧 '범죄한 천사들'(벧전2:4)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게 된다(참조, 히2:14).
- (4) 그런데 이와 같이 장차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치 못한다는 것은 바울이 지적하고 있듯이 실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5) 그러므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일을 세상 법정으로까지 비화(飛火)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보다는 스스로가 한 단계 물러서 남에게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마5:38-42).

## 4. Q 4절과 관련된 원어상의 문제는 무엇인가?

- A (1) '세우다'는 말인 헬라이어 <카디조>를 풍자적 의미를 띤 명령법 동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의문문과 관계된 직설법 동사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 (2) 만일 이 단어를 명령법 동사로 본다면 본절 전체의 의미는 다음과 같게 된다. '만일 너희가 세상 사건으로 논쟁해야 한다면 교회 내의 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자를 판단자로 세워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라’.

- (3)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 단어를 직설법 동사로 본다면 본질의 의미는 ‘너희에게 세상 사건으로 인한 논쟁이 있다면 너희는 그 사건을 교회로부터 경히 여김을 받는 불신자들에게 말기겠느냐?’가 된다.
- (4) 그런데 KJV나 NIV와 같은 영어 성경은 본질을 명령법적 의미로 번역하였으며 Living Bible이나 RSV는 본질을 의문을 띤 직설법적 의미로 번역하였다.
- (5) 그러나 사실 본질의 의미를 어느 것으로 취하든 간에 이 말을 한 바울의 근본 의미는 손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을 한 목적은 고린도 교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한 데 있었으니(5절) 풍자적인 어조든 ‘아니오’라는 대답을 유도하는 의문문적 어조든 이 말은 교인들간의 사적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것(7절)에 대하여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이 같은 부끄러움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느껴야 할 부끄러움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라도 교인들간에 발생한 사소한 이해 관계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려 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마땅히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5:23-26).

5. **㉠**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미 완연(宛然)한 허물이 있다는 바울의 말은 어떠한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가? (6, 7절)

- ㉠** (1)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일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이 영적으로 실패하였음을 지적해 주고 있다.
- (2) 물론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역시 완전치 못한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야 할 문제거리가 교인들간에서도 생길 수 있다.
- (3) 그러나 그러한 때 서로가 상대방의 잘못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마 18:21,22)과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와 장로들의 권면에 기꺼이 순복하는 자세(벧전5:5)만 있다면 그 문제거리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러하지 않고 그 같은 일을 끝내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서 해결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낫는지는 차치(且置)하고라도 성도들이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할 사랑의 정신(요일4:7-11)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 (5)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요일4:20)라는 교훈을 좇아 비록 물질적으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으로는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6. **㉠**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인가? (9, 10절)

- ㉠** (1) ‘불의한 자’(헬, 아디코스), 즉 ‘불의를 행하는 자’이다.
- (2) 그런데 바울은 불의한 자에 속하는 자들로서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男色)하는 자, 도적, 탐람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등을 들고 있다.
- (3) 이중 ‘탐람하는 자’(헬, 플레오네크테스), ‘후욕하는 자’(헬, 로이도로스), ‘토색하는 자’(헬, 하르팍스)에 관해서는 5장 **㉠** 13을 참조하라.
- (4) 그밖의 사람들 중에서 ‘탐색하는 자’(헬, 말라코스)는 특별히 주색(酒色)을 즐기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헬, 아르세노코이테스)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음하는 동성 연애자(homosexual)를 의미한다(롬1:27).
- (5)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자들을 열거한 까닭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되어 동일한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 (6) 이 같은 경고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자'(엡4:22-24).

7. **㉠**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불의한 자가 있었으나 회개한 후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첫째, 씻김을 받았다. 이 말은 곧 영적으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참조, 행2:38)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 (2) 둘째,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은 '씻김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확대한 것으로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이다.
- (3) 셋째,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것(롬3:24,28)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이름)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요3:5,6; 살후2:13)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임을 강조하였다.
- (5) 이와 같은 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代贖)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이다(요일1:7).
- (6) 게다가 우리들이 회개한 후 단번에 성도(聖徒)라 불리울 뿐 아니라(1:2) 살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벧전1:2).
- (7)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자신의 결단이나 의지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8. **㉠**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관련지어 식물(食物)과 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경과 그것에 관련된 규범에 따라 판단해 보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은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육체적 기능이 성도들의 도덕적, 영적 생활과는 무관한 것과 같이 난잡한 성생활(性生活)과 같은 다른 육체적 행위도 도덕적, 영적 생활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오해하였던 것이다.
- (3) 그러나 바울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처럼(즉 그것은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음행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그것은 단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을 지적한 후 우리의 몸은 주(主)의 영광을 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4) 그렇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사신 그의 소유로서 그의 영광을 위한 것(20절)이지 결코 일신의 향락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몸을 경홀(輕忽)히 여겨 그릇되이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9. **㉠**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떠한 정신에 입각하여 향유(享有)되어야 하는가?(12,13절)

- ㉠** (1) 모든 것이 내게 가(可)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향유되어야 한다.
- (2) 즉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 생각될 때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져

보아야 할 것이다.

- (3) 첫째, 그 일이 내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되는가? 둘째, 그 일을 실행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겠는가? 셋째,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넷째,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 (4) 만일 이상과 같은 물음에 있어서 전혀 거리끼는 점이 없다면 우리는 내게 가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자유롭게 추진하여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중 한 가지라도 거리끼는 점이 있다면 그 일을 추진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5)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신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 형제를 위한 자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빙자해서 그릇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 **㉠** 하나님께서 식물도 배도 다 폐하시리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 말은 곧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사람들의 육체적 변화 사건(15:51-54)을 가리킨다.
- (2) 사람들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섭취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미 죽은 자도 또한 살아 있는 자도 그 몸이 변화되어 영체(靈體)를 입게 된다.
- (3) 그런데 이 같은 영체는 더 이상 생존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일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바울은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 저것 다 폐하시리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 (4) 이상과 같이 음식이나 배와 같은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장차 없어질 것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5)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 본능을 좇아 부도덕한 성 행위를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자(前者)는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며 후자(後者)는 쾌락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되었으며(창1:26,27) 그리스도의 값 주고 사신 우리의 몸(참조, ㉠ 8)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과 우리를 살리실 것 사이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 보라(14절).

- ㉠** (1) 이 점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본절에 사용된 헬라어를 살펴보는 길이다.
- (2)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라는 말에 있어서의 동사 ‘살리다’(헬, 에게이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는 말에 있어서의 동사 ‘살리다’(헬, 엑세게이로)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는 우리를 살리실 것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죄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속(代贖)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 살게 될 것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된 일치점도 있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게 된 것과 성도들이 다시 살게 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 (4) 이상과 같은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일생 동안 빚진 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눅6:36-50).
- (5)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참조, 눅 19:1-10)과 본절의 ‘훗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살리시리라’는 바울의 말은 서로 모순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보장되는 성도의 영생(요3:16)은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생을 선고

(宣告)하심으로써 확정되기 때문이다(마25:31-46).

12. ㉠ 성도들이 창기(娼妓)와 더불어 행음할 수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15-17절)

- ㉠ (1) 성도들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이기 때문이다(참조, 12:27).  
 (2) 따라서 성도들은 자기의 몸을 창기의 몸과 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성 관계에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2:24;마9:5).  
 (3) 즉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간의 의지적 합일(合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따라서 성도가 창기와 몸을 합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죄악과 타협했을 뿐 아니라 죄악에 굴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렇게 될 때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라 불릴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를 가리키기 때문이다(참조, 요15:4).  
 (5)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을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 한 여자가 한 남자와의 부부 관계를 경홀(輕忽)히 여기고 외간 남자(外間男子)와 더불어 행음한다는 것은 패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 몸 된 관계를 도외시한 채 창기와 더불어 불륜의 죄악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히13:4).

13. ㉠ 음행과 여타 다른 죄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8절)

- ㉠ (1) 사람이 범하는 여타 다른 범죄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데 반해 음행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2) 물론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술 취함이나 분별없는 흡연(吸煙) 등과 같은 행위도 자신의 몸에 해(害)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그러나 음행만큼 자신의 전인격(全人格)을 손상시키고 인간의 육체적 생명까지도 악화시키는 죄악은 없다.  
 (4) 따라서 우리는 음행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술 취함이나 흡연과 같이 백해 무익한 행위를 삼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몸을 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롬13:13,14).

14.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최종적 교훈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성도들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2) 이 같은 교훈을 위하여 바울은 본절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계속적으로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을 의미한다(요3:5-8;롬8:13,14).  
 (3) 둘째,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것이므로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값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寶血)을 의미한다(엡1:7;벧전1:18,19).  
 (4) 이처럼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참조, ㉠ 12)로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요 자신의 뜻을 좇아 살 수 없는 존재이다.  
 (5)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적과 의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의무이기도 하다(참조, 10:31).  
 (6)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칼빈(J. Calvin, 1509-1564)은 본서신 1:29과 롬 9:23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는 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을 거스려 자랑하는 셈이 된다'.

## 제 7 장 혼인(婚姻)에 관한 바울의 교훈

단락구분 1-9 혼인에 대한 바울의 권도(勸導) / 10-11 혼인한 자는 이혼하지 말라 / 12-16 믿지 않는 배우자(配偶者)에 대하여 / 17-24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상태로 지내라 / 25-26 처녀에 대하여 / 27-28 기혼자(既婚者)에 대하여 / 29-31 주의 날을 맞이할 성도들의 자세 / 32-35 미혼자(未婚者)와 기혼자의 차이점 / 36-38 처녀 딸을 둔 부모에 대하여 / 39-40 과부에 대하여

1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6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7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8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9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10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11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12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16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18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나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으나 할례를 받지 말라

19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1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24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5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26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27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29 형제들이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0 우리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때때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33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나누이며

34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품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35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너희에게 울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

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6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37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 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보내는 자도 잘하거나 시집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39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니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1. ㉠ 본장의 개요를 밝히라.

- ㉠ (1) 본서 1장에서부터 전장까지의 글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거리에 대한 바울의 책망과 훈계, 권고의 내용이 언급되었다.
- (2) 그런데 본장에서부터는 단원이 바뀌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 질문했던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바울의 답변 내용이 언급되기 시작한다.
- (3) 이러한 바울의 답변은 1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데 본장의 내용은 그 첫번째 것으로서 혼인에 대한 바울 자신의 생각과 권면의 말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
- (4) 한편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혼인 사상은 임박한 환난(참조, 26,29-31절) 및 인간의 '본능적 성욕(性慾)'(9절)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본장에서 거듭 '모든 사람들이 혼인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정욕을 억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12,8,9,26,36-40절)고 권면하였다.

2. ㉠ 본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두 가지 큰 물음은 무엇인가? (1-40절)

- ㉠ (1) 첫번째 물음은 성도들이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1-24절). 그리고 두번째 물음은 처녀들이 반드시 결혼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25-40절).
- (2) 이상과 같은 물음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첫번째 부류는 창2:24 말씀을 엄격히 준행하는 유대인들처럼 성도들은 반드시 혼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두번째 부류는 이와는 달리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다.
- (3) 이처럼 상반된 견해로 말미암은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본장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披瀝)하면서 주요한 교훈을 덧붙이었는데 곧 '성도들은 결혼하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17-24절)는 것이다.
- (4) 그런데 이상과 같은 자세는 반드시 혼인에 한해서만 요구되어지는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자세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요구되어지는 자세이다. 목회 전선(前線)에서 봉사하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램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닐 수가 종종 있다.
- (5) 이러한 때 우리는 비록 아쉬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롬12:3)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게 축한 줄로 여겨 주어진다

상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롬12:6-13).

3. ㉠ 고린도 교인들의 첫번째 물음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 (1, 2절)

- ㉠ (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緣故)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음행의 연고로'란 당시 부도덕한 행위가 만연했던 고린도의 사회상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유혹을 이기고 순결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것이다.
- (3) 한편 '가까이하다'(헬, 하프토)는 말은 '...와 성적 관계를 갖는다'는 말을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서 곧 '합법적인 결혼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 (4) 따라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바울의 말은 '사람의 독처(獨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창2:18)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 (5)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바울은 남녀간의 혼인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본장에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38절)라고 말하고 있으며 엡5:22,23에서도 남녀간의 혼인 관계를 귀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 (6) 그러면 굳이 본절에서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 극심한 환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26절; 마24:3-31).
- (7)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에서도 우리는 음행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6:13-20).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만일 혼인한 자이면 그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寢所)를 더럽히지 않도록 할 것이며(히13:4) 미혼자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도록 하자(딤후2:22).

4. ㉠ '너희의 쓴 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이것은 곧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써 바울에게 물어 온 질문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마치 본장의 표제(表題)인 듯한 '이제...에 관하여', '...에 대하여는'라는 헬라어 어귀(페리테)는 본절 외에도 '처녀에 대하여는'(25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8:1),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12:1), '연보에 대하여는'(16:1) 등의 귀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3) 아물든 이상과 같은 귀절들은 그 장(章) 또는 그 단원에서 저자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4) 하지만 본절에서 '너희의 쓴 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예외라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장 전체를 통해서 또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귀절들을 통해서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로써 바울에게 문의한 질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5. ㉠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은 어떠한 것인가? (3-5절)

- ㉠ (1) 첫째, 부부간에 서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무'(헬, 오페이레)란 혼인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성 관계를 의미한다. 즉 바울은 부부간의 성 관계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감정적, 육체적 요구에 대한 '의무'로 이해하였던 것이다.
- (2)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보다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主掌)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주장한다'(헬, 엘수시아조)는 말은 '...에 대한 권리를 가지다'는 뜻인데 이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정당한 부부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 (3) 둘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방(分房)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회사 일로 인한 출장(出張)이나 병고(病故)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필요에 의해 잠시 부부간에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4)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때에라도 서로가 합의한 후에야 분방할 것이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이내 부부가 합방(合房)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성적 자기 억제 능력이 약화되는데 이러한 때 사단은 인간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이다.
- (5) 이상과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까지도 불결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우리 성도들에게 결혼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 준다.
- (6) 하지만 이러한 성생활도 결혼에 따라오는 필연적인 것일 뿐 그것이 결혼의 목적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주면서(전4:9,10) 하나님을 위한 동반자적 삶을 살아가는 데 결혼의 의의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 6. Q '이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A (1) 이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 (2) 혹자는 '이 말'을 5절 전체를 받는 것으로 보며 다른 사람은 2절 전체를 받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두 견해는 모두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이 말'과 관련지어 바울은 7절에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벵겔(J. A. Bengel, 1687-1752)과 같은 신학자는 '이 말'을 1절 이하 5절까지의 모든 말, 즉 혼인에 대한 바울 자신의 소견(所見)으로 본다.
  - (4) 이 같은 벵겔의 견해는 본질의 전후 문맥 관계상 타당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이 가리키는 바를 1-5절 내용으로 단정할 수 있다.

#### 7. Q 혼인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7절)

- A (1) 그것은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恩賜)에 관한 것이다.
- (2)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바울 자신의 바람일 뿐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는 개인마다 다른 것이다.
  - (3)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헬, 카리스마)란 자신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 (4)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마19:10)라는 제자들의 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跛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마19:11,12).
  - (5) 그런데 이와 같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뿐 아니라 개인의 신체적 특성, 지적 능력, 장인적(匠人的) 소질 그밖에 다른 부문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개개인의 은사도 각기 다르다. 그리고 것처럼 개개인의 은사가 각기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자고(自高)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을 보완하는 가운데(12:12-31)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 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참조, 롬8:28).
  -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자신에게는 없는 재능으로 인해 낙심하며 원망하기 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9:15).

8. ㉠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8, 9절)
- ㉠ (1) 거듭 강조하였듯이(1,7절) 바울은 이들에 대하여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부'(헬, 케라)는 비단 과부 뿐 아니라 홀아비까지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장에는 특별히 홀아비를 위하여 권면하고 있는 별다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권면에도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부가 사항이 첨가되어 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리라'.
- (4) 이러한 바울의 말은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百體)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마5:30)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근본 정신이 동일하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으로 지내든 간에 삼가 죄악의 유혹을 물리침으로써(참조, 창39:7-10)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하자(엡4:30).
9. ㉠ '혼인한 자'와 '남은 사람'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10-16절)
- ㉠ (1) 여기서 말하는 '혼인한 자'란 특별히 부부(夫婦)가 모두 그리스도인인 자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사실은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의 사견(私見)을 적용한 데 반해 '혼인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에게만 구속력(拘束力)이 있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까지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5장 ㉠14).
- (3) 이에 반해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란 자신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성도들을 가리킨다.
- (4) 이 같은 사실은 바울이 '남은 자'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배우자로 인하여 회심(回心)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10. ㉠ 바울은 혼인한 자들에게 이혼에 관제된 어떠한 명을 내리고 있는가? (10, 11절)
- ㉠ (1)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갈리지 말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 코리스테나이>는 수동태 부정사로서 '여자 스스로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라'는 뜻이다.
- (2) 한편 바울은 이 같은 명을 내리면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일찌기 그리스도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까닭으로 이혼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다(마5:32; 19:3-9).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재삼 확인해 준 자에 불과한 것이다.
- (3) 그러나 이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린도에는 금욕주의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여성도들이 육체적 순결을 강조하여 남편과 갈라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여자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고 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 (4)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으로 남편과 갈라졌으면서도 다른 남자에게 다시금 시집간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간음 행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참조, 눅16:18).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예외일 뿐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한 행위라 할지라도 이혼은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남자든 여자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의 연(緣)을 경솔히 여겨 사사로운 이유로 그 관계를 파기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히

13:4).

## 11. ㉠ 바울은 남은 사람들에게 이혼에 관계된 어떠한 명을 내리고 있는가? (12-16절)

- ㉠ (1) '민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민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 (2)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까닭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경우라도 불신 배우자가 상대방의 행실과 그 믿음, 전도 등에 감화를 받아 회심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러한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벧전3:1).
- (3) 하지만 이와는 달리 불신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앙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 바울은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고의적으로 갈리는 것은 결혼 당사자간의 계약을 깨는 행위이니 성도들은 더 이상 그 계약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화평이라는 점이다(참조, 14:33). 그러므로 불신 배우자를 둔 성도들은 여하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롬12:18).

## 12. ㉠ 남은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명령은 성도와 불신자 간의 결혼 및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12-16절)

- ㉠ (1) 결코 그렇지 않다.
- (2) 바울이 이 같은 명령을 내린 것은 어디까지나 이미 불신자와 결혼을 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본래는 불신자였으나 부부 중 한 편이 뒤늦게 신자가 된 자들에 대하여 그 형편을 인정하고 그에 준한 명령을 내린 것이지 결코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나 자유로운 이혼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 (3) 그러기에 바울은 고후6:14-18에서 성도들이 불신자와 함께 멩에를 같이함으로 영적 손상을 입는 것을 금하였던 것이다.
- (4) 그런데 혹자는 '내가 불신자와 결혼한 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불신자와 성도 간의 결혼을 반대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 (5) 이 같은 반문은 언뜻 듣기에는 이치에 맞는 정당한 견해인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불신자와 결혼한 후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엡2:8)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가 불신자일 경우, 결혼을 한 후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기 보다는 먼저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낸 후 그와 결혼하는 지혜를 지녀야 할 것이다.
- (7)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 신앙은 도외시한 채 불신자와 함께 멩에를 같이할 것인가? 결코 그러서는 안 된다.
- (8)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눅18:29,30)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같은 약속에 의지하여 끝까지 불신을 고집하는 자와는 결혼하는 일을 금하여야 할 것이다(갈5:16). 어쩌면 이것은 불행한 결혼을 막는 최선책이 될 수도 있다.

## 13. ㉠ 교회에 대한 바울의 명은 무엇인가? (17-24절)

- Ⓐ (1)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성도들은 자신의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한 외적 환경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우리들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3) 더군다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수1:9).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극복하며 개척하는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슬기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야 한다(창1:28; 마5:13-16).

14. Ⓒ 할례와 무할례에 관한 바울의 언급을 살펴보라(18-20절).

- Ⓐ (1) 바울이 본절에서 할례와 무할례의 문제를 언급하게 된 것은 아마도 당시 성도들 가운데서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하는 할례 문제가 심각한 논의거리로 대두되었기 때문인 듯하다(참조, 행15:1-29).
- (2) 특히 이러한 문제는 고린도와 같이 주로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더욱 쉽게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한 반면(참조, 행15:1) 사도 베드로와 같은 이는 구약에 있어서 언약의 표시인 할례(창17:9-14)의 무용성(無用性)을 주장하였다(참조, 행15:6-11).
- (3) 결국 이러한 상반된 견해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서신으로 문의한 듯한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 (4)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명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리스도로 인해 할례가 불필요해졌기 때문이었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요11:25,26) 안에서는 율법을 좇아 육신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이다(롬2:25-29; 갈5:6).
- (5) 그러므로 바울은 이에 대하여 재차 다음과 같은 부언(附言)을 하고 있다.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 (6)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육체적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임을 깨닫고(롬2:29) 부르심을 받은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생활에 전력하여야겠다(마22:34-40).

15. Ⓒ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면 할례받은 흔적을 굳이 없애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 (2) 이 같은 바울의 말은 곧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이 할례받은 사실을 감추려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데 이는 역사적으로도 뒷받침된다.
- (3) B. C. 199년 이후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된 시리아의 셀류쿠스(Selucus)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헬레니즘(Hellenism) 문화를 이식(移植)시켰다. 이때 제사장 메넬라우스(Menelaus)를 중심으로 한 친헬라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금하는 셀류쿠스 왕조의 정책에 편승(便乘)하여 자신이 받은 할례의 흔적을 없애 버렸다(참조, 외경, 마카비

상 1:15; 요세푸스의 「고대기」 12권 5:1).

- (4) 이러한 영향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미쳐 그들 중에는 외과적 수술로써 자신의 할례 흔적을 없애려고 한 자가 있었던 것 같다.
- (5)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와 같은 외적 표시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6)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요15:10-12).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의 외면적인 육체적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바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온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롬12:2).

16. **㉠**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교훈하기 위해 바울이 들고 있는 실례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 (21-24절)

**㉠** (1) 종(slave)에 관한 것이다.

- (2) 바울 당시에도 종의 신분으로서 복음을 듣고서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 있었다. 빌레몬(Philemon)의 종인 오네시모(Onesimus) 역시 그러한 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몬1:9-16).
- (3)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육적으로는 인간인 주인에게 매여 있는 몸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에 반해 육적으로 자유자인 성도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죄의 형벌(고후5:21)과 사단 및 그의 권세(골1:13)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묶어 놓으셨다(롬1:1).
- (5) 그러므로 바울은 결론적으로 종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영적인 일에 있어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 (6) 이상과 같은 바울의 말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빵을 위하여 사회 여러 계층에서 피고용인(被雇用人)으로 일을 한다. 그렇지만 성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하는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께 매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17. **㉠** 비록 종이지만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1절)

**㉠** (1) 이 말은 위법(違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노예 신분을 면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여 자유인이 되라는 의미이다.

- (2)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회년(禧年)이 되면 종을 해방시켜 자유인의 몸이 되게 하는 규례를 갖고 있었다(레25:39-55). 그러나 유대인들이 아닌 고린도인들과 같은 이방인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규례가 없었다.
- (3) 그러나 그들 사회에 있어서도 종들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는 있었다. 비록 종이랄 할지라도 속전(贖錢)을 지불하고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이나 국가에 크나큰 공을 세웠을 때 그에 대한 포상(褒賞)으로 종의 신분을 면할 수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주인의 관용(寬容)을 입어 자유인이 되는 사례도 있었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기회가 닿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18. **㉠** 처녀의 혼인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어떠한 견해를 표명하였는가? (25-28절)

- Ⓐ (1) 그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임박한 환난'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서 이 세상에 임할 대환난(마24:3-21)을 가리킨다. 이러한 환난은 역사상 전무 후무(前無後無)한 것으로서 이때에는 특히 아이벳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눅21:23).
- (3) 그렇지만 이 같은 바울의 견해는 환난 날에 장가가고 시집간 자들에게 미친 육신적 고통을 염려한 데서 나온 말이지 결코 결혼 자체를 업신여긴 데서 나온 말은 아니다.
- (4) 그러므로 그는 이미 장가간 자면 장가간 채로, 독신이면 독신인 채로 지내라는 부언(附言)을 여기서도 하고 있다. 또한 장가가는 것이나 시집가는 것이 죄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새삼스레 하고 있다.
- (5) 아뭏든 이상과 같은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세상 종말에 있을 대환난을 얼마나 임박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환난의 전조(前兆)는 현재 세계 도처에서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그리고 바울 당시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환난 날에 가까운 때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21:34)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자. 그리하여 결혼이나 가정 일과 같은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못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자(참조, 마 25:1-13).

19. ⓐ 임박한 환난과 관련하여 주어지고 있는 또 다른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29-31절)

- Ⓐ (1)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것이다.
- (2) 이 말은 곧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세상의 사회적, 물질적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할 시간은 짧는데 반해 이 세상 끝날은 가까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형적'(헬, 스케마), 즉 이 세상의 형체를 지닌 모든 것은 변하며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다(약4:14; 뱀전1:24; 요일2:17).
- (3)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받을 장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것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참조, 롬8:18)을 깨닫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것에 구애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고후6:1-10).

20. ⓐ 그리스도에 대한 기혼자와 독신자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32-35절)

- Ⓐ (1) 남자건 여자건 혼인한 자들은 그리스도보다 그들의 배우자(配偶者)의 요구에 더 관심을 두는 반면 독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는 점이다.
- (2) 그런데 이 같은 차이점을 바울이 지적한 목적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교인들이 가정 일을 너무 염려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누(累)를 범치 않도록 일깨워 주려는 데 있었지 결코 그들에게 독신 생활을 장려하려는 데 있지는 않았다.
- (3)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독신자이면 독신 상태에서, 기혼자이면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분요함이 없이 이치에 합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분요함이 없이'(헬, 아페리스파스토스)란 말은 '산만함이 없이' 또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없이'라는 뜻이다(참조, 눅10:40,41).
- (4) 이상과 같은 바울의 말은 바쁜 세상 가운데서 분주히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칫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삶의 목적을 돌아 보게 해준다. 그것은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10:31)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성실히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21. ㉠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집가지 않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 ㉠ (1) 한번 결혼하였으나 지금은 남편이 없는 여자, 즉 과부나 이혼한 여자를 가리킨다.  
 (2) 왜냐하면 '시집가지 않은 자'로 번역된 헬라어 <구네>는 '처녀'라는 의미보다는 '여자', '부인', '과부'라는 의미를 보다 강하게 띠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본문 가운데 '시집가지 않은 자'란 말과 함께 '처녀'(헬, 파르테노스)라는 말이 나란히 병행되어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22. ㉠ 본단원과 관련된 두 가지 이설(異說)에 대하여 살펴보라(36-38절).

- ㉠ (1)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36절에 나오는 '자기'와 '처녀 딸'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것이다. 헬라어 본문에는 '처녀 딸'이라는 말 가운데 '딸'(헬, 두가테르)이라는 단어가 없이 '처녀'(헬,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만 나온다.  
 (2) 그러므로 현대의 많은 주경 신학자(註經神學者)들은 '자기'를 약혼한 남자요, '처녀 딸'을 그의 약혼녀로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따를 때 본문이 뜻하는 바는 아래와 같은 것이 된다. 약혼한 남자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정욕을 억제할 수 있으며 또한 부득이한 일이 없을 경우에 약혼자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잘한 일이다.  
 (3) 그러나 이에 반해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자기'를 처녀의 아버지로, '처녀 딸'을 그의 딸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그들은 38절의 '시집보내다'(헬, 가미조)는 말이 어디까지나 '결혼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사역 동사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아버지가 혼기(婚期)가 찬 딸을 시집보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일이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 딸을 시집보내지 않는 것도 잘한 일이다.  
 (4)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굳이 약혼자간의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편지로 문의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참조, 1절). 아마도 그들은 자녀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가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참조, 창 24장)에 비추어 이방인인 자신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바울에게 문의하였던 것 같다.  
 (5)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위의 두 견해 중 보수주의적인 견해가 본문에 부합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다.

23. ㉠ 3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득이한 일'이란 어떤 경우를 뜻하는가?

- ㉠ (1) 처녀 딸이 독신으로 지내기를 거부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이와 같이 결혼하기를 원하든지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하든지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이다. 이러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창조시(創造時)에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고유 권리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버지가 처녀 딸을 시집보내지 않으려 할 경우 반드시 부득이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다.  
 (3) 그렇지만 이러한 우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유와 함께 우리의 목숨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제하고 살든지 죽든지, 결혼을 하든지 독신으로 지내든지 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자(엡1:20).

24. ㉠ 바울이 부부 관계를 어떠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과부 된 성도의 재혼에 대해

여 어떠한 단서를 붙여 허용하고 있는가? (39절)

- Ⓐ (1) 그는 부부 관계를 부부가 서로 살아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2) 그러므로 그는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3) 즉 바울은 배우자 양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서로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참조, 창2:24) 어느 한편이 죽으면 그것으로서 부부 관계는 끝나는 것으로 이해 하였던 것이다.  
 (4) 이와 같은 바울의 사상은 유독 여자의 재혼만은 허용하지 않고, 죽은 남편을 기리며 정조(貞操)를 지키도록 강요하던 동양의 유교적 전통과는 크게 상치(相馳)한다. 하지만 바울이 주창하는 이러한 남녀 평등의 원리가 곧 기독교적 정신이다.  
 (5) 그러기에 그는 과부 된 성도의 재혼에 대하여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재혼을 허용하면서도 '주 안에서만', 즉 그리스도인과 재혼하는 것을 단서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와 재혼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버리고 벨리알(Belial)과 연합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참조, 고후6:14,15).  
 (6) 한편 이상과 같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인 간의 부부 관계는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맺는 부부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불변의 것이다(참조, 계19:1-8).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적인 배우자를 얻은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영적 배우자로 얻은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다.

25. ⓐ 과부에 대하여 밝히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사견(私見)은 무엇인가? (40절)

- Ⓐ (1) 자신의 생각에는 재혼하는 것보다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되다는 것이다.  
 (2) 이러한 바울의 견해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어디까지나 임박한 환난(참조, ⓐ 18)과 가정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참조, ⓐ 20)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지 무조건 독신 생활을 장려한 말은 아니다.  
 (3) 따라서 그의 견해는 상당히 유효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밝힌 견해가 비록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아 밝힌 견해임을 자증(自證)하고 있기까지 한다.  
 (4) 한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독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뜻하지 아니한 근심거리를 접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권면하려는 근본 의미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義)를 구하라(마6:33)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 본장의 요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22절).

## 제 8 장 우상의 제물에 대한 태도

단락구분 1-3 지식과 사랑의 대조 / 4-6 헛된 우상과 참신(神) / 7-13 약한 형제에 대한 태도

1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4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7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8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중성함이 없으리라

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케 않게 하리라

### 1. ㉠ 바울이 8-11장에 걸쳐 언급한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당시 고린도에서는 공적이건 사적이건 사람들이 사교상 모임 때는 주로 신전(神殿)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이때 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곤 했었다.
- (2) 그런데 누구라도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었으며 그 결과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 (3) 더우기 그때 시장이나 상점에서 팔던 대부분의 고기들은 이미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다. 즉 고린도 신전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떨어졌던 제물용 고기를 처분하지 못하면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 따라서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가 깨끗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제물로 사용되었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 (4) 이러한 배경하에서 고린도 교회 내에 있던 영지주의자들(Gnostics)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6:12). 그리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양심이 여린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10:23).
- (5) 따라서 바울은 자유의 행사에는 사랑의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줌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에게 허용된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하지 말고 자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 (6) 이처럼 이 세상에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주위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처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랑이란 일단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함은 곧 그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부족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참조, 13:5).

2. **㉠** 자칭 지식이 있다고 주장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충고는 무엇인가? (1-13절)

- ㉠** (1) 고린도 교회 내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개종하여 아직 믿음이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대할 때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다.
- (2) 그러므로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의 '우상의 제물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없다'는 주장은 초신자들의 양심을 괴롭히는 것인만큼 '설혹 우상의 제물이 자신들에게는 무해(無害)하더라도 형제들에게 해가 되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하였다(8절).
- (3) 이러한 바울의 충고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깔려 있다. 첫째, 자신이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 뿐 아니라 남에게도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 (4) 둘째, 모든 것을 지식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없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여 남을 무시한 채 일을 진행시킬 수도 있으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랑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 (5) 셋째,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킬 수 없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결코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방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 '우상의 제물에 대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고린도 교인들 중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4-6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감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했던 것이다.
- (2)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일단 그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말하려는 주된 방향은 다른 데 있었다.
- (3) 즉 바울은 제물이 별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식'일런지 모르나 그것은 누구나(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 모든 사람들) 알고 있는 것이며, 더우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써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그 지식을 능가할 삶의 원리, 즉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 (4)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지식이란 자기 중심적이며 단순히 논쟁을 위한 지식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지식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사랑을 통한 교회의 연합에 더 관심을 가졌다.
- (5) 이처럼 바울이 밝히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기계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 인간의 생활을 여유가 없게 하는 반면 사랑은 오히려 미련한 듯하지만 인간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13:4,5).
- (6)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지나치게 교리와 규칙을 적용시키기 보다는 사랑과 관용을 통하여 진정한 선(善)과 평화를 성취하여야 한다.

4. **㉠** 바울이 말하는 참다운 지식이란 무엇인가? (2절)

- ㉠** (1) 바울은 만일 누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 (2) 즉 인간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것일 뿐이며 그가 알고 있는 것이 올바른 지식인지 그릇된 지식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자신이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여 교만하는 것은 우스운 일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진정한 지식의 추구는 자신의 무지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4) 그러므로 참다운 지식은 겸손한 자세로 늘 배우려는 마음 상태에서 시작되는 그리고 사랑으로 이끄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참조, 벵후1:5).

5. **㉠**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을 축복은 무엇인가? (3절)

- Ⓐ (1)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된다는 것이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는 사실이다(참조, 갈4:9; 딤후2:19).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주장하시며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의미이다.  
 (3) 이처럼 이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자신이 예전부터 그의 곁에 계셨으며 사랑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과 아울러 앞으로 그의 주관자 되심을 가르쳐 주신다(참조, 갈4:9).  
 (4)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불행과 비참함이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참조, 호6:3).

6. **㉠** 우상에 대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공통된 견해는 무엇인가? (4절)

- Ⓐ (1)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2) 그런데 바울은 10:20,21에서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우상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본질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한 우상과 귀신들은 결코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온 세상의 인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점이다.  
 (3) 이처럼 바울은 본질에서 '유일신(唯一神)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교에서 이 사상이 절대적인 명제이듯이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4)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성과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상의 세력에 의존하려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허다하다. 우상은 분명 그 자체로써는 무인격체에 불과한, 즉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는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참조, 사40:16-20).  
 (5)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파멸시킬 기회만을 노리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면 무능한 우상을 의존하기 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참조, 시37:40).

7. **㉠**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5, 6절)

- Ⓐ (1) 바울이 살던 당시의 세인(世人)들은 많은 신과 주(主)를 임의로 만들고 또한 섬겼으나 그런 중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자로 보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다른 신이나 주들과 비교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실제적 역할을 담당한 분으로 보았다.  
 (2) 그런데 '주'(主, 헬, 퀴리오스)란 원래 이 세상의 각 지역을 담당하는 권세자들, 즉 임금이나 상전을 가리키는 단어였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주'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킨다.  
 (3) 한편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은 영원에서 예수를 보이신 사실을 강조하였다.  
 (4) 이와 같이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결국 이 두 분의 존재는 '하나',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심을 강조하였다.  
 (5) 즉 바울은 예수께서 창조와 구원의 행위 모두에 관여되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다른 이름으로 불리어졌으나 그 본체가 하나이심을 주장하였다(참조, 엡3:9-11).  
 (6)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7)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중심한 역사 의식을 지녀야만 할 것이다(참조, 롬11:36).

8. **㉠** '이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했다' 함은 무슨 뜻인가? (7절)

- ㉠** (1) 바울은 그 지식(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1절에 의하면 그 지식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말이다.
- (2) 그러므로 본절의 말은 아직도 교회 내에서 이러한 지식이 보편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이러한 지식이 없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3) 이같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직도 예전에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즉 그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상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직까지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 이외의 잡다한 신이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며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단지 복이나 가져다 주는 존재로만 생각한다.
- (5)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인의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복음의 바른 도리를 가르쳐야만 한다(참조, 롬1:16; 갈1:10-12; 엡3:1-6).

9. **㉠** 양심이 약한 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7절)

- ㉠** (1) 그들은 우상에 대한 옛날의 잘못된 개념을 아직도 지니고 있어, 음식을 우상의 제물로 알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은 더욱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
- (2) 즉 그들은 음식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참조, **㉠** 1)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 (3) 그런데 그들의 이 같은 생각의 배경에는 우상이 실재한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우상이 살아 있어서 역사(役事)하는 신(神)이라고 믿었다.
- (4) 이처럼 잘못된 생각과 신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예속된 삶을 사는데,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바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참조, 행17:23-31).
- (5)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세력 위에 계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엡4:6). 더우기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딤후4:4,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를 두려워하거나 그 세력 때문에 하나님이 제공하신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10. **㉠** '식물' 곧 음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8절)

- ㉠** (1) 바울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며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2) 즉 바울은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롬14:17).
- (3) 더우기 우리가 회생 제물을 먹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지위나 받을 보상은 잃지 않으며 또한 우리가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사소한 일로 인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같이 율법적인 일에 매달리는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형제에게 내주는 사랑을 보이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참조, 벧전1:22).

11. **㉠** 바울은 '자유'의 사용이 어떠한가? 합을 가르쳤는가? (9절)

- A** (1) 그에 의하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2) 여기서 '자유'로 번역된 헬라어 <엘수시아>는 '권위' 혹은 '권리'를 의미하는데 본절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에 대해서 자신들이 좋을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3) 그러나 바울은 비록 그들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라면 그것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4) 이것은 곧 강한 자의 행동이 약한 자의 길을 가로막을 권리가 없으며 한 사람에게 옳은 것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옳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어떤 때는 절제와 근신이 자유보다 더 나올 때가 많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 타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며 자유롭게 할 때 가치있는 자유라고 할 수 있다(참조, 갈5:13).

12. **㉠**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생각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10절)

- A** (1) 바울은 이에 대해 만일 지식이 있는 자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을 약한 자들이 본다면 그들의 양심이 담력(膽力)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됨을 예로 들었다.  
 (2) 즉 지식이 있는 자는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사실 믿음이 성숙한 신자라면 그 장소가 어디든 또한 그 음식의 출처가 어디든 상관 없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우상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우상에게 예의를 표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믿음이 성숙한 자라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는 마치 우상과 타협하거나 우상을 숭배해도 되는 양 착각하게 될 것이다.  
 (3) 결국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약한 자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낌을 받으면서도 기운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4) 이처럼 지식이 있는 자들의 경솔한 행동은 약한 자들을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이처럼 성숙한 신앙에 이른 성도들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좌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함부로 한다면 초신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참조, 엡5:8).  
 (6) 따라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항상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한 희생과 헌신의 삶이어야 할 것이다.

13. **㉠** 바울은 양심이 약한 자를 잘못 인도한 지식 있는 자들의 행동은 어떤 것이라고 규정했는가? (11, 12절)

- A** (1)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멸망케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2) 즉 양심이 약한 자는 자칭 지식이 있다는 자가 없었다면 신앙상 것처럼 뒷걸음칠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타락의 길로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3) 특히 바울은 이 '양심이 약한 자'에게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지식 '있는 자들은 그들을 소홀히 여겨 멸망에 빠지게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던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즉 바울은 이 말을 통해 예수께서 완전한 희생을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형제를 하찮게 여기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던 것이다.  
 (4) 그러므로 형제에 대한 죄는 곧 주께 대한 죄가 된다(참조, 마25:40,45; 행9:4).

(5) 따라서 우리는 본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전반의 신앙 생활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행2:42). 또한 모든 행동의 근거는 지식보다 사랑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14. **Q** 식물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바울은 어떻게 하리라고 했는가? (13절)

- A** (1)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고 말했다.  
 (2) 이것은 본장의 결론이 되는 말로, 바울은 자신이라면 약한 형제를 생각하여 형제의 신앙 생활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고 했다.  
 (3) 즉 바울은 형제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나 자유를 영원히 희생시킬 수 있음을 말하였다.  
 (4)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바울과 같이는 못 할지라도 약한 초신자의 신앙을 위해서 교인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자유만을 강조하지는 말아야 한다(참조, 히6:10).

### 연구자료

하나님의 유일성(Unity). 하나님과 같으신 신이 오직 한 분뿐이 시라는 사실은 신·구약 성경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이 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적부터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6:4, 5)는 가르침을 받는다. 이 점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4절)고 말하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딤후1:11)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하나님밖에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음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단수성'(singularity)이라 정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단수성'과 관련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으니 곧 하나님의 '단순성'(simplicity)이다. 여기서 뜻하는 '단순성'이란 '하나님은 합성적(合成的)이거나 복합적(複合的)인 존재가 아니시니 곧 불가분적(不可分的) 존재이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러면 이 같은 개념은 삼위일체(trinity) 교리와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단순성' 개념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삼위(三位)를 부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 이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단수성'과 '단순성'을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 개념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유일성'(唯一性)이라고 한다.

## 제 9 장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다

단락구분 1-6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바울 / 7-11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12-18 복음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다 / 19-23 만민의 구원을 위한 권리 포기 / 24-27 절제의 이유

1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2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 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3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었느냐

5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었느냐

6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었느냐

7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8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나

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나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3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느니라

15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데로 돌리지 못

하게 하리라

16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17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19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로라

20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로라

22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로라

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6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 1. ㉠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 ㉠ (1) 8장에서 고린도 교인들 중 자칭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우상의 제물까지도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2) 이에 대해 바울은 비록 자신에게 사도로서의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될까 봐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 (3)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권리는 사도로서의 권리이다. 즉 그는 예수를 보았고(참조, 행9:3-6), 그분을 증거하였으며,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하였다(2절).
- (4) 따라서 그에게는 사도로서 누릴 권리, 즉 아내를 맞이할 권리와 교회로부터 경제적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같은 권리를 포기한 것은 곧 그러한 권리 행사가 복음 전파를 막을까 두려워함이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원키 위해 권리가 없는 자들과 같은 입장에 서기 위함이었다.
- (6) 한편 바울이 말한 내용의 이면에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데 대한 반론의 의미도 담고 있다.
- (7) 이상과 같이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단호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외에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진정하게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 2. ㉠ 바울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가? (1절)

- ㉠ (1) 바울은 자신을 자유자요, 사도요, 주를 본 자라고 했으며, 또한 자신이 일을 하여 얻은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했다.
- (2) 여기서 '자유자'란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자'인 것처럼 자신도 '자유자'라는 의미인데 이는 죄의 멍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된 것을 가리킨다(참조, 19절).
- (3) 또한 그의 사도 된 근거는 먼저 그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라는 사실이다(참조, 15:8). 그런데 누가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였다(참조, 행1:22). 그러므로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한 것은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
- (4) 그리고 그의 사도 된 두번째 근거는 예수께서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부르신 자들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두번째 근거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이 세운 터전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참조, 롬15:20), 자신이 스스로 개척하는 자임을 가리켰다.
- (5)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최초로 세웠고 또한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근거는 명백하다고 시사하였다.
- (6) 더우기 그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런데 바울이 이같이 자신의 사도성과 권리 사항을 제시한 것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그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시킨 후 그 모든 권리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포기하겠노라는 말을 하기 위해 먼저 이와 같은 말을 꺼냈던 것이다.

## 3. ㉠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바울의 사도 됨을 인(印)치게 되었는가? (2절)

- ㉠ (1) 여기서 '인'(印)은 진흙이나 밀납 등에 새긴 소유권과 증명의 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그 표시를 보고 내용을 알 수 있었다.
- (2)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인들이 인쳤다고 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최초의 개척자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했으며 바울의 권위를 지금도

인정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다.

- (3) 즉 바울의 사도적 위치와 교회 설립자로서의 권위는 고린도 교회의 뿌리를 찾게 하는데 가장 큰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비록 고린도 교회 밖에서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그 권위를 인정치 않는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만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자기에게 소개해 주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믿음의 선배들 또는 교사들의 권위는 그 어떤 인간적인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인정해야만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가능케 한 자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참조, 갈6:6).

#### 4. ㉠ 고린도인들의 비난(힐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무엇인가? (3-6절)

- ㉠ (1) 첫째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權)이 없겠느냐'는 말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공동체의 경비로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이다(참조, 살후3:9).
- (2) 둘째 '자매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것은 사도들이 복음 사역에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을 가리키며 그들의 아내도 교회의 비용으로 부양을 받고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는 사도들도 결혼할 권리가 있음이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다(참조, 7장).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독신을 고수해야 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 (3) 셋째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즉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없겠는가?'하는 말로, 바울의 이 같은 세번째 답변도 첫째 답변과 맥(脈)을 같이하는 것인데 사도가 교회를 위한 봉사의 대가로 교회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 (4) 그런데 이 같은 권리들은 다른 사도들이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참조, 고후11:4)이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던 권리였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 같은 권리를 포기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점차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5. ㉡ 3-6절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라.

- ㉡ (1) '나를 힐문(詰問)하는 자들'(3절)이란 고린도 교인들로서 바울을 향한 거짓 사도들의 비난에 동조하는 자들이다.
- (2) '우리'란 6절에 '바울과 바나바'로 나와 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합은 행9:27-15:39에 언급되었는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행13:2)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이전에(행15:39) 마가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빚어진 문제로 바울과 갈라졌다.
- (3) 또한 '다른 사도'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도가 예수의 열 두 제자와 바울과 한 두 사람이 더 포함되어 있다(행14:4,14). 본장에서 '사도'의 범위는 사도행전의 언급보다 그리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바울은 '주의 형제'를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로 보았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중 야고보가 사도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알고 있다(15:7; 행1:14; 갈1:19). 즉 그는 예수의 부활 이후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예수를 증거하는 신실한 일군이 되었다.
- (5) '계파'는 베드로를 가리키는데 그가 이곳에서 언급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계파파(派)'가 있었기 때문이다(1:12).
- (6) '자매 된 아내'란 '믿는 자의 아내'를 가리킨다. 이로써 우리는 당시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결혼했음을 알 수 있다(참조, 7장). 즉 사도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더불어 복음 전파 사역에 참여했던 것 같다.
- (7)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그는 자신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므로 결코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무시할 수는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처럼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도 여전히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 때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6. **㉠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7절)**

- ㉠** (1) 바울은 본절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일꾼들이 포도원이나 목장에서 일을 할 때에 보수를 기대하고 일을 한다는 것이다(참조, 신20:6).
- (2) 바울은 이 같은 실생활의 예를 들어 그들이 보수를 받는 것이 극히 자연스런 순리임을 가르치고 있다.
- (3)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활의 보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 (4) 즉 복음의 역군들(참조, 딤후2:3,4)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참조, 3:6) 그리고 양떼를 인도하는 목회자(참조, 요21:15)들이 보수를 받고 신령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 (5) 그러나 요즘은 일부 교단(안식일 교회 등)에서는 기성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한 책략으로 요10:12을 예로 들어 샅을 받고 일하는 자는 강도요 거짓 교사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한 말을 한 것이다. 즉 요10:12에서 샅꾼이란 양들의 건강은 살피지 않고 단지 돈만 밝히는 욕심이 가득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바울은 갈6:6에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다.

7. **㉠ 자신의 권리 주장을 위해 바울이 제시한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8-11절)**

- ㉠** (1) 그는 모세의 율법(신25:4)에 언급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제시했다.
- (2) 이 귀절은 타작을 하는 소에게 먼저 먹을 양식을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바울은 그보다 이 말씀 자체는 밟을 가는 자와 곡식을 떠는 자가 결실의 소망을 갖고 일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3)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영적인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물질적인(육적인)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 (4)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지나친 보수를 요구하는 것과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는 위화감이다.
- (5)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대접받는 것을 지나치게 좋아해서는 안 되며 정당한 보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보다 나은 목양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참조, 눅2:8-20; 15:3-6).

8. **㉠ 보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凡事)에 참는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었다.
- (2) 이 같은 바울의 염려는 헌금에 대한 그릇된 사용이 없기를 바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16:1).
- (3) 즉 바울은, 복음이 자기의 권리 주장과 권한 행사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자들에 의해 잘못 전달된 예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며 그 같은 일을 염려했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 또한 어떤이에게는, 신령한 일을 담당하는 자가 물질에 얽매어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함 없이 신앙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스스로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노라는 것이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 교회를 치부의 수단으로, 교인들을 그 대상으로 보는 목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연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 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벧후3:10).

9. **㉠** 바울이 복음 전도자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새롭게 내놓은 구약의 근거는 무엇인가? (13-15절)

- ㉠** (1) 성전과 제단에서 일을 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생기는 제물로 살았다는 것이다.
- (2) 즉 구약 시대에 성전의 일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헌금과 제물로 생활을 하였다(민18:8,9; 신18:1-4).
- (3) 또한 그는 이 내용에 대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증거로 눅10:7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일꾼이 그 삯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내용을 인용하였다(참조, 갈6:6; 살후3:9).
- (4)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으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 (5) 더우기 바울은 자신의 자랑, 즉 교회의 보조를 받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기를 바랐으며 특히 이로 인해 교회들로부터 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어떠한 압력도 받기를 원치 않았다.
- (6)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또한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에게는 한 가지 목적 곧 복음 전파밖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참조, 빌3:8).
- (7) 우리의 시각에 비취진 바울은 어쩌면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열심과 정열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 비우는 기도이다.

10. **㉠**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자신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16절)

- ㉠** (1)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다.
- (2) 즉 그는 단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필연성에 의해 복음을 전파할 뿐이라고 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그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무슨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 (3) 이처럼 그가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수(행9:1-9)와 성령(행13:2)에 사로잡힌 자였으며 날마다 주의 제시에 민감했던 자였다(행22:21). 즉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 (4)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처음에는 이 같은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에 못 이겨 복음을 전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열정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욕망만 남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겠다.

11. **㉠** 바울의 복음 전파는 누구의 요구인가? (17, 18절)

- ㉠** (1) 바울은 그 일이 결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아니며 만일 그랬다면 자신은 상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여, 그 일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임을 말하고 있다.

- (2)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빌3:12) 그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롬1:1) 부득불 하는 일이었다.
- (3) 더우기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하는 것' 자체가 상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기도 하였다.
- (4)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일은 그 말은 일이나의 열심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선택적으로 맡겨 주신 사명이라는 점이다. 결국 사명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 대한 절대 순종과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4:2).
- (5)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의 선행을 알지 못하나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겠다(참조, 마10:8;16:25).

12. **㉠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것은 그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다.
- (2) 그가 자유로운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의 노예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7:23).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된 것이다(참조, 고후4:5).
- (3) 이것은 곧 완전한 포기를 의미한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좋다는 예수 같은 뜨거운 사랑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11:24,25; 롬9:3).
- (4)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비롯한 기타의 일들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포기야말로 중국에 가서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참조, 마19:29).

13. **㉠ 유대인과 같이 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된다 함은 무엇을 뜻하는가?** (20절)

- ㉠** (1) 바울은 원래 유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육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관습과 명예를 포기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인해 중생한 자들이 새 이스라엘(유대)인이라고 여겨 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자신이 유대인, 즉 혈통적인 의미에서의 유대인이라 자처하고 나섰다.
- (2)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자기의 동역자이며 제자인 디모데에게 실시하게 했으며(행16:3)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였다(행21:17-29). 이처럼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에게는 율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대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처신했는 것은 그가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다(참조, 롬9:3; 갈2:7).
- (5)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으로서 어떤 것에 얽매는 것이 힘들기는 하지만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가 자유하기 때문이다.
- (6) 자유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그래도 얽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진리요, 복음이요,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얽매어야 할 단 하나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참조, 요14:6).

14. ㉠ '율법 없는 사람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1절)

- ㉠ (1) 이들은 유대인과 같이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다. 그러나 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 곧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롬2:14, 15).
- (2) 그런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처럼, 즉 율법 밖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다(참조, 갈6:12).
- (3) 여기서 우리는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여 인간을 오히려 얽매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로웠던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결코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에 얽매어 있었으며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으니 하나는 자신이 주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죄와 세상의 법에 얽매어 있는 자들을 자유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마28:20).

15. ㉠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그것은 그들 모두를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본절에서 그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곧 약한 양심의 소유자들로서 복음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다(참조, 살전5:14).
- (3) 그런데 바울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모습을 나타낸 이유는 자신도 그들과 같이 한때는 '약한 자'였으며 늘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임을 보여 주어, 그들에게 동류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함이었다.
- (4)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받는 자와 같은 처지에 서지 않으면 그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이질감을 주어 배척을 당하기까지 한다.
- (5)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요10:14).

16. ㉠ 바울의 모든 행위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23절)

- ㉠ (1)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있었다. 따라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행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복음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다.
- (2) 즉 그는 자신을 '복음과 함께 하는 동역자'의 위치에 두기 보다는 일반 신도나 비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은혜와 사랑과 확신을 체험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평범한 성도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 (3) 따라서 그는 복음의 진리에 확고히 서 있지도 않으면서 교만하여 우상의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고린도 교회 내의 거만한 자들과는 달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 나가는 자였다(참조, 빌2:12).
- (4) 그러므로 바울의 내면에는 결코 자신의 주장이 필요 없으며 단지 복음에 대한 순종과 복음을 위해 일하겠다는 열정만이 있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자고(自高)하지 않고 겸손히 진리를 향할 때 또한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날로 우리의 삶을 진리에 가깝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참조, 겔36:27).

17. ㉠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할 때 상이 보장되는가? (24절)

- ㉠ (1)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일을 다 이룬 것은 아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선수들이 일등을 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것과 같이 복음을 위해 노력할 때에 상을 얻을 수 있다.

- (2) 본질의 예화는 당시 고린도에서 3년마다 성대하게 열리던 이스무스(Isthmus) 경기를 비유한 것이다. 이 대회에는 주로 필드(field), 격기, 경마 등이 많은 관중들 앞에서 진행되었다.
- (3) 한편 바울은 이 같은 경기를 연상하며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상을 얻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자에게만 상이 주어짐을 강조하였다.
- (4)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 행실이나 인격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못한 자들이 많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뭔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증명될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평안한 삶이 약속되는 것이다(참조, 요일2:27).
- (5) 사실 신앙인의 경주란, 말씀을 얼마나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느냐,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 경주의 목적지와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히12:12).

#### 18. ㉠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신은 어떤 것인가? (25절)

- ㉠ (1) 그것은 이기기 위해 자신의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는 운동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정신이다.
- (2) 본질은 당시 운동 선수들이, 나뭇잎으로 만들어 쉽게 썩을 수밖에 없는 면류관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활을 절제하며 훈련에 열심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딤후4:8)을 위해서 조금도 열심을 내지 않는 데 대한 지적의 말이다.
- (3) 이것은 첫째, 진리의 복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이며 둘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 (4) 즉 그들은 미구(未久)에 있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로운 사건들에 관한 기대가 없이 단지 힘없고 나약한 상태로 현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맥빠진 삶을 살아갔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복음'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열정'이라 하겠다(참조, 행15:7;엡6:15;빌1:16).

#### 19. ㉠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그것은 남에게 복음을 열심으로 전파한 후에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그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뛰는 달리기 선수와 같이, 상대를 정확하게 때리는 권투 선수와 같이 신앙 활동의 목적이 분명하였다.
- (3) 즉 바울은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치고'(헬, 휘포피아조, 눈에 멍이 들게 한다는 뜻) '복종하게'(헬, 둘라고고, 노예로 만든다는 뜻) 하였다. 즉 그는 영육간의 긴장과 계속적인 신앙 경주를 위해서 자신을 말씀에 철저히 복종시키고 죄악의 경향성을 짓밟는 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이다.
- (4) 한편 '버림이 될까'라는 말은 자신이 섬기는 예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면류관을 잃을까 하는 걱정을 가리킨다. 즉 이것은 구원 문제가 아니라 상급에 대한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이 그저 목표 없이 떠도는 삶이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임을 알았다. 또한 그는 자신을 알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갔다.
- (6) 본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언급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접했다고는 하지만 마치 정처 없이 떠도는 수초(水草)와 같이 헤매는 생활을 하고 있기

-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 (7) 바울의 교훈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이 처한 실존적(實存的) 위치와 역사적 위치를 깨달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다(참조, 10:12).

## 연구자료

### 그리스,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

본장에서 뿐 아니라(24-26절) 바울 서신 및 기타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각종 운동 경기를 배경으로 한 신앙적 교훈이 발견된다(빌 1:27; 딤후전 6:12; 딤후후 2:5; 히 12:1). 그러므로 본고는 이 같은 교훈을 좀더 적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해졌던 각종 운동 경기들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 1. 육상

육상 경기는 길이 약 185m나 되는 트랙(track)에서 거행되었다. 결승점은 대개 경기장 입구의 반대편 끝 부분에 세워진 사각 기둥에 의해 표시되었는데 경기자들은 이 푯대를 보고서 결승점을 향해 내달렸다. '푯대를 향하여...쫓아가노라'(빌 3:14)는 말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육상 경기에 대한 언급은 24절; 딤후후 4:7; 히 12:1 등에 나온다.

#### 2. 복싱

이에 대한 언급은 '내가...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26절)라는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쇠로 된 장갑인 케스투스(cestus)를 끼고서 시합을 하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시합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 3. 레슬링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대단한 인기를 모았던 경기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레슬링이다. 바울은 엡 6:12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씨름'(헬, 팔레)이 곧 레슬링이다. 오늘날 그레코 로마형(Greco-Roman style)으로 불리우는 레슬링 스타일이 곧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해지던 경기 방식이다.

#### 4. 맹수와의 싸움

로마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이다. 이 경기에 동원되는 자는 주로 죄수들이었는데 그들은 맹수와의 사투(死鬪) 끝에 살아 남을 경우 죄를 사면받을 수 있었다. 한편 로마의 박해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같은 경기의 희생물로 순교당하였다. 이 경기에 대한 언급은 15:3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제 10 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단락구분 1-5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성례식의 전형(典型) / 6-13 과신(過信)의 위험 / 14-22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 23-30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하라 / 31-33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1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한 것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 저희 중에 어떤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8 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9 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 저희 중에 어떤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2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 나는 지혜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나

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8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나

19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20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22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5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6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 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밧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29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 1. ㉠ 본장에서 강조된 바울의 교훈은 무엇인가?

- ㉠ (1) 8장에서 언급되었던 우상의 제물에 대한 교훈이 본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8-10장은 우상의 제물을 아무 거리낌없이 먹으면서 그것이 신앙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교훈이다.
- (2)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본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보다도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에게 더 큰 비중을 두어 교훈하고 있다. 이는 믿음이 강하다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보다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2절).
- (3) 또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기독교의 세례 의식과 성만찬을 통해 자신들의 우상 숭배 행위가 변호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권리도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28절).
- (5)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도 제사를 지내는 것과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한데, 교회는 공동 보조를 맞추어서 이에 대한 교회의 지표를 확고하게 설정해야 일반 성도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 2. ㉠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 2절)

- ㉠ (1)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비유하였다.
- (2) 이처럼 설교의 예화를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초대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참조, 히3,4,11장).
- (3) 그런데 여기서 '구름 아래 있다' 함은 '구름 기둥'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사실을 가리킨다(출13:21;14:19).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한 것이다(참조, 출14:22).
- (4)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귀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비유될 수가 있다. 즉 구름과 바다는 구원의 도구로써 그리스도인의 '물세례'를 상징한다(참조, 롬6:3).
- (5)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의 연합을 이룬 상태를 의미하며 모세의 지도력 아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참조, 롬5:18).
- (6) 이와 같이 모세를 중심한 율법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출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깨닫고 나 중심의 사고와 관점으로부터 탈피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 3. ㉠ '신령한 식물과 음료와 반식'이란 무엇인가? (3, 4절)

- ㉠ (1) 여기서 '신령한 식물' 곧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가리키며(출16:4,14-18), '신령한 음료'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풀어 주기 위해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나온 '물'을 가리킨다(출17:6;민20:7-11). 그런데 여기서 음식과 물을 각각 '신령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 자체의 특질을 묘사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과 그것들이 지닌 상징적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식물과 음료 됨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또한 바울은 물이 나온 ‘반석’을 그리스도로 비유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할 때 받았던 모든 축복의 원천이었다고 이해하였다.
- (3)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언급 속에는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에 대한 암시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의 ‘반석’이 출애굽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믿고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 (4) 여하튼 바울은 구약 시대에서나 신약 시대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며 물이심을 강조하였다(참조, 요6:31,32). 그렇기에 구약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였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5) 한편 배고픔과 갈증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음식과 물이었다. 이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요7:37-39).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도 이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영적인 영양 실조자)이 많음을 간과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4. ㉠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1)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즐겨 행했기 때문이다.

- (2) 본절에 제시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면서 신령한 음식인 만나보다는 애굽의 고기를 더 좋아하는 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형벌을 받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민11:4).
- (3)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참조, 민26:65).
- (4)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든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선한 뜻을 이스라엘 위에 베푸셨다 할지라도 대다수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성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때에는 멸망받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 (5) 즉 ‘성찬’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 자체로 구원이 약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린도 교인 중 믿음이 강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자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준다.
- (6) 이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며, 신앙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 혼란을 가져 오며 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든 예식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 생활을 완성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의 목표를 예식 참여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두어야 하겠다(5절).

5. ㉠ 구약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금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7, 8절)

㉠ (1) 바울은 출32:6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축제를 인용하여 당시 고린도 지역에 성행하고 있던 우상 숭배와 간음죄를 금하고 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러 간 지도자 모세가 돌아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즐거움으로써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는 불충을 저질렀다.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또 하나의 범죄는 ‘간음’이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날 때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유혹을 받아 바알브를 우상을 경배하는 동시에 그곳 여인들과 음란한 교제를 나누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징벌로 염병이 돌게 하셨으며 그 일로 2만 3천 명이나 죽음을 당해야만 했다(참조, 민25:1-9). 한편 그 당시 죽은 사람 수자가 민25:9의 2만 4천 명과 본절의 2만 3천 명과는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민25:9 내용이 환난의 전기간(이틀) 동안의 희생자를 언급한 데 반해 본절에서는 당일 하루만 계산한 것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의 고린도 지역도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하던 도시로 이름이 높았다(참조, 서론 ㉑ 10).
- (4) 그러므로 바울은 본절의 내용을 통하여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하나님께 큰 죄악임을 알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
- (5) 인간은 항상 편하고, 보기 좋고, 즐거운 것을 찾아다니지만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허무와 고통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참조, 전2:1-23).

6. 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가? (9, 10절)

- ㉑ (1) 여기서 '시험하다'(헬, 페이라조)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하여 얼마나 참으시나를 보려는 인간의 악한 생각을 가리키는 동사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끝없는 보호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음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한 죄로 불뱀에 물려 죽는 형벌을 당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다(민21:5,6).
- (3) 즉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게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억제할 수 없는 원망은 결국 파멸과 죽음을 초래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민14:2,36;16:11,41).
- (4) 이처럼 바울은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고린도 교인들이 멸망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사랑을 시험하지 말고 또한 원망과 불평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교훈이다(참조, 잠19:3).
- (5)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설정해 두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창출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만들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7. ㉑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11, 12절)

- ㉑ (1) 바울은 이 사건들을 기록한 목적이 말세를 만난 당시 사람들을 경계(警戒)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말세'(헬, 타테레 톤 아이오논)란 '세대들의 끝'이란 의미로서 어떤 특정한 시기의 마지막 때라기 보다는 세상의 끝날,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때를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이 교훈은 어느 시대에나 적용되는 것으로 바울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다.
- (4)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였다(참조, 겔12:22).
- (5) 이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 (6) 이에 대해 바울은 교만했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실(5,8절)을 지적하면서 믿음 가운

데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

- (7) 오늘날에도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많다. 즉 자신의 행위가 옳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 (8)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신의 욕망이 선을 가장하여 밖으로 표출된 데 불과하며 하나님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논리와 자기 신뢰에 빠진 자들이 세상에 끼치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다(참조, 마15:14).
- (9)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겠다(참조, 시 18:27).

8. **㉠**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치 않으시고 또한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 (2) 여기에 나오는 '시험'(헬, 페이라스모스)이란 사단이 성도를 실족시키려고 미혹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육의 성숙을 얻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연단이다. 그러므로 이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성숙이라는 결실을 얻게 된다.
- (3) 이러한 시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치 않으시며 또한 직면한 시험을 견뎌 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미쁘신 분이시다.
- (4)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길 능력도 아울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다.
- (5) 따라서 우리 중에 이러한 시험에 직면해 있는 성도가 있다면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고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소유하여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6) 또한 우리가 성숙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의 판가름도 오직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닦쳤다고 실의에 빠지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참조, 약1:2,3,12).

9. **㉠** 본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그것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이다. 본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충고의 핵심은 바로 이교도의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우상 축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 (2)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일로서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것 못지 않는 최악이며 자신을 우상의 종으로 내어 주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이교의 사상으로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그가 말하는 강조점을 깨닫고 우상과 그 제물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4) 이 말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즉 오늘날 권세 잡은 자, 능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돈이 많은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진정 권세 있고, 능력 있으며, 지혜로운 자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 (5)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하는 것과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을 것이다(참조, 요9:41). 더우기 자신이 지혜가 있다는 생각으로 진리마저도 무시해 버리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10. **㉠** 바울이 말한 '피와 떡에 참여함'이란 무슨 뜻인가? (16-18절)

- Ⓐ (1) 바울은 먼저 '성만찬'에서 마시는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은 '성만찬'의 성격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 (2) 즉 바울이 '성만찬'에서 마시는 '잔'에 '축복의 잔'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교제의 성례를 세우셨던 잔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바울은 그 성례와 연관지어 '축복의 잔'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참조, 요6:56).
- (4) 여기서 '참여'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 '잔'을 바르게 받는 사람들은 곧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사용되었다.
- (5)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격과 삶을 기념하며 또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11:24-26).

11. ⓐ 바울이 본장에서 '성만찬'의 원래 순서와는 달리 '떡'보다 '잔'을 먼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16-18절)

- Ⓐ (1) 그것은 바울이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일 것이다.
- (2) 그에 반해 바울은 17절에서 '떡'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떡'으로써 예수와 성도, 성도와 성도 상호간의 단일성에 대한 상징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 (3) 즉 많은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데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이며, 한 몸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4)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 됨의 예로서 유대인들의 제사를 들고 있다. 즉 유대인들은 제물을 바친 자와 제사장이 제사 후에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했다(참조, 레7:15; 신12:18). 이렇게 제사 제물을 먹는 것은 제사의 한 과정이며, 하나님과 하나 됨을 상징하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됨이라는 제사의 정신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단지 형식에 치우쳤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 대해 '제단(형식주의를 비꼬아 한 말)에 참여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 (5) 따라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은 모든 면에서 분리되어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12:12).

12. ⓐ 바울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 했는가? (19,20절)

- Ⓐ (1) 그것은 곧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다.
- (2) 주의 만찬을 통해 주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접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우상 숭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3) 여기서 바울은 우상 숭배가 곧 귀신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우치고 있다. 비록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지만 귀신이 그 우상을 이용하여 제사드리는 자들을 얽매어 놓는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 (4) 이것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가 주와 하나가 되듯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곧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마음을 내주는 일없이 악한 일에 참여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조적인 악이 횡행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악을 적극적으로 배척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악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즉 침묵은 악을 묵인하는 일이며 끝내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5:22).

13.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론적으로 못박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도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였다.
- (2) 여기서 바울은 그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코 거룩한 교제와 더불어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3)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노역롭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신앙에 대해 무지한 자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신앙 교육은 성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하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 성장과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다양한 신앙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참조, 행8:26-40).

14. **㉠ 바울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고 말했는가? (23, 24절)**

- ㉠** (1) 성도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자유가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했다.
- (2) 본절의 논의는 바울이 이미 6:12에서 언급한 내용의 반복이지만 본장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자유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자유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3) 즉 바울은 6장에서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의 자유가 오히려 자신을 예측하는 경우를 언급한 데 반해 본절에서는 교회의 덕을 강조하고 있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사함으로써가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참조, 롬14:19;15:2).
- (4)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13:5에서 언급하게 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귀절을 미리 보게 된다.
- (5)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곧 ‘자유의 한계’와 ‘타인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절제’임을 알 수 있다.
- (6) 즉 인간에게 귀중한 자유가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며 그러한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참으로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일1:7).

15. **㉠ ‘시장에서 파는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5, 26절)**

- ㉠** (1) 당시 로마와 소(小)아시아 지방에서는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상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음식들은 일단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다.
- (2) 즉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은 신전(神殿)에 바쳐졌으며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예배자들에게 제공되어졌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보통 자신들이 처분하지 못할 제물은 일반인들에게 판매하였다.
- (3) 따라서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고기들이) 제물로 쓰여졌는지 아닌지를 가리키란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일로 인해 굶이 양심에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 (4) 즉 이 세상의 만물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참조, 시24:1)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했다.
- (5) 우리 주위에서도 이 같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설혹 어떤 음식이 굶이나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참조, 마15:11).

16. **㉠ 바울은 어떤 경우에 우상의 제물을 금하였는가? (27, 28절)**

- ㉠** (1) 만일 불신자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지만 그 음식이 ‘제물’이고 주인이 그 사실을

가르쳐 준다면, 성도는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한다.

- (2) 즉 음식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을 때와 그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었을 때는 상관없이 없으나 만일 손님 중 누가(아마도 동일한 신앙인일 것이다) 그 음식이 제물임을 지적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아야 한다.
- (3) 만일 그러한 말을 듣고도 그 음식을 먹는다면 그것이 제물임을 가르쳐 준 사람(약한 그리스도인)은 그 일로 인해 실족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제물을 먹은 자에게 있다. 즉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보고 우상과 교류해도 괜찮을 것이 아닌가 또는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하는 등의 오해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 보고 있는 이웃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우리를 헐뜯으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를 본받으려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에게 책을 잡히거나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행실을 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참조, 빌2:15;3:6).

17. **Q** 양심이 강한 자의 자유가 절제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9, 30절)

- A** (1) 양심이 강한 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왜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음식 때문에 비난받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 (2)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다. 더우기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한 행동이라면 믿음이 약한 형제의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 (3) 즉 바울은 자신의 양심이 자제를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나의 권리와 자유를 잃게 된다고 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롬14:21).

18. **Q**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무엇인가? (31절)

- A** (1) 바울은 본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 (2) 즉 바울은 성도들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만을 생각하든 아니면 타인을 위하든 그리고 모두를 위하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뱀전4:11).
- (3) 이처럼 성도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경륜이 드러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하는데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우리'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 (4)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하였던 '타인의 유익'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참조, 시133:1-3).
- (5) 이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웃에 대한 따뜻한 배려도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와 불평이 많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6:33).

19. **Q** 바울이 본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32, 33절)

- Ⓐ (1) 바울은 그들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타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2)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울이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먼저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참조, 갈1:10).
- (3) 그런데 바울은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따라 살면 결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즉 그는 자신의 중심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참조, 갈2:20).
- (4)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 대신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을 발견하는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복음을 위한 자신감과 결코 교만이 아닌 성숙에서 빚어진 신앙 인격을 엿볼 수 있다.
- (5)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은 물론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힘썼다는 말과 더불어 참된 신앙인의 전형(典型)이 바로 나라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참조, 마10:8;16:25;엡6:18;히6:10).

### 화보자료

반석에서 물을 내는 모세.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려 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이 마시고 있는 이 그림은 민 20:11을 소재로 한 것이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던 것은 하나의 예표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오늘날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참조, 요 4:14;7:38)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본장에서 이 사실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4절)고 이야기하였다.

## 제 11 장 올바른 공적 예배와 성찬

단락구분 1-2 사도의 유전을 지키라 / 3-16 여자들은 예배시에 수건을 머리에 써라 / 17-19 편당(偏黨)을 지적하다 / 20-22 무질서한 주의 만찬을 꾸짖다 / 23-26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라 / 27-34 성찬식의 법도를 재인식시키다

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시라

4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6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10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11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부터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나

14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고니라

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19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이는 시장하고 어떤이는 취함이라

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잠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임 때에 서로 기다리라

34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나 집에서 먹으라

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 1. ㉠ 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주제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16절에서는 여자들이 예배시에 지켜야 할 태도 중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으며 둘째, 17-34절에서는 주의 성만찬이 그 주제가 되고 있다.
- (2) 첫번째 주제하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여자들이 예배시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자들은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3) 당시 헬라와 근동 지방의 여인들은 공적인 모임에서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소위 '야쉬막'이라는 수건을 썼는데 이는 남자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며 자신은 남자의 권위와 보호 아래 놓인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이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은 창기(娼妓)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 수건은 여자의 정숙과 순결을 나타내는 물건이었다. 즉 여인이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은 자기의 남편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남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라고밖에 볼 수 없었다.
- (4)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진리 가운데서 교회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의 사회 배경 속에서 교회가 '야쉬막'을 제거할 정도로 문화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물론 이것은 '세속'과 '성'(聖)의 타협이 아니라 세속을 개혁시키나가기 위한 '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 방법이다.
- (5) 한편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의 회식이 잦았는데 이를 '에라노스'라고 불렀으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아가페' 곧 애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제를 위한 식사를 즐겼다.
- (6) 이 '애찬'은 저마다 가져올 수 있는 양만큼의 음식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함께 즐기는 일종의 회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의 친교를 돕는 일면도 있었으나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어 빈부의 격차만 드러내는 폐해를 불러일으켰다.
- (7) 따라서 바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최후의 만찬'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 같은 악습을 없애길 명했다.
- (8) 이와 같이 교회에서 신분과 조건으로 인해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하나의 유기체이기에 그 어떤 인간적 조건으로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 율법의 성취라 할 수 있다(참조, 요13:34,35; 롬15:5-7).

## 2. ㉠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를 본으로 제시했는가? (1절)

- ㉠ (1)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이 그들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명령했다.
- (2)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곧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였다(참조, 갈2:20). 그래서 삶에 구체적인 모범을 제시받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매일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던 그 영광과 체험을 토대로 성도들 향하여 자신이 모범이 됨을 제시하였다.
- (3) 그런데 바울의 이 같은 표현은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악인들의 소치처럼 교만한 권면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담대히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10:33).
- (4) 더우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목양하는 자로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자만을 꾸짖기 전에 그가 이렇게까지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자신감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 (5) 이처럼 성도는 도덕과 관습 그리고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의 삶의 형태, 즉 변화된 삶의 형태를 이웃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강압에 의하거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 밴 자연스런 말과 행동이 타인을 감화시킬 때 그 성도는 참으로 살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6) 특별히 요즈음처럼 진리가 무시되고 종교계가 혼탁하여 순진한 성도들이 미혹받기 쉬운 때에 이렇게 살아 있는 성도들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도 바울과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참조, 빌 4:13).

### 3. **㉠** 바울이 본장 서두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칭찬의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바울은 상대방에 대한 경고와 징책의 말을 하기에 앞서 우선 칭찬의 말을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에 깊은 상처 없이 자신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장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였다.
- (2) 또한 바울은 새로운 권면에 앞서 자신이 그들에게 '유전'을 전하여 준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두는 의미에서 이 말을 시작하였다.
  - (3) 여기서 '유전'(헬, 파라도시스)이란 초대 교회 교육의 중요한 한 형태였던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가리킨다.
  - (4) 그 가르침에는 종교 생활 전반에 걸친 관례와 규범 또는 중요한 교리들이 있었으며 이것들은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리스도 복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유전'에 얽매는 것은 복음의 빛을 가릴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두고 또한 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중요시하여야 했다.
  - (5) 한편 그 '유전'은 바울 자신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교훈이 아니라 그가 선배 신앙인들로부터 전해 받은 것으로서 바울이 이 '유전'을 자신이 가는 곳마다 전하여 주었던 것이다(4:17;7:17).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유전'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바울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다.
  - (6) 여하튼 이러한 바울의 사역의 모습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그들도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무지와 고통 속에 사는 이웃에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일깨운다(참조, 막 16:15).

### 4. **㉠**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항을 알기를 바랐는가? (3절)

- ㉠** (1) 그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
- (2) 여기서 '머리'는 권위를 나타내며 또한 순종의 대상을 뜻한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상은 창3:16의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창조 질서에 근거한다.
  - (3) 바울은 이러한 질서를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폐기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우기 '몸(교회)의 머리'(엡1:22;4:15;5:23;골1:18)가 되시는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질서를 따르니만큼(3:23;15:28) 남자에게서 생겨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았다.
  - (4) 한편 여자와 남자 및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참조, 골1:15-18;2:10)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묘사되었다. 즉 '그리스도

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지 그 존재 자체의 우열을 따져서는 안 된다(참조, 빌2:8).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한 본체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결코 나뉠 수도 우열을 가릴 수도 없다. 본질에서 성부, 성자의 상관 관계를 다룬 것도 질서 또는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남녀의 관계를 명확히 해두기 위해서이다.

- (5) 오늘날 가정의 윤리가 파괴되고 남녀의 차별이 없어져 가는 이때에 바울이 제기한 이 논리가 과연 적용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을 무식한 소치로 돌리곤 한다. 그러나 결혼으로 맺어진 남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그 어떤 부정적인 논리도 허용될 수 없다. 즉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참조, 엡5:22-33)..
- (6) 물론 이러한 질서는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과 인정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확실한 것은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녀 관계는(창3:16) 지금도 존속하나 두 개체는 '하나'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인격체'라는 사실이다.

#### 5. **㉠** 바울은 사람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였는가? (4-7절)

- ㉠** (1)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욕되지만 여자가 쓰지 않음은 오히려 머리를 민 것과 같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2) 이 같은 가르침은 평상시 집안에서 생활할 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나 공적인 예배시를 뜻하는 말이다.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신이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식이다.
- (3) 그래서 공적인 모임에 임하는 남자가 자기 머리에 그 무엇을 덮는다는 것은 자신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 특별히 바울은 남자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는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image)대로 지음 받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직책을 부여 받았음을 뜻한다(참조, 창1:23-28). 그러므로 남자는 자신의 존재 의미가 곧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 (4) 반면에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한다는 의미로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만일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거든 머리를 깎거나 밀라고 했다.
- (5)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부정을 저지른 여자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잘랐으며(참조, 민5:18; 사7:20) 무가치한 자녀를 둔 어머니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러므로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미는 것은 대단한 수치를 나타내는 표시였다.
- (6) 다른 한 편으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써야만 했다. 즉 여자는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이므로 수건을 써야 했다. 왜냐하면 수건을 씌우므로 해서 자신의 정절과 순결을 드러내는 것이 되며 이것이 곧 남자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그 당시 수건을 쓰지 않은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었으며 그 부정한 여자의 남편은 사회적으로 수치를 면할 수가 없었다.
- (7) 그런데 여자가 수건을 착용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 미사 때에 여자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 통용되던 이방의 문화와 풍속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견해를 펼친 것이다. 즉 바울의 견해는 모든 문화권에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 (8) 바울이 이 같은 견해를 펼친 것은 복음이 전파된 한 나라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지 않을 때 신자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이것은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복음 자체가 손상받거나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선택적 교리이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절대적 교리는 아니다.
- (9) 이와 같이 과거의 관습들이 지역에 따라 용인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관습이 제정되기도 한다.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얻는 성도들은 이 같은 관습들이 인간의 자유와 행동을 억지로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습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유는 있어야 한다(참조, 딤후 2:1,2).

6. **㉠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8-13절)**

- ㉠** (1) 바울은 말하기를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으며,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을 뿐더러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말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근거로 한(참조, 창1:27,28;2:18-23) 주장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던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분방한 활동을 절제시키려 했던 것이다.
- (3) 먼저 그는 여자의 출생이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남녀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받은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 (4)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며 창조 질서의 참 뜻을 바로 깨달아 방만하게 행동하거나 공중 앞에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하며, 더우기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공식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다.
- (5) 그러나 이 모든 주장은 결코 남성 우위 사상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는 단순히 창조 질서에 근거한 남녀간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것이지 여자는 남자에게 굴종해야 하는 하급 존재라는 뜻은 아니다.
- (6)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격들이 동등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다(참조, 갈3:28;약2:5). 남자라고 해서 여자의 도움 없이 태어날 수 없으며 여자 역시 남자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남과 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이다.
- (7) 그러므로 인간적인 차별 의식을 떨쳐 버리고 창조 질서에 입각한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라 하겠다.

7. **㉠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권세 아래 있는 표(票)'를 여자들이 지녀야 한다고 명령했는가? (10절)**

- ㉠** (1) 바울은 천사들 때문에 여자들이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지녀야 한다고 했다.
- (2) 여기서 '천사들'이란 영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인간의 예배와 생활에 관여하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존재이다. 특히 이들은 성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참조, 시138:1;눅15:10;엡3:10;히12:22).
- (3) 한편 '권세'(헬, 엘수시아)란 여자의 머리 위에 어떤 질서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결국 본절에서 이 말을 한 것은 여자가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 인정의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게 된 것이다.
- (4)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에서 성도의 행동을 지켜 보고 있는 천사들을 외면하는 일이 되기도 한다(참조, 벰전1:12).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씌우므로 해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또한 하늘의 존재들에게 정당한 예우를 하게 되는 것이다.

- (5) 사실 여자는 자기의 머리 위에 이러한 권세의 표식을 해 두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씌우므로 어디를 가나 안전하고 존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헬라 지방에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되었을 뿐 아니라 모욕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었다.
- (6) 본절에서 바울의 이 같은 주장은 결국 교인들은 거리의 창녀들과는 달리 단정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 (7) 오늘날에도 여자들의 옷차림이 심하게 노출되어 그것이 멋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성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마음을 단정하게 가져서 항상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 덕을 세우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부로 표출되는 자세마저도 단정하게 해야 한다(참조, 롬16:19).

#### 8. ㉠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머리 길이로 무엇을 말하였는가? (14, 15절)

- ㉠ (1) 그는 남자의 머리가 긴 것은 본성(本性)이 욱되다고 가르치며, 여자의 긴 머리는 자기의 영광으로 그것은 곧 쓰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2)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남자의 머리가 짧은 것은 자연의 섭리 곧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분하시기 위한 표라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심연에 깔려 있는 본질적 욱구로서(참조, 롬2:14; 갈2:15; 4:8) 만약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남자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 (3) 한편 여자의 머리가 긴 것도 역시 머리에 쓰는 것을 대신하여 그 여자의 명예와 권위를 세워 주는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 (4) 그러나 예외적으로 '나실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표시로 일체 머리에 칼을 댈 수가 없었고(참조, 민6:5) 그 결과 그들의 머리는 장발을 이루었다. 한편 바울의 이 같은 논리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따른 권면이기는 하지만 1세기 헬라와 팔레스틴의 문화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풍습에 맞는 권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 (5) 이처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그 문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마저 포기하고 자신의 문화권 속에 뛰어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 9. ㉠ '변론(辯論) 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6절)

- ㉠ (1)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필로네이코스>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당시 변론을 좋아하던 사람들간에 논쟁은 끝이 없이 계속되어 논쟁을 위한 논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 (2) 따라서 바울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규례가 없다고 주장한 자신의 견해에 대해 분명히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의 반격이 있을 것으로 알고 더 이상 그 같은 자들과 변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사도적인 권위에 의해 교회의 분란을 막고자 하는 바울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 (3) 한편 '우리에게...이런 규례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란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이어지는 말인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이란 귀절을 통해 당시

초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초대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나 공식 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없다는 말이다.

- (4)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인들의 대화와 교회 지도자들의 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기 좋아하고 끝없는 변론을 추구하여 그로 인해 교회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평안을 위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은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참조, 13:5).

10. **㉠** 바울이 생각하는 성만찬과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던 성만찬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17-34절)

- ㉠** (1) 초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여 행해지던 '성찬'은 일반적으로 예배 순서와 병행되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다(참조, 행2:46).
- (2)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성찬'을 하나의 인간적인 잔치로만 생각하여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그 예식에 참석하였으며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자신만 배불리 먹어 참된 형제애를 깨뜨렸다.
- (3) 즉 그들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이 지니는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식사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동시에 가난한 형제에게 치욕적인 상처를 입혔다. 이 식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회생을 기념하며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스런 향연을 기대하는 뜻깊은 행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인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충족시키는 집회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 (4) 이에 바울은 성찬이 지닌 본래의 의미와 그 성찬을 통하여 얻어지는 종교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즉 그는,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기념하는 것(23-26절)임과 무의미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죄이며(27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 조심스러운 가운데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28,29절) 그리고 단순한 식사와 성찬을 확실히 구별하라는 것(33,34절)을 가르쳤다.
- (5) 사실 예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마지막 만찬을 하던 제자들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발까지 씻어 주시는 봉사를 스스럼없이 행하셨다(참조, 요 13:1-17).
- (6) 그런데 종교적인 행사를 빙자하여 교회 내에 빈부의 격차를 뚜렷이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악한 행습이 오늘 우리들이 소속된 교회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 아래 항상 주위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어야 한다(참조, 엡2:19-22).

11. **㉠** 고린도 교회 내의 '편당'(偏黨)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19절)

- ㉠** (1) 그것은 1:11-4:21에 언급된 '분파'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그러나 이러한 편당 의식은 중국에 가서 분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즉 이 부분에서 의미하는 '편당'은 '아가페 식사'를 통해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알력 때문에 일어난 '분파'를 말한다.
- (2) 즉 각자가 자신들의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먹는 '아가페 식사'에서 빈부의 차이에 따라 자연이 음식의 질이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 이는 분명 사랑과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폐해이다.
- (3) 또한 그 '아가페 식사'를 거룩한 성찬 또는 예배와 병행시켰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의 행위마저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 (4)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바울은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바울은 2절에서 칭찬한 바와는 달리 권위있는 강력한 명령으로

그들을 꾸짖었다.

- (5) 한편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소문을 통해 들었지만 전적으로 소문에 의해 행동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대강 민노니'란 말 곧 고린도 교회의 악습을 믿지 않으려 했으나 도저히 충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확실한 증거들에 의해서 말한다 라고 했다.
- (6) 가장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먹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인가. 이러한 분쟁은 어떤 변명으로도 변호될 수 없으며, 만물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단정지를 수밖에 없다.
- (7) 여하튼 교인들 상호간의 빈부 격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교인들의 일치를 위해서 교회 내에서는 교인들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로의 분위기를 맞춰 주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사회적 이질감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12:5).

12. **㉠** '편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19절)

- ㉠** (1) 바울의 이 말은 약간의 풍자를 띠고 있는데 교회 내에 편당을 짓는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그들 중에 누가 옳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 (2) 여기서 '옳은 사람'이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비교, 9:27). 또한 그 사람은 타인의 눈에 될 만큼 순결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 (3)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옳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존재는 참되다. 비록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부각된다'.
- (4) 그런데 이 말은 곧 교회 내의 분열은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참조, 3:13).
- (5)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러한 분열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으로 이런 아픔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마치 금이 뜨거운 불에서 연단받아 순수한 금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진실한 신자를 가려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 (6) 사람들 중에는 간혹 평소에 겸손하고 온유하던 사람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난폭해지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 (7)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이 같아야 하며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같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신앙인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동시에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될 것이다(참조, 4:1).

13. **㉠**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만찬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였는가? (20-22절)

- ㉠** (1) 그는 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결코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음을 단정적으로 말했다. 즉 그들이 즐긴 만찬은 자신들의 육신적 만족만을 위한 것이지 주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나눈 '주의 만찬'이 아니었던 것이다.
- (2) 여기서 '주의'로 번역된 헬라어 <퀴리아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주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만찬 행위는 결코 주께서 마련하신 성찬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바울이 이같이 단정한 근거는 초대 교회 당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베풀기 전에 각자가 준비한 음식으로 애찬을 즐기다가 연이어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 부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성도와 함께 나눌 생각은

않고 먼저 와서 자기 배만을 채우므로 자기들은 취하고 배부른 반면에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자는 마음과 육신의 허기를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 (4)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그들의 만찬을 결코 '성만찬'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모임, 즉 철저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모임이라고 규정지으면서 그로 인해 빛어지는 가난한 자들의 아픔과 수치 그리고 교회의 어쩔 수 없는 분열에 대해 크게 꾸짖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먹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망각하고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행사는 교회 안에서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교회는 먹고 마시며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곳이라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된 형제들이 예배드리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14. ㉠ 바울은 누구로부터 '성만찬'에 대한 전승을 받았다고 했는가? (23절)

- ㉠ (1) 바울은 분명히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그것을 '주께로부터'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 (2) 혹자는(Hodge, Craig) 바울이 예수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더불어 본질에 사용된 전치사가 직접적인 전달을 의미하는 것(헬, 파라)이라기 보다는 간접적인 전달(헬, 아포)을 뜻하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또는 어떤 한 개인으로부터 전해 받은 전승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한다.
- (3)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도된 것 뿐 아니라(참조, 갈1:1) 자신이 지닌 중요한 교리 모두가 순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임을 다른 서신서에서 밝히고 있다(참조, 갈1:12). 특히 간접적인 전달의 성격이 강한 전치사 <아포>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일 뿐이지 정말 간접적으로 전해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참조, 요일1:5).
- (4) 결국 바울은 이곳에서 '성찬'의 계시를 예수로부터 받았음을 확인시킴으로써 확실한 권위를 세울 수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진행 중인 타락한 만찬 행위를 꾸짖고 올바른 만찬의 규례를 세우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 (5) 그런데 오늘날 일부 교회 안에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고 성찬의 무용론까지 펼치는 일이 있다. 하지만 이 성찬 예식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회상하여 당신과의 참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처럼 주의 거룩한 성찬을 바로 인식하고 또한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15. ㉠ '주 잡히시던 밤'이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여기서 '잡히시던'(헬, 파레디도토)이란 아직 잡히시지는 않은 상태 곧 '예수를 잡으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던 때를 의미한다.
- (2) 이때를 복음서들(참조, 마26:26-29; 막14:22-25; 눅22:14-20)을 통해 알아보면 유월절 전날 곧 유대 종교력으로 1월 달인 니산 월 13일 저녁임을 알 수 있다(참조, 눅22장 ㉠ 11).
- (3) 한편 당신의 사랑하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와 결탁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음흉한 흉계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성만찬' 예식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 (4) 즉 예수께서 바로 죽음 직전에 당신의 온 생명과 열정을 다 바쳐 사랑했던 제자들과 지상에서의 최후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시는 그 장면은 '성찬'을 하나의 잔치나 사사로운 교제로 생각할 수 없게 만들었다.
- (5) 그러므로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워 가면서 그 밤을 밝혔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은 더욱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리스도의 만찬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16. **㉠**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과 유월절을 비교하라 (23-25절).

- ㉠** (1)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켜 왔던 축제이다(참조, 12:24-27).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셨다(참조, 5:7).
- (2) 그러므로 당신의 죽으심을 확정하며 그 죽음이 뜻하는 바를 알리셨던 성만찬과 유월절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하겠다. 즉 유월절 만찬은 예수의 성만찬을 예표한 것이다.
- (3) 더 자세한 내용은 눅22장 **㉠** 6-11을 참조하라.

17. **㉠** 성만찬 중에 나눈 떡과 잔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23-25절)

- ㉠** (1)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유월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랑의 최대 표시로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참조, 요일4:10).
- (2) 또한 예수께서는 유월절 성만찬 때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곧 당신의 희생임을 밝히셨다. 즉 그 '떡'은 찢기신 당신의 몸을, '잔'(포도주)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각각 의미한다고 말씀하셨다(참조, 마26:26-28).
- (3) 그런데 여기서 그 떡과 잔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것들이 각각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지 떡이 곧 예수의 살이며 잔이 곧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께서는 자신의 살을 벤다든지 피를 내어 제자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체설은 이런 면에서 잘못이다).
- (4) 한편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살과 피)을 희생시킴으로써(참조, 출24:8)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다(참조, 마26:8; 막14:24; 눅22:20). 즉 예수께서는 주의 십자가가 곧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영생(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새롭고 확실한 언약을 설정하셨던 것이다(참조, 요3:16; 6:39; 롬5:9-11; 8:35-39; 갈2:20).
- (5) 이 같은 언약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들은 구원과 사랑을 노래할 수 있고 또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를 위해 생(生)이 다하는 순간까지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후5:14). 그런데 사사로운 문제로 교회가 찢기고 상처받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의 살을 찢는 행위가 아닌가? 교인들간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파벌치함이 계속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교회는 병들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18. **㉠** 성도들이 '성만찬'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3-26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으며, 바울은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 즉 '성찬'은 예수의 희생적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성도들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임재를 경험해 왔다.
- (3)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분이 구속한 모든 인격들과 하나 되어 그분의 뜻을 받드는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4) 더우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호흡함과 동시에 그분께서 승리하심으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를 갖고 있다(참조, 롬19:7,8).
- (5)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마쳐서는 안 된다. 사실 그분의 죽으심 그 자체는 죄인을 구속하신다는 하나의 행동 언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그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분의 죽음을 선포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참조, 마28:19,20).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실 때까지 성찬의 순수성을 보존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 및 재림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마26:26-29).

19. ㉠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7, 28절)

- ㉠ (1)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는 먼저 자신을 살피야 한다.
- (2) 여기서 '합당치 않게'란 예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깨달음이 없고 회생과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열의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는 곧 18-22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편당적인 것과 마음의 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후13:5, 6).
- (3)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합당치 않게' 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 준 목적과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십자가 처형에 대해 관계했던 자들과 같은 죄를 짓는 결과를 초래한다.
- (4) 그러므로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 또는 그분의 회생과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핀 다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5) 기독교에 있어서 '성찬'은 성도들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한 행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복된 행위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행해질 때 각자는 최소한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20. ㉠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몸을 분별(分辨)치 않고 먹고 마시므로 어떠한 결과를 빚게 되었는가? (29, 30절)

- ㉠ (1)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먹고 마시는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았다.
- (2) 그런데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다'라는 말은 '성찬'을 다른 식사와 구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행위를 가리킨다.
- (3) 즉 그들은 형제애를 무너뜨리고(18절), 교회에 분당 의식을 조장했으며(19절), 심지어 형제를 실족하기까지 하면서(21절)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던 것이다.
- (4)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어리석은 결과만을 낳았다.
- (5) 이와 같이 영적 타락은 육체적인 질병을 유발시켰다. 바울은 이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 중 병들거나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엄숙한 '성찬'에 잘못 참석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참조, 행7:60; 벨후3:4).
- (6)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여 영(靈)에 질병이 생기면 자연 생활과 육체에 이상이 오게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난치 병에 걸리거나 죽음도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시급한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 ㉠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31, 32절)

- ㉠ (1)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로 깨닫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죄받지 않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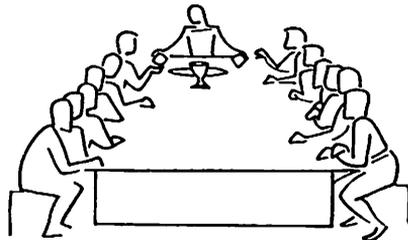
- (2)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주의 거룩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이나 기타 행사에 임하는 것은 곧 주께 징계(懲戒)를 받는 것으로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 (3) 즉 하나님께서 성도를 처벌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징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시키고 교육하시려는 데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태도를 회개하고 바로잡을 기회와 자극을 줌으로써 그들을 연단할(히12:5-13) 뿐 아니라 영원히 정죄되지 않게 하신다. 이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들의 특권이다(참조, 요17:16).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징계하시되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항상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올바른 가운데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후13:5).

22. **Q**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 결론적으로 어떻게 충고하였는가? (33, 34절)

- A** (1) 그들이 먹으러 모일 때는 먼저 먹는 자가 없이 서로 기다려야 하며 만일 시장한 자가 있거든 집에서 먹어 그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찬에 관해 본장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말하겠노라고 하였다.
- (2) 이 같은 훈계의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눔'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들 중에 부한 자들은 자신이 먹을 것만을 챙겨 모임에 참석하였고 또 그것을 가난한 교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먹었던 것이다(21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이기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배만을 위하지 말고 '기다려' 함께 식사할 것을 권하였다.
- (3)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교회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은 생각치 않고 단지 배불리 먹는 것에만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애찬'이라면 차라리 그것을 집에서 하고 주의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를 거룩히 구별하도록 지시했다.
- (4) 이처럼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교제가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교인 상호간의 분란만 조성한다면 그 교제는 무의미하다.
- (5) 한편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다양하게 행해지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교회가 하나되는 데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성도 상호간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어떤 행사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본장의 요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7절).



## 제 12장 다양한 은사와 그 목적

단락구분 1-3 성령께서만이 신령한 일을 가능케 한다 / 4-11 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다 / 12-17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 18-27 지체들의 유동성과 일치성 / 28-31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각각의 직분

1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2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 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4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 뿐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

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 만일 은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은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2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세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 Q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본서신에서는 어떤 구성으로 논의되어 있는가?

- A** (1) 12-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영적 은사들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고, 하나님의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기록되었다.
- (2)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이 흥분과 망상에 빠져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성을 느꼈다.
- (3) 바울은 성령의 궁극적인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며, 만약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1-4절).
- (4) 한편 바울은 그 은사들 가운데는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하였다(2-11절).
- (5) 그러나 바울은 각 은사들이 사용되는 위치와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성도들의 심령에 자리잡아야 할 '사랑'임을 강조하였다(31절;13:13).
- (6) 마지막으로 바울은 공중 예배에 있어서 은사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은사 사용은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절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4:39,40).

## 2. **Q** 본장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라.

- A** (1) 성령께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특정 집단에게만 당신의 은사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의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셨다.
- (2) 그러므로 설혹 고린도 교인 중 어느 누가 자신이 얻은 은사가 제일이라고 해서 안 되며 그 모든 것은 단지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은사 중 하나임을 알아야 했다(4-11절).
- (3)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과 또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은사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유용하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 각자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의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9:24).
- (5)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함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팽배해 있던 우월 의식과 분파주의를 몰아내고 진정한 화합과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려 했던 것이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결국 인간의 교만과 불성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 3. **Q** '신령한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절)

- A** (1)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신령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뉴마티콘>이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가리키는지 혹은 '신령한 것'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본질의 문맥상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이 '신령한 은사'는 믿음과 사랑과 지식과 기독교의 덕과도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의 본질적 산물이다.
- (4) 그리고 이 '은사'의 성격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자연적인 재능과 성품을 통해 나타나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문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두번째의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킨다.
- (5) 그러나 오늘날 두번째 성격의 '은사'는 미신으로 간주되거나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단자들의 사기 행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내에서 성경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신령한 것이라는 명목하에 능력 경연 대회를 하는 듯한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폐해(弊害)이다.

- (6) 한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각인에게 주어진 '신령한 은사'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고 그들의 질문에 답장을 보냈다(참조, 7:1;8:1). 이것은 권위로만의 목회자가 아니라 사랑과 끝없는 관심을 통한 참된 목회를 회구하는 바울의 자상한 배려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의 필요와 안타까움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 (7) 이 같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우리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은사'에 대한 과도한 열정이 오히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에게까지도 절제를 잃게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이 같은 '은사'에 대해 올바르게 깨우쳐 자신들은 물론 성도들도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7절).

4. **㉠**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와 연관지어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절)

- ㉠**(1) 그것은 예전에 그들이 복음을 접하기 전인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는 사실이다.
- (2) 즉 그들이 이전 삶 속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인간과 교통하시는 성령과 그분의 은사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병어리 우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참조, 시135:15).
- (3) 그러나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얻고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때마다 일마다 그들을 인도하시며 각 개인에게 '은사'를 허락하실 것이다(참조, 마3:11;요14:17).
- (4) 이처럼 현재의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수치스럽고 고통에 찬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두 사하여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참조, 고후5:17).

5. **㉠**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3절)

- ㉠**(1)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성령과 함께 하는 자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여기서 '주'(헬, 퀴리오스)란 구약에서의 여호와 또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예수의 신성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다(참조, 행2:36).
- (2) 이런 관점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께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가능케 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바 있다(참조, 마16:16,17). 즉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요14:27).
- (3) 한편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7:21-23).
- (4)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모두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고백은 입술만의 고백으로서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5) 반면에 예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할 자'란 말의 원래 뜻은 '신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 멸망될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입으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된다(참조, 약2:23).
- (6)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예수를 저주하거나 그분께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 끝내는 멸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시급하게 성령의 내주(內住)

하심을 바라며 그분의 주권이 우리의 삶 전역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

6. **Q**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4-7절)

- A** (1) 그것은 유익되게 함이다. 여기서 '각 사람'에게라 함은 성령의 은사가 어떤 소수의 인물들만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따라서 이러한 은사들은 경쟁 의식이나 질투를 일으키는 데 악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거나 또한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함께 유익되게 사용되어야 한다.
- (3) 즉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은사'(헬, 카리스마)는 결코 개인의 영예와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4)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을 마치 자신들만이 소유한 듯이 자랑하며 분리를 조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소행은 '은사'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있는 데서 출발하였다.
- (5)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없음은 성령께서 그 모든 은사의 주체자가 되시며 또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엡4:12).
- (6)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와 더불어 모든 이에게 유익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또한 극단적인 이기주의에서 빚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7. **Q**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6절)

- A** (1) 그는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職任)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어우러져 하나의 일관된 일을 추진해 가시며 또한 다양한 은사가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근본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엡4:4-6).
- (3) 성도들이 받은 각각의 은사는 그 자체가 성령이 성도들의 삶에 거하심을 보여 주는 증거로서 그 다양한 은사가 가져다 주는 직임을 통하여 주(主)를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역할이다. 더우기 그 모든 은사와 직임을 가능케 하시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목적으로 조화시키는 분이 곧 성부 하나님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이 지닌 모든 은사와 그 활동은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는 성도 각자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한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5)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다양한 기질과 성격과 직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 (6) 더우기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임을 스스로 택하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공로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참조, 엡1:19; 골1:29).

8. **Q**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하라(8-11절).

- A** (1) '지혜'(헬, 소피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말한다. 또한 '지식'(헬, 그노시스)은 지혜

보다 실제적인 것으로 인간의 생활과 사건에 '지혜'를 실제로 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가지에 곁들여 '말씀'(헬, 로고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이 지닌 지혜와 지식을 밖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 (2) '믿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보다 강력한 신앙 곧 정신적인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무엇이 참이라는 지성적 신념만이 아니라 자신의 최선의 능력을 다할 신앙을 말한다.
- (3)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참조, 약5:17,18) 그러한 신뢰는 결국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나타낸다(참조, 마26:42).
- (4) '병 고침': 초대 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일이 보통이었다(참조, 약5:14). 또한 이러한 기적은 당시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했으며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役事)하시던 시대였기에 빈번히 일어났다. 이처럼 기적이란 머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근본 목적이 주의 말씀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개인은 결코 교만의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을 총망라한 치유 곧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은사를 가리킨다(참조, 행9:40;20:12).
- (5) 그리고 당시에도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는데 그들 모두는 귀신들린 자로 간주되었다. 교회에서 '능력 행하는 자'들은 이같이 귀신에 얽매어 사는 자들을 깨끗케 했으며 또한 병 고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이적들을 행하기도 했다(참조, 행5:1-10).
- (6) '예언'이란 보통 장차 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한다.
- (7) 즉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사람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책하거나 경고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권고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으며 인간들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자이다(참조, 14:3,24). 초대 교회 시대에는 이러한 자들을 사도 다음의 직분으로 취급할 정도로(선지자라 일컬음) 그 사역이 중요했다(참조, 28 절;엡4:11).
- (8) '영들 분별함': 이는 여러 가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참조, 요일4:1-3). 어느 말씀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혹은 마귀의 장난인지를 분별함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이는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참조, 고 후11:14).
- (9) '방언과 통역':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였고 그 주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참조, 행2:4-11). 그런데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도중 남이 알아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마저도 이해하기 힘든 말을 쏟아 놓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때 본인이 통역하거나 타인들이 통역하는 경우가 있었다(참조, 14:13).
- (10) 바울은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나 그 가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따라서 그는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게 금하였으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라고 명하였다(14:2,18,19). 즉 그것이 자신의 영에 유익이 될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었다. 한편 방언을 통역하는 일은 믿음이 약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돕는 사역으로서 교회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은사였다.
- (11) 이상에서 바울이 언급한 아홉 가지의 '은사'들은 모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상태이

거나, 성령께서 그 개인을 들어 사용코자 할 때 부어 주시는 것이다. 오늘날도 이 같은 능력을 소유한 자들은 그 은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는 데 사용해야 한다(참조, 롬12:3-13).

9. **㉠ 바울은 교회의 단일성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2절)**

- ㉠** (1)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고 했다.
- (2) 여기서 바울은 '하나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참조, 엡5:23; 골1:18).
- (3) 즉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상을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주장을 한다(참조, 갈2:20).
- (4)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때 성도들은 생동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성령에서 비롯된 것과 마찬가지로(11절) 사람이 각 지체로서의 다양성을 보이면서도 하나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단일성을 나타내는 것과 같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만일 성도들이 분열되고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격이 된다(참조, 갈3:28).

10. **㉠ 인종과 신분이 다른 자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에 의해서인가? (13절)**

- ㉠** (1) 그것은 그들이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됨에 의해서이다.
- (2) 즉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그리고 그의 몸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 같은 세례는 '성례전'을 의미하며 그 '성례전'에서 각기 다른 은사와 삶과 지위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다.
- (4)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난다는 뜻인 동시에 성령께서 이제부터 항상 내주해 계신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은 결국 성령께서 그 삶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된다.
- (5) 이 같은 '성례전'의 참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라는 순간에서 영원에 속하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가능케 해준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성도들은 영원에 속하게 되며 동시에 예수의 성(聖)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11. **㉠ 바울은 성도 각자가 지닌 다양성과 그에 대한 유용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4-21절)**

- ㉠** (1) 몸의 각 기관들이 하나의 몸을 이룸에 있어서 아무 쓸데 없이 보이는 어느 한 기관을 몸이 아니라고 하여 떼어 낼 수 없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하여 일을 할 수 없다.
- (2) 이것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들 각자의 기능과 능력이 합쳐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가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들을 배척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실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한다.
- (4) 은사가 각각 다른 다양성 가운데서 상호 협조와 보완을 통해 성도간의 부족을 채우고 연합하여 선을 이룸이 곧 다양성 가운데서의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롬8:28).
- (5)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것은 다양성이란 비정상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다양성이 무시되고 동질성과 획일성이 강요되는 사회나 집

단, 특히 교회는 다양성의 이점(利點)을 잃음은 물론 확일성이 가져오는 무리와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교회의 다양성은 '풍부한 하나'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연유한 것이다.

- (6) 그러므로 교회는 각자가 지닌 기능과 은사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또한 절제하여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12. ㉠ 교회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22-24절)

- ㉠ (1) 몸의 약한 곳이 오히려 요긴하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는 반면 아름다운 지체는 별로 가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보잘 것없이 보이는 성도들은 오히려 존중되어야 한다.
- (2) 사실 이 비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와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소외시키는 악습을 꾸짖는 말이다. 즉 '방언과 같은 특정한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의미이다.
- (3) 그러한 사람들은 방언과 같은 특정한 은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므로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교회는 더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약한 자는 교회 내에서 긴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더우기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게 생각되는 인격이라 하더라도 그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 그러므로 인간의 관점에서 누가 요긴하고 덜 요긴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큰 잘못이다.
- (4)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 중에 공공연하게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나 초신자들을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악행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곧 자신의 명예만을 위한 것인 양 착각하는 악습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13. ㉠ 바울은 교회가 분쟁을 떠나 서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25-27절)

- ㉠ (1) 그는 먼저 교회라는 한 유기체(有機體) 안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고 동락(同苦同樂)해야 하며 상호 보완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26절).
- (2) 만약 이러한 특성을 지닌 교회가 서로에게 무관심한다면 지극적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업신여긴다면 종국에 가서는 구성원 전체가 멸절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몸의 한 부분이 고통을 받으면 전체가 아픔을 느끼고, 몸의 한 기능이 영광을 받으면 그 전인격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하나됨'의 의식을 지니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12:15).
- (3)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구성원은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결코 분쟁이나 분리가 용납될 수 없다.
- (4)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동시에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각 구성원은 분리된 개체(個體)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항상 공감대(共感帶)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하나라고 하였다(참조, 엡1:23).
- (5) 그러므로 교회의 각 구성원은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전체를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항상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바를 추구하기 위해 동료 교인들과 같은 뜻을 품고 겸손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빌2:1-3).
- (6) 물론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음으로써만이 가능하다(참조, 엡5:2).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면 이웃과 교회의 유익은 최소화되고 만다.

14. ㉠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들을 대표화하라 (28-30절).

㉠

순서	직분	직능별 구분	설명	참조 귀절
1	사도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으로서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 전체의 성숙을 위해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사역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 전파자 전체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12제자와 바울만을 의미한다</li> <li>• 이들은 교회의 터로서 교회의 교리에 기초를 놓은 자이다</li> <li>• 더우기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몇몇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다</li> <li>• 이 사도직은 초대 교회 내에서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던 직분이지만 계승되지는 않았다</li> </ul>	롬16:7; 빌2:25; 눅6:13 행2:42; 엡2:20 행1:12 엡3:5; 4:11
2	선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령의 임시적인 도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일종의 하늘나라 대사들이었다</li> <li>• 이들은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li> <li>• 또한 영을 분별하여 교회를 건전하게 이끄는 데 힘쓰기도 했다</li> </ul>	엡4:11 행11:28; 21:10 14:29; 요일4:1-3
3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복음의 진수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다</li> <li>• 이 직분은 영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은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가르치는 자(사도, 선지자, 교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고 특정한 직분의 소유자로 한정짓는 용어이기도 하다</li> </ul>	딤후2:7; 약3:1 롬12:7
4	능력	교회내의 봉사적 기능을 수행했던 자들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이다</li> </ul>	행5:1-10 ;13:8-12
5	병고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육체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자이다</li> <li>• 이 은사는 교회 내에서 크게 부각될 수 없는 평범한 것이다</li> </ul>	약5:16
6	서로 돕는 것	교회내의 행정적 책임을 맡았던 사역자들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의 모든 활동과 기관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봉사하는 일을 맡은 자였다</li> <li>• 주로 구제와 병든 자들을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던 집사들의 사역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었다</li> </ul>	행6:1-3 ;20:35
7	다스리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배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키를 잡은 자라는 의미였다. 결국 이것은 교회</li> </ul>	살전5:12

			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교회 전체를 통괄하여 지도하던 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이들은 장로 또는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로 생각된다	행14:23 ;15:23; 20:17; 빌1:1
8	방 언	교회내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직업이다	•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일상 쓰는 말이 아닌 타 지역 또는 이성을 초월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는 유익이지만 이것이 남용될 때 은 공동체의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 이 은사를 받은 자는 대부분이 자신이 방언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통역을 필요로 했으나 그중에는 통역하는 은사와 더불어 받은 자도 있었다	14:28
9	통 역		• 방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성령의 은사이다. 방언을 할 때는 이 은사를 받은 자와 더불어 한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14:5,28

15. ㉠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란 무엇인가? (31절)

- ㉠ (1) 모두 사도가 될 수 없듯이 모두가 방언의 은사와 통역의 은사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의문형을 빌어 강조하였다.
- (2) 즉 모두가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없으며 각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람에게 알맞은 은사를 받게 되므로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해 자랑하거나 또는 경멸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 은사들은 받은 자들 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덕이 되도록 써야 한다. 더우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에 그 은사 자체는 완전하며 귀중한 것이다.
- (4) 이런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은사를 절대시하여 그것만을 얻고자 하는 열심은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고 은사를 주심은 어느 개인의 영광과 자랑을 위함은 절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의 사업을 풍성케 하기 위해 부여되었을 뿐이다(3:10;15:10).

16. ㉠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 부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했는가? (29,30절)

- ㉠ (1) '더욱 큰 은사'란 말은 문자적으로 '무엇보다 훌륭한 은사'를 의미한다. 즉 이는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기에 제일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힘을 지닌 은사를 가리킨다. 바울은 이를 '가장 좋은 길'이라고 묘사했는데 그것은 곧 13장에 언급한 대로 '사랑'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은사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사랑은 다른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초자연적인 것이며 진정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된다(8:1).
- (3) 한편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은 재능과 성격에 따라 달리 주어지기도 하며 그에 따라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관점에서 은사들의 우열을 따지게 되어 오히려 교회 일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를 하나로 묶어 온전한 단일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14:12).

- (4)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혜와 부 그리고 명예와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얻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권세와 직능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그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참조, 갈5:22).

## 연구자료

###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 같은 용어들은 교회가 지니고 있는 성격들을 제각기 드러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을 살펴보는 것은 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교인들간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용어이다(27절; 엡 1:22, 23).

#### 2. 성령(하나님)의 전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였다(참조, 왕상 8:10, 11). 따라서 교회를 가리켜 '성령의 전'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인 개개인과 연합체로서의 교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심을 의미한다(3:16).

#### 3. 새(하늘의) 예루살렘

구약 시대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로 이해되어 왔다(히 12:22).

#### 4.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었다. 그러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유업을 상속하지 못하고 이제는 인종에 관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마다 그 유업을 차지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었다(마 21:43).

#### 5. 진리의 기둥과 터

이는 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보호하는 모임을 의미한다(딤후 3:15).

#### 6.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은 모두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자매들이다(갈 6:10).

#### 7. 그리스도의 신부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고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계 19:7).

# 제 13 장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

단락구분 1-3 사랑이 필요한 이유 / 4-7 사랑의 정의(定義) / 8-13 영원한 사랑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 1. ㉠ 바울이 본장에서 강조한 주제는 무엇인가?

- ㉠ (1) 전장(前章)에서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 말했지만 본장에서는 그 은사들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설 수 없으며 사랑을 통하여 그 모든 은사들의 가치가 돋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2) 그런데 바울이 말한 '사랑'의 대상이 본장에서는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사랑'이 남녀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에로스'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아닌 '아가페' 곧 신의 속성으로서의 사랑을 가리킬 뿐이다.
- (3) 그렇다면 그가 말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사랑이 투사되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즉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없으며 단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랑의 대상은 이웃이 분명하다.
- (4)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분하려 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로서 만족한다.

## 2. ㉠ 바울이 유독 '아가페의 사랑'을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 ㉠ (1) 당시 정욕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이성간의 사랑을 가리키는 '에로스'나 우애를 의미하는 '필리아'를 논함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 (2) 또한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의 화평한 일치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나 정도가 한정된 '에로스'나 '필리아'는 피할 수밖에 없었다.

- (3) 한편, '아가페'는 특정한 대상이나 그 한계가 없는 사랑으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질 태도와 사람과의 사이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리키는 사랑이다.
- (4) 따라서 '아가페'를 요청하는 본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은사로 인해 일어난 교회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 (5) 이처럼 인간의 정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곧 자기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앙, 정치, 민족, 이념 등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 3. Q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A (1)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사랑의 실천은 없고 방언을 하며 진리의 말을 한다는 사람들의 언행을 견주어서 한 말이다.
- (2) 사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늘의 비밀을 모두 알아서 천사의 말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참조, 고후12:4;계14:2,3).
- (3) 그러나 바울은 '사랑'을 동반하지 않는 방언은 무가치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행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택하는 사람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장하였다.
- (4) 즉 바울은 방언 그 자체는 의미 없는 뿡과리와 구리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기서 방언이 이해할 수 없고 무의미한 말이라는 것은 구리 소리와 뿡과리 소리처럼 그것이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경을 거스리는 날카롭고 탁한 소리라는 뜻이다.
- (5) 여기서 '구리'란 구리로 만든 여러 종류의 악기들을 의미하며, '뿡과리'란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요즈음의 심벌즈(cymbals) 정도의 악기로서 이 두 악기는 사람들의 호감을 끌만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음을 자아내는 악기로 봄이 타당하다.
- (6)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의 부흥'보다는 '사랑의 회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많은 의견이나 지침을 말하고 있으나 정작 교회 내에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인의 '사랑의 실천'은 눈에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은 사람들의 귀를 거슬리는 무의미한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다.
- (7) 이는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일깨워 줌과 동시에 오늘의 교회는 말만 많고 '사랑의 실천'에는 인색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 (8)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랑은 결코 말 뿐이 아니라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실천이 말에 앞설 때 교회는 성경이 요구하는 원래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 4. Q 예언과 믿음보다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A (1) 바울은 이를 사랑이라고 말했다.
- (2) 그런데 바울이 사랑과 비교한 '예언'이란 곧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진리를 말한다(12:10).
- (3) 이 예언은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게 하는데 여기서 '비밀'이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며 '지식'이란 인간의 지혜와 계시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혜 모두를 가리킨다(2:6-16;8:1-13).
- (4) 한편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서 바울이 제시한 신뢰의 폭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소유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리켰다.
- (5) 그러나 지식이 있는 자는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믿음이 투철한 자는 때로 그 믿음으로 인해 입장이 다른 자를 이단이라는 명목으로 박해하며, 세상의 순리를 어지

럽히는 행동을 나타내고, 자신의 신앙 노선과 달리 하는 자를 배척하는 행위를 보인다.

- (6) 그런데 이 같은 행위는 모두 진실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는 '예언'과 그로서 알 수 있는 '비밀과 지식'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도 모두 은사로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참조,엡3:17-19).

5. **㉠** 구제와 자기 희생보다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구제하며, 자신을 불사를 정도의 희생을 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 (2) 여기서 '구제하다'(헬, 프소미조)라는 말은 원래 먹을 음식을 공급해 준다는 뜻으로서 이는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여 이웃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한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는 것'은 어떤 최고의 이상에 대한 헌신과 어느 대상에 대한 희생의 표로서 자신을 태우는 고통스런 죽음을 가리킨다(참조, 단3:28).
- (3) 그러나 의무적이며 타인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구제와 자기 만족과 자랑을 위한 희생은 진정한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
- (4) 그러므로 구제와 희생도 사랑을 우선할 수 없으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순교조차도 가치가 없다. 결코 사랑이란 자랑이나 교만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4절).
- (5)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善行)은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선행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노력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을 배제한 그 어떤 구제와 희생도 삼가하자. 대신 사랑에서 출발한 행위만이 값진 일임을 명심하자.

6. **㉠**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 설명하라(4-13절).

- ㉠** (1) 바울이 언급한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기적인 것이나 계산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타적(利他的)인 사랑이다.
- (2) 이 '사랑'(헬, 아가페)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를 희생시키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신 것에서 그 사랑이 구체화되었다(참조, 요일4:10).
- (3)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것이다(참조, 요3:16).
- (4) 이처럼 바울이 언급한 이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대신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일컫는 것이다. 그 사랑의 특징은 '생명'을 창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5) 오늘 예수의 제자라 불리어지는 우리들도 바로 이러한 사랑 곧 자신을 내어 줌으로써 그 사랑의 대상에게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공급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16:14).

7. **㉠**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은 무엇인가?

- ㉠** (1)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는 어떤 상황에 대해 오래 참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즉 자신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 내는 일종의 인내와(참조, 약1:3) 남에게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어도 자제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딤후4:2).
- (2) 사랑은 온유하다. 이 '온유하다'라는 개념 안에는 먼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에게나 죄를 지은 자에게까지도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이것은 모든 인격과 상황을 선(善)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리킨다(참조, 롬3:12).
- (3)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는 자신을 절대시하여 타인을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타인의 성공에 부정적인 반응이거나 타인의 잘됨을 시기하는 마음인데 그로 인해 미움이

싹트고 미움은 더 큰 죄악을 낳게 된다(참조, 고후11:12;12:20). 그러나 사랑은 타인의 잘됨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가 낮은 데 있을 때 위로하고 잘되도록 격려할 수 있다.

- (4)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자랑'은 결국 자신의 못한 것을 가리려는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하다. 더우기 자랑하는 자는 그것으로 타인을 무시하며 우위에 서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자랑한다면 그는 이미 자랑할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와 마찬가지로이다. 즉 자랑은 훌륭한 일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만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의 부족과 무가치함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는 자이다(참조, 왕상9:6-14).
- (5)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진리와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는 자이며 또한 자신의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려는 자이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사실 긍휼을 입어야 할 자이다. 사랑을 알고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사랑의 힘으로 만족하기에 불안하지 않으며 부족함이 없다.
- (6) 이와 같이 투기하는 자,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화를 잘내는 자, 운유하지 못한 자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로서 이들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다. 예수의 사랑은 곧 이런 자들에게 베풀어지며 예수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사랑을 베풀 대상에는 반드시 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참조, 마9:13).

#### 8. **Q** 겸손한 사랑의 네 가지 특색은 무엇인가? (5절)

- A** (1) 사랑은 무례(無禮)히 행치 아니한다. 즉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보이지 않으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정을 이해하여 인자와 온정 그리고 친절로써 분쟁을 종식시킨다(참조, 마3:14).
- (2)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의무를 다하기 보다는 권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사랑은 받기 보다 주는 것이며 자신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참조, 요15:13).
- (3)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성을 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표시이며 패배를 자인하는 태도이다. 더우기 성내기를 잘하는 자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이다. 그러나 사랑을 아는 자는 성을 내며 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오히려 그 순간에 문제가 무엇인가를 살피며 조용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 (4)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속성과 더불어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악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주려 하지만 그 악은 결국 자신은 물론 모두를 파괴시킨다(참조, 전9:3).
- (5) 그러므로 사랑을 아는 자는 타인에게 친절하며,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 공존하는 삶이 최선의 삶을 아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으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 9. **Q** 사랑이 불의를 선택하지 않고 진리를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A** (1) 여기서 '진리'(헬, 알레테이아)는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불의'(헬, 아디키아)의 반대 개념이다. 따라서 그 뜻은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요이1:4; 요삼 1:24).
- (2) 사랑은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지 않고 타인과 온 공동체를 위하기 때문에 남을 해롭게 하는 '불의'의 편에 설 수 없고 '옳은 것'만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
- (3) 그러므로 사랑은 항상 불의한 일과 인격을 배척하고, 의로운 일과 인격만 더불어 동고

동락하기를 원한다.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살후2:12).

- (4) 이와 같이 참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격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도 지니게 된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평화와 진리에 입각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 (5) 오늘날 우리 세대에 불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 이 모든 현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진 인격들이 드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사랑은 모든 비진리를 몰아내며 모든 부패한 것들에서 자신을 지켜 주는 원동력이 된다.

10. **㉠** 바울은 사랑의 네 가지 적극적인 행위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7절)

- ㉠** (1) 먼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것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불변하는 사랑의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 (2) 이처럼 사랑을 아는 자는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주거나 죄를 지은 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괴로운 심정과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하루속히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주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참는 행위는 모든 것을 얻는(원수마저도) 행위라 할 수 있다(참조, 7:12; 살전3:15).
- (3) 다음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다.
- (4) 둘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선을 향한 능력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타인을 멸시하거나 의심하지 않으며 그에게 주어졌던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다. 이것이 곧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긍지를 갖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5)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사람들이 어떠한 경우이라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인간들을 향해 소망을 갖고 계시며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께서도 소망을 갖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가능성과 그의 앞길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어떠한 '나'도 절대로 그 사람보다 우월할 수 없다.
- (7) 마지막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견딘다'라는 뜻의 헬라어 <휘포메네이>에는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참고 끝내 승리하여 사태를 변화시킨다는 뜻이 있다.
- (8) 즉 세상이 험하고 우리의 앞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우리에게 전혀 바랄 만한 희망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이 세상 어디언가에 존재하는 희망을 바라보며 또한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스러운 현실과 싸워 나가는 것을 가리킨다.
- (9) 이와 같이 사랑의 적극적인 행위들은 결코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성도들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인 사고로 타인을 평가하며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자신을 격려해 나가야 한다(참조, 갈2:20).

11. **㉠** 사랑의 영원성과 대조시킨 것은 무엇인가? (8-10절)

- ㉠** (1) 그것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다.

- (2) 본절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다’라 함은 ‘실패하지 아니하다’, ‘과멸당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사랑은 ‘결코 종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사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요 본질이기에 결코 다함이 없다.
- (3) 그러나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변화하거나 일시적이다. 즉 예언, 방언, 지식들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가치를 지니나 영원하지는 못하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표현인 방언, 하나님에 대한 어렵פות한 지식과 이 세상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필요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또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해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으나 그때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얼굴을 맞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이 같은 대조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들을 중요시하면서도 서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밝히 깨우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즉 임시적인 은사와 영원한 사랑을 대조시킴으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였다.
- (7)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외부로 투사되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의 본질인 사랑의 회복을 중요시하며 사랑의 실천에 주력해야 한다.

12. **㉠** 바울은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의 대조를 어떠한 예로 설명하고 있는가? (9-11절)

- ㉠** (1)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예를 들고 있다.
- (2) 여기서 문자적 의미로 ‘깨닫는’이란 단어는 지적인 일반 사상을 가리키며 ‘생각하는’이란 단어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추리하는’의 뜻을 갖고 있다.
- (3) 따라서 본귀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고와 인지(認知)의 발달이 이루어짐을 부분적인 것을 아는 데서 온전한 것을 아는 상태로의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다.
- (4) 즉 우리가 모든 면에서 미숙하였을 때는 유치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으나 성장하여서는 예전에 알던 것들이 유치하게 보이고 자연히 성장된 상태의 생각과 말을 하게 된다.
- (5) 이는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과거에 우리가 알던 것들은 모두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음과 같다.
- (6)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종교적 체험 그리고 신에 대한 지식마저도 오히려 미약하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미약한 것을 안다고 하여 교만하고 타인을 멸시함은 곧 우스운 어린아이의 행동에 불과한 것이다(8:2).
- (7)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능과 은사를 자랑하기에 앞서 주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형제를 돌보아 주는 사랑이 절대 필요하다.

13. **㉠** 바울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과의 차이를 어떻게 비교하였는가? (12절)

- ㉠** (1) ‘이 세상에서는 모든 일들이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분명하며,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나 자신도 온전히 알리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거울이 돌이나 금속을 갈아 만들었기 때문에 요즈음처럼 명확한 상(像)을 맺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일컬어진 말이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이란 말은 모든 장애들이 극복되어 하나님과 진리를 직접 대면하는 명확성을 가리킨다(참조, 민12:8).

- (3) 이와 같이 저 세상에서는 명확히 알 뿐 아니라 이는 주체도 변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하심과 같이 모든 인격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그 시각을 명확하게 열어 주실 것이다(참조, 마5:48). 즉 지금은 비록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자인 바울은 물론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인들까지도 그때에는 온전히 알 것이다.
- (4) 그런데 이와 같이 불완전한 이 세상의 지식들에 비하면 사랑은 그 한계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한 것이다. 이는 인간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으나 다른 상대적인 가치와 비교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비교적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보여 준다.
- (5) 즉 지식이나 예언은 단편적이며 결코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완전히 알 수 없으나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실 사랑의 행동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14. **㉠** 바울은 영원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 했는가? (13절)

- ㉠** (1) 그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본장의 결론을 맺었다.
- (2)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대비시키고 있으나 실상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라는 표현은 곧 바울이 이것들을 하나로 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 실제로 믿음과 소망은 사랑하는 자들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 없는 기독교의 진수이며 어느 한쪽이 상실될 경우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 가지 가운데서 사랑은 다른 두 가지(믿음, 소망)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또한 두 가지의 근원이 되며 다른 두 가지보다 더욱 지속적이라는 점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가치를 더 우위에 두고 있다.
- (4) 이런 특성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 속에 내재해 있는 사랑의 능력과 인간들의 선을 향한 가능성을 믿고 있다.
- (5) 또한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어떠한 경우이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현재와 미래에 늘 희망을 두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도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 (6)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은사는 곧 사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 말하고, 사랑하라고 외쳐 대지만 요즘 세상에서 사랑의 모습을 찾아 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
- (7) 사랑을 얻기 위해, 하기 위해 훈련도 받고 기도도 하지만 변화되지 않음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아직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이다.
- (8) 그러한 때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에 눈이 어두워 자신과 주위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의 길을 재촉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 (9) 즉 서로 돕고 공존하는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임을 알고 나만 살겠다는 생각은, 타인은 물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로 이끌고 만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 (10) 성도들이여 무엇을 위한다는 인위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사랑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함은 곧 그 무엇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는 체 하지도 말자.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모르는 자들이 죽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 (11)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편안하게만 하자.

# 제 14 장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행동하라

단락구분 1-5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 6-19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관점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해야 한다 / 20-25 전도와 교회의 질서를 위해 예언과 방언이 각각 필요하다 / 26-33 질서있게 방언과 예언을 사용하라 / 34-36 여자는 교회에서 짐집하라 / 37-38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재확인하라 / 39-40 은사에 대한 최후 권고

1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 하니라

6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7 혹 저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9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10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11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12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13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

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17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18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9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20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니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23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4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30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만나니

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시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나 또는 너희에게만 입한 것이나

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39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1. **㉠** 예언과 방언에 대한 바울의 지침은 무엇인가?

- ㉠** (1) 전장(前章)에서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해 기술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중요시한 방언과 자신이 권장하는 예언에 대해 마지막 지침을 주고 있다.
- (2)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방언도 성령의 은사로 인정했으나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중 예배시에는 방언을 자제해 줄 것을 명하였다.
- (3) 바울이 지적한 방언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하는 자들은 그 특권을 자랑하여 교만해진다. 둘째, 방언을 못 하는 자들의 시기를 불러일으킨다. 셋째, 방언으로 인해 공중 예배에 혼란이 온다. 넷째, 불신자들은 예배시 방언하는 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의 전도를 위한 표적으로(22절) 사용하며, 자신의 덕을 위해 홀로 있을 때 사용하라고 했다(14절). 그러나 만일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역자를 두고 질서 있게 기도하라고 권고하였다(26-28절).
- (5)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예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안위(安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3절).
- (6)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은사 특히 방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예언은 장려하지만 방언은 단지 목인한다는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밝힘으로써 일단락지었다(37,38절).
- (7) 성령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은사 문제로 개인과 교회 전체가 시험에 들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라고 해서 남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 은사를 사장(死藏)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함으로써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 바울은 본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두 가지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먼저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 무엇을 잡기 위해 다급하게 뒤쫓아 가듯이 사랑을 추구해 가라는 것이다(참조, 빌3:12,14).
- (2) 다시 말해 그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모든 활동의 근본적인 동인(動因)은 '사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두번째로 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열렬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결국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말은 신령한 것에 대해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 향유하기를 소원하라는 의미이다.
- (4) 이는 사랑을 추구해 가는 것이 곧 신령한 은사를 배척해 버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 말이다. 즉 성도에게 있어서 신령한 은사도 질서대로 사용하면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무가치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공하신 그 모든 것은 어느 하나라도 버릴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더욱 풍성히 드러날 것이다(참조, 딤후4:4).

3. **㉠ 바울이 성령의 은사 중 특별히 예언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12절).
- (2) 여기서 '예언'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라기 보다는 12:10에서 언급된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감동과 계시를 받은 말씀을 말한다.
- (3) 그러므로 그 말씀은 보편적인 진리를 내용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지역에 맞는 말씀을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를 통해 주시는 것이다.
- (4) 이는 분명 사람의 지혜에서 출발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 제공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과 기쁨과 각성을 줄 것이다.

4. **㉠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은사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방언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왜냐하면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뜻을 알 수 없고 결국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타인에게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 (3) 이 말은 방언의 무용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파생되는 악영향을 지적한 것이다.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의구심만 자아내게 하는 '이상한 소리'를 공중 앞에서는 자제해야 한다.
- (4) 따라서 본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행2장에 나타난 방언과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 특히 본절에서 말하는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간의 지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라 단정짓고 있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은사를 받은 자들이 행하는 방언은 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 모두가 이해할 수 없고 다만 자기의 영혼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함은 결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이 아니다(17절).

5. **㉠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방언은 자신의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 전체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에, 예언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다.
- (2) 특히 예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게 된다.
- (3) 그 구체적인 예로서 무엇이 진리이며 올바른 길인지를 모르는 교인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권면함으로써 진리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며 또한 상처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자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안위(安慰)함으로써 새 힘을 얻게 만든다. 그 결과 교회 전체는 항상 풍성한 은혜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참조, 빌2:1).
- (4) 이처럼 바울이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방언이 지니는 특성보다는 예언이 가진

더 큰 역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방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또 다른 은사인 통역(12:10)을 거쳐서 대중 앞에서 방언함이 옳다고 하였다.

- (5) 우리는 위와 같은 은사 문제 뿐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 문제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를 잘 분별하여 항상 나 하나만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훌륭한 '사랑'의 은사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6. **㉠** 바울은 지나치게 방언에 집착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말로 충고하고 있는가? (6절)

- ㉠** (1)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만을 말하고 제시나 지식 그리고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질문법을 사용하여 충고하고 있다.
- (2) 여기서 '계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며, '예언과 가르침'은 그 받은 바 은사를 활용하는 활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기 때문에 분류해 놓은 것 같다.
- (3) 그런데 '계시'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며 모든 지식, 예언, 가르침들도 이 계시에 의존한다.
- (4) 그리고 '지식'이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혜를 말한다. 또한 '예언'이란 계시된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언제나 '계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한편 '가르치는 것'이란 교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올바른 신앙 생활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 (5) 그러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인들의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아무도 이해 못할 방언보다는 예언이나 지식이나 가르침을 통하여 교인 전체의 영적인 성숙을 꾀하는 것이 합당하다.
- (6) 동일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설교와 가르침 그리고 선교 활동을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내지는 지적 수준 등에 맞추어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7) 그 이유는 구성원들의 최대의 관심사와 신앙 및 지적 수준에 맞춘 목회 활동이 되어야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교회 생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11:2).

7. **㉠** 바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교회 생활에서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였는가? (7-9절)

- ㉠** (1) 저나 거문고가 올바른 음을 내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으며,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않으면 전쟁을 예비할 수 없듯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허공을 향하는 외침과도 같다고 비유하였다.
- (2) 여기서 '저'란 입으로 불어 관속의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 내는 관악기의 대표로서 언급된 것이며 '거문고'는 줄을 켜거나 핑겨서 소리 내는 현악기의 대표로서 비유에 사용되었다. 한편 '나팔'은 위의 두 악기가 목적하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내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지휘를 위해 사용된 일종의 신호기를 말한다(참조, 민 10:9; 겔7:14).
- (3) 그런데 본절의 의미는 악기들이 올바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음악을 연주하는지 알 수 없는 것과, 나팔 소리가 '진격'을 나타내는지 '후퇴'를 나타내는지 분명치 않으면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교회 전체에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16절).

8. ㉠ '야만' (野蠻) 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0-12절)

- ㉠ (1)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만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야만인'이라는 말은 자기와 언어권이 다른 '이방인' 또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2) 그런데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의 고향에서는 뜻이 통한다. 즉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항상 뜻을 지니고 있다(10절).
- (3) 하물며 세상의 언어들이 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되던 언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 (4) 언어 소통이 되지 않으면 큰 불편을 겪듯이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교회에서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사용은 오히려 성도들간에 이질감만을 조성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도 뜻 없는 말처럼 보이는 방언만을 고집하지 말고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다.
- (6)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여러 은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만을 고집하여 스스로 폐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다양한 은사를 구하고 활용하는 풍부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사모해야 할 또 다른 은사는 무엇인가? (13-15절)

- ㉠ (1) 그는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 부합키 위해서이다.
- (2) 방언하는 자가 소속된 교회 내에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계시를 방언을 통해 주신다면 그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한편 바울은 2:14-16의 언급과는 달리 본절(14절)에서는 '영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방언 기도의 실상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 (4) 즉 바울은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로 이해하였고, '마음'은 도덕적 판단과 이지적(理知的) 식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았다.
- (5)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마음과 영을 소유한 인간이 단지 영으로만 하는 방언을 말한다면(2절) 그는 자기 스스로의 분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 (6) 따라서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이 한 방언을 자신의 이성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는 깨달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킬 수가 없게 된다.
- (7) 그러므로 바울이 본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영으로써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도 자주 감정적이 되거나 흥분 속에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찬송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이 아니라 흥겨운 가락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8)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의 기도원과 부흥회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곳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정은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러 결국 순간의 감흥만 남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지적이며 결단적인 '마음의 열매'라 하겠다. 즉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가리워지지 않고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기도와 찬미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10. ㉠ 교회에서 방언을 금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16-19절)

- ㉠ (1) 방언을 하는 자가 영으로 축복하더라도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일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 (2) 여기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란 평신도, 평민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구체적으로는 초신자들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그들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회중의 응답인 '아멘'(참조, ㉠8:6)이란 소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축복의 기도마저도 스스로 수납할 수 없게 된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방언 기도를 드리기 보다는 예배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명확한 가르침이 기성 신자들 뿐 아니라 초신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 (5) 한편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방언과는 무관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측에 들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방언의 은사가 남들보다 낫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순수한 동기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여하튼 위에 제시된 말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들도 예배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선택되어야 하며,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도 이해될 수 있다(참조, 빌2:1-4).

11. ㉠ 방언의 절제와 함께 내려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다.
- (2)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지혜'(헬, 프렌)란 '횡경막'의 복수형인데 고대인들은 몸의 이 부분에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이유로해서 그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 (3)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유용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즉 방언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랑해 보려는 유치한 일을 삼가라는 것이다.
- (4) 반면 지혜에 있어서는 곧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면을 보여야 함을 권면하였다. 즉 교회에 유익을 제공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에는 성숙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 (5)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린아이 때의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상의 악을 배워 가게 된다. 또한 늙어지면 아집과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살기 쉽기에 진취적일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신앙의 나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광과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슬기롭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인격과 신앙을 떨쳐 버리고 오직 모두를 유익하고 평안하게 하는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16절).

8. ㉠ ‘야만’ (野蠻) 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0-12절)

- ㉠ (1)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만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야만인’이라는 말은 자기와 언어권이 다른 ‘이방인’ 또는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2) 그런데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의 고향에서는 뜻이 통한다. 즉 세상에 다양한 언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항상 뜻을 지니고 있다(10절).
- (3) 하물며 세상의 언어들이 그 뜻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사용되던 언어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 (4) 언어 소통이 되지 않으면 큰 불편을 겪듯이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교회에서 뜻이 전혀 통하지 않는 방언의 사용은 오히려 성도들간에 이질감만을 조성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바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도 뜻 없는 말처럼 보이는 방언만을 고집하지 말고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다.
- (6)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여러 은사 가운데 특별히 하나만을 고집하여 스스로 폐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과 건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다양한 은사를 구하고 활용하는 풍부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9. ㉠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사모해야 할 또 다른 은사는 무엇인가? (13-15절)

- ㉠ (1) 그는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 부합키 위해서이다.
- (2) 방언하는 자가 소속된 교회 내에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있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계시를 방언을 통해 주신다면 그 계시를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일이 필요하다.
- (3) 한편 바울은 2:14-16의 언급과는 달리 본절(14절)에서는 ‘영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방언 기도의 실상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 (4) 즉 바울은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통하실 때 사용하시는 통로로 이해하였고, ‘마음’은 도덕적 판단과 이지적(理知的) 식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고 보았다.
- (5) 이렇게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마음과 영을 소유한 인간이 단지 영으로만 하는 방언을 말한다면(2절) 그는 자기 스스로의 분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 (6) 따라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자신이 한 방언을 자신의 이성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그는 깨달은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킬 수가 없게 된다.
- (7) 그러므로 바울이 본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영으로써 뿐만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너무도 자주 감정적이 되거나 흥분 속에서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며 또한 찬송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송이 아니라 흥겨운 가락으로 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8) 이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의 기도원과 부흥회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곳 나름대로의 신앙의 열정은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흘러 결국 순간의 감흥만 남고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요구되는 것은 이지적이며 결단적인 '마음의 열매'라 하겠다. 즉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가리워지지 않고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기도와 찬미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

10. ㉠ 교회에서 방언을 금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16-19절)

- ㉠ (1) 방언을 하는 자가 영으로 축복하더라도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일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 (2) 여기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란 평신도, 평민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구체적으로는 초신자들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그들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회중의 응답인 '아멘'(참조, 느8:6)이란 소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축복의 기도마저도 스스로 수납할 수 없게 된다.
- (4) 그러므로 바울은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방언 기도를 드리기 보다는 예배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함은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명확한 가르침이 기성 신자들 뿐 아니라 초신자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주장하였다.
- (5) 한편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방언과는 무관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 측에 들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방언의 은사가 남들보다 낫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순수한 동기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라 볼 수 있다. 여하튼 위에 제시된 말들은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들도 예배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선택되어야 하며, 모두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도 이해될 수 있다(참조, 빌2:1-4).

11. ㉠ 방언의 절제와 함께 내려진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다.
- (2)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지혜'(헬, 프렌)란 '횡경막'의 복수형인데 고대인들은 몸의 이 부분에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이유로해서 그것은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 (3)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유용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의미이다. 즉 방언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자랑해 보려는 유치한 일을 삼가하라는 것이다.
- (4) 반면 지혜에 있어서는 곧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할 것이 아니라 성숙한 면을 보아야 함을 권면하였다. 즉 교회에 유익을 제공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행하는 것에는 성숙함을 보이라는 것이다.
- (5)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린아이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상의 악을 배워 가게 된다. 또한 늙어지면 아집과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살기 쉽기에 진취적일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신앙의 나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광과 그 일의 성취를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슬기롭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한 인격과 신앙을 떨쳐 버리고 오직 모두를 유익하고 평안하게 하는

성숙한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

12. **㉠ 방언과 예언의 사용 목적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表蹟)이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사용된다.  
 (2) 이에 대해 바울은 사28:11,12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자들(앗수르)에게 짓밟히는 형벌을 당하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3) 여기서 바울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하는 '예언'에 비유했으며 앓수르의 언어를 '방언'에 비유하였다. 즉 방언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 주는 표적이 되지만 예언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지표가 된다.  
 (4) 여하튼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믿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언'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  
 (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회에서 시행되는 행사나 교육 및 설교들은 교인 모두를 신앙과 경건의 생활로 이끌 수 있는 지표가 되어야 하며 특별히 불신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야만 한다.

13. **㉠ 교회에서 방언을 하기 보다 예언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23-25절)**

- ㉠** (1) 만일 온 교인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면 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보고 '교인들은 모두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모두 예언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으며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 계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여기서 예언의 세 가지 효과를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책망'이다. 이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참조, 마18:15; 약2:9) 양심의 가책을 받아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다. 이 사역의 전체 흐름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참조, 요16:8).  
 (3) 둘째, '판단'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파헤쳐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다(2:15).  
 (4) 셋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것'이다. 빛되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닌 모든 죄와 수치스러움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참조, 롬2:16).  
 (5) 넷째, '하나님께 대한 경배'이다. 이처럼 자신의 진정한 모습인 추함을 본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6)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과 분위기의 고조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의 방언은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하여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거나 오히려 불신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근거를 제공한다(참조, 고후12:20).  
 (7)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이웃이 참으로 유익하게 될 만한 일들을 위해 주어진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14.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일 때를 위해 권면한 내용은 무엇인가? (26절)**

- ㉠** (1) 바울은 그들이 모일 때에 찬송사와 가르치는 말씀, 계시와 방언과 통역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을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였다.  
 (2) 여기서 '모일 때'란 예배를 드리려고 '모일 때'를 가리킨다. 그들의 예배 형태는 어떠한 형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로 예배가 진행된 듯하다.

- (3) 즉 그들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가 받은 은사를 기초로 그 예배에 참여했던 것이다. 여기서 특별히 '찬송시'란 시편 또는 그 당시의 믿음의 글들을 노래한 것이라고 추정된다(참조, 엡5:19).
- (4)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자신의 은사를 내세울 염려가 있으며 그렇게 될 때 혼란과 소란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 스스로 자제하여 예배에 질서를 부여할 뿐 아니라 그 예배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배가 일정한 형식을 갖추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도 목회자에게 한정되었으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자들은 예배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다(참조, 롬12:6-8). 그런데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야 한다.

15. **㉠** 바울은 방언 사용의 지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27, 28절)

- ㉠** (1) 방언은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되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해야 하며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만 해야 한다.
- (2)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11,16,23절)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인만큼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사용되어야 하고 교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오늘날 교회의 특별 집회나 산 기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곳에서 방언 기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과연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교회 전체가 유익을 얻는지 궁금하다.

16. **㉠**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예언의 지침은 어떻게 규정되었는가? (29-31절)

- ㉠** (1) 예언은 둘 또는 셋이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할 것이며, 만일 곁에 앉은 자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해야 한다.
- (2) 즉 예언은 분명 교회 전체 앞에 실행되는 것이기에 그 내용이 인위적이거나 허구에 찬 것이면 그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예언의 진위를 분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참조, 요일4:1).
- (3) 또한 만약 공중 집회에 예언하는 무리가 많아 다같이 예언을 시작한다면 그 예언은 남을 가르칠 수 없고 도리어 혼란만 조성하므로 무가치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서 순서를 따라 하나씩 예언하여야 하는데 만약 순서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 순서자가 예언을 서서히 중단하고 갑자기 계시받은 자에게 그 순서를 넘겨 주어야 한다. 이는 교회 전체를 위해 필요한 양보의 미덕이며 계시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다.
- (4)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예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예언은 성령의 인도와 계시와 질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5) 하나님의 은사가 모두 유익한 것이지만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편협하게 사용된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게 되며 물의(物議)를 빚게 된다. 그러므로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는 그 교회의 실정에 맞게 중용(中庸)의 도를 취함이 마땅하다(33절).

17. **㉠** 예언에 관한 바울의 견해는 무엇인가? (32, 33절)

- ㉠** (1) 그것은 예언하는 영들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制裁)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 (2) 즉 예언하는 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이지(理智)로써 상황에 맞추어야 함을 가리킨



바라는 마음으로 이같이 책망한 것이다.

- (4)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일부 목회자들 중에는 마치 자신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며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다. 이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교만이다(참조, 왕상22:24).

20. **㉠** 바울은 무슨 권위를 근거로 하여 편지를 썼다고 말했는가? (37, 38절)

- ㉠** (1)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편지가 사사로운 견해가 아니라 주의 권위에서 출발한 명령이라고 했다. 만일 고린도 교회의 자칭 선지자, 신령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곧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 (2)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자칭 은사를 받았다고 교만해 하는 자들이 바울의 편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쓴 편지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3)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권위가 최고인 양 자만에 빠져 행동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그들은 그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려 들지 않은 것 같다. 그들은 바울 역시도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의 말은 평범한 권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 (4) 그러나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한 바울은(예수께서는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곧 당신의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교회에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두라’(KJV) 혹은 ‘알지 못하는 자니라’(RSV)고 단호하게 말했다(참조, 눅10:16; 요일4:6).
- (5) 즉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편지가 ‘주의 명령’ 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리와는 무관하고 자신들의 교만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는 자신을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을 최대화하는 자이다.
- (6)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진실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분의 권위를 항상 인정하며 결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양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자라야 할 것이다(참조, 요10:11).

21. **㉠** 바울은 본장을 어떻게 끝맺고 있는가? (39, 40절)

- ㉠** (1)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권면으로 끝을 맺었다.
- (2) 방언보다 예언을 중시하였지만 바울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점에서 결코 방언을 무시하지 않았다. 단지 방언은 교회에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하므로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5,28절).
- (3) 즉 바울은, 예언은 적극적인 입장에서 권장하였지만 방언은 단순히 은사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 (4) 이처럼 바울의 권면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엄숙을 유지하기 위함 데 있었다. 따라서 이 같은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표시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12,26절).
- (5) 그러므로 공동체의 협동과 선을 이루고 공동체 모두가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과 주장은 어느 정도 자제되어야 하며 항상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질서대로 행함이 마땅하다(참조, 벧후1:5-7).

## 제 15 장 죽은 자가 부활하리라

단락구분 1-11 부활의 진리가 전파된 경로 / 12-19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앙의 기초이다 / 20-28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과 승리 / 29-34 미래에 대한 소망 / 35-38 부활의 원리 / 39-46 부활의 영광 / 47-49 부활에 따른 회복 / 50-54 부활한 자들의 커다란 변화 / 55-58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리라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케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내가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 것이며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35 누가 물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 로되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을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합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8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 우리도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옳하리라  
 55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의 쏘는 것은 적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1. **㉠** 고린도 교회의 부활 사상은 어떤 형태였는가?

- ㉠** (1) 초대 교회는 당시 현존하던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였다(참조, 행23:8). 이런 사상은 자연스럽게 초대 기독교 안에서 하나의 거침돌 역할을 하였다.
- (2) 특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단절된 세계인 음부(히, 셰울)로 들어간다고 믿어(시38:18;39:13;전9:4,5)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 (3) 한편 헬라인들은 영혼의 영원성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영생이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만의 존재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개인적 영생은 없고 단지 절대자에게서 왔던 생명이 생명의 원천인 절대자에게로 돌아가 흡수된다는 사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 (4) 이 같은 사상이 교회에 침투함으로써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사람이 만일 육신의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 부활도 부인하게 되며 그로 인해 복음의 진리와 신앙 생활의 근본과 실재가 무너지게 됨을 지적하였다(13-19절).

- (5) 이처럼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듯이 부활은 부인될 수 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신앙과 산 소망의 근거가 되며 복음 전파의 요체가 된다. 만일 그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부활의 아침이 도래할 수 없을 뿐더러 영원한 허무와 죽음만이 남게 된다(참조, 히11:1,6).

## 2. ㉠ 바울의 부활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 ㉠ (1) 바울은 사람이 죽은 후의 생(生), 곧 영생이 있다고 믿었다(참조, 롬2:7;6:23). 그리고 그 당시 흥미하고 있던 헬라 사상은 몸을 모든 악의 근본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는 몸을 악하다고 믿지는 않았다.
- (2) 따라서 그는 인간의 부활이 단순히 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 모두의 부활이라고 보았다(53,54절). 한편 그 몸은 결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는 같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었다(44절).
- (3) 즉 그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영만이 살아 남는 것으로 인간의 결말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육신도 부활하여 전인격으로써 영생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전인(全人)의 부활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 (4)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단지 예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시공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형태와 같을 것이라고 추측할 따름이다(눅24:15,16,30,31,36; 요20:19).

## 3. ㉠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사용한 '복음'이란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1, 2절)

- ㉠ (1) 첫째, 그 복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 복음의 효과는 한번으로서 영원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기에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구원과 은혜는 영원한 것이다(참조, 요5:24).
- (2) 둘째, 그것은 현재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으로서 확고하게 신앙의 생활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참조, 롬5:2).
- (3) 셋째, 그 복음은 구원의 근거를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란 미래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현재적이다(참조, 1:18; 롬8:24).
- (4) 이 같은 의미를 내포한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섰으나 그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헬라 철학에 비추어 생각하려 하거나, 지식층에서는 예수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 의문을 가진 자들이 출현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요체가 되는 부활에 대해 재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 (5) 즉 바울은 자신이 전한 부활 신앙을 고린도 교인들이 저버리지 않고 확신하고 있다면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부활 신앙에 도전해 오던 악한 사상들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다.
- (6) 이처럼 오늘날에도 복음을 자신들의 생각과 편의에 따라 개조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하나의 이념적 사상으로밖에 생각치 않는 소행이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진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역시 진실이다. 이러한 진실은 그 어떤 도전에도 변할 수가 없다.

## 4. ㉠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3, 4절)

- ㉠ (1)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 (2) 그런데 3절에서 '먼저'라는 의미는 시간적인 우선성을 뜻하기 보다는 그 중요성을 강조

한 것이다.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다루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신앙이 곧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3) 한편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역사의 한 부분에 있어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위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여기서 성경이란 구약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시22편;사53장;단9:26;속12:10 등에 언급되어 있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는 사53:10;호6:2;은2:10 등에 제시되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으로 세상의 그 어떤 진리보다 귀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과 부패가 난무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입각한 확실한 신앙을 소유하여야 한다.

#### 5. ㉠ 바울은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의 행적을 어떻게 열거하였는가? (5-7절)

- ㉠ (1) 먼저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 사건은 눅24:34에 기록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즉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버렸어도 예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부활하신 몸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참조, 마16:18).
- (2) 다음으로 열 두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는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상태의 제자들의 수를 '12'라고 한 것은 '12'라는 숫자가 제자의 수라는 고유적인 의미로 굳어졌기 때문이다(참조, 마19:28;계21:14). 이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하면 '열 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눅24:33-36)라고 할 수 있다.
- (3)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야고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의 동생 야고보로 추정한다. 야고보가 예수의 사역 기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요7:5)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후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추론을 끌어낼 수 있다.
- (4)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예수의 부활을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강조한 이유는 앞으로 언급할 부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과 함께 그것이 충분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 6. ㉠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때는 언제인가? (8절)

- ㉠ (1)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참조, 행9:3-6).
- (2) 여기서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게 된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의 신실한 일군이 될 수 있었던 것과 사도의 반열에 끼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중 자신이 맨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자'라고 표현하였다.
- (4) 결국 이 말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겸양의 표현이며 다른 사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겸손의 고백이다. 어쨌든 바울은 자신과 같이 무가치한 자에게까지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부활이 결코 부인될 수 없는 사실임을 강조하였다.

7. **㉠**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 칭함 받을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다(행8:3; 갈1:13). 즉 그는 예수의 대적자로서 마땅히 형벌받아야 했던 존재였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자까지도 용납하셔서(갈1:15) 하나님의 일군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 (3) 그러므로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 이유도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강력한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그는 자신을 '복음에 빛진 자'(참조, 롬1:14)라고 하면서 주를 위한 자신의 끊임없는 봉사(참조, 고후11:23-33)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다.
- (5)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도 바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바울이 훌륭한 사도로 칭함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우리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을 지녔기 때문이다(참조, 고후11:30).
- (6) 이처럼 참성도는 자신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각되면 될수록 자신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라고 볼 수도 있다.

8. **㉠** 바울이 역설한 복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는 자신이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곧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며 고린도 교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음을 상기시켰다.
- (2)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처음 전파되었던 복음도 '부활의 사건'이며 다른 사도들도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전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복음도 곧 '부활의 사건'이다.
- (4)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설교자들 중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보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 체험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자랑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제함이 마땅하다(참조, 2:2). 우리는 우리의 전도와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파하며 그 부활이 각 개인에게 미칠 큰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9. **㉠**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할 때 발생하는 일들은 무엇인가? (12-18절)

- ㉠** (1)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함은 곧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처럼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신앙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 (2) 기독교 신앙의 기초인 예수의 부활은(참조, 롬10:9)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이다.
- (3) 따라서 그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에 의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자라 할 수밖에 없다.
- (4) 또한 부활을 부인한다면 모든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도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의 메시아성과 그의 죽음을 통한 속죄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실현마저도 부인이 되어야 한다.
- (5)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사실들을 전하고 다니던 사도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될 뿐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을 믿은 자들은 거짓을 진리로 믿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6)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표로서 부활하신 것이다(참조, 롬4:25).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속죄받지 못함은 물론 죽은 사람들도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결론에도달한다(살전4:16).
- (7) 결국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모든 것이 헛것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다.
- (8)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이며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모든 초점은 '부활의 교리'에 맞추어져야 한다.

10. **㉠** 구원의 복음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12-18절)

- ㉠** (1) 바울이 말하는 '영생'(고후4:14)이란 사람의 행위로 인한 성취나 영혼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 (2) 즉 우리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활은 사람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또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죄에서의 자유와 더불어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따른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필요하다(요11:26).
- (3) 그러므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사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참조, 요5:35).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인하는 것인만큼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11. **㉠** 영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에 빠질 것인가? (19절)

- ㉠** (1) 단지 구원과 영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 (2) 즉 이 세상에서 어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고 수많은 고난을 헤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고 단지 이 세상의 삶만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속아 산 것이며,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 (3) 그러나 내세(來世)와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현세의 유희와 고통을 즐겁게 감수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고후4:16-18). 그런데 만약 이러한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내세도 현세도 모두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
- (4)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며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참조, 히13:8). 그러기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단 일회적인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자신들에게 허락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있는 것이다(참조, 고후6:4-10).

12. **㉠**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20-22절)

- ㉠** (1)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됨으로써 가능해졌다.
- (2) 여기서 '첫 열매'라 함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수확한 이삭으로 성전에 바쳤던 수확물과 연관이 있다(레23:10-14). 이것은 사람이나 가축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그 '첫 열매'는 수확물 전체를 대표하는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제단에 바쳐짐으로 인해서 자기 뿐 아니라 온 수확물을 성별해 주는 의미도 갖고 있다.

- (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최초의 부활이면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것이다.
- (4)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운명에 놓였지만(참조, 딤후2:14),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미 그분께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참조, 롬5:12-21) 그들의 죄와 고통은 소멸된 것이다(갈2:20).
- (5)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채 죽은 자들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요11:25, 26).
- (6) 이처럼 부활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예수는 곧 부활의 근본이시며 부활의 주체자이시다(참조, 요4:24, 25).

13. **㉠**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순서는 어떠한가? (23-25절)

- ㉠**(1) 먼저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부활하신바 있다(참조, 마28:6).
- (2)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붙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즉 부활은 신자 개인의 죽음과 동시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 (3) 여기서 '강림'을 가리키는 헬라어 <파루시아>는 원래 사람들의 방문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던 말이었다(1:17; 고후7:6; 빌1:26).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방문(강림)에 연관하여 사용됨으로써 이 세대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적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 곧 재림을 의미하게 되었다(참조, 마24:27; 살전2:19; 4:15; 5:23).
- (4)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극심한 환난이 있는 끝날에 공중으로부터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 모든 죽어 있는 신자들은 되살아 날 것이며 지상에서 신앙 생활하고 있던 자들은 변화하게 될 것이다(참조, 살전3:13; 4:16, 17).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다.
- (5)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이다(24절). 이 말은 세번째 순서로 부활될 자들에 관한 표현이 아니다. 즉 이는 천년 왕국이 끝난 후 있을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요5:28, 29; 계20:11-15) (2)-(4)에서 언급한 신자들의 부활 직후에는 이 세상의 끝이 도래한다는 의미이다(참조, 마13:39; 계14:15).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다릴 바는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의 고난도, 외로움도, 조롱과 멸시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일만 남을 것이다(참조, 계22:5).

14. **㉠**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구원과 부활은 어느 때인가? (24-26절)

- ㉠**(1)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政事)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이다.
- (2)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마지막 때 사이에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있을 것을 가리켜 준다. 따라서 그때에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로 표현된 악한 천사의 세력(참조, 롬8:38; 골1:16; 2:10, 15)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참조, 눅22:30; 골1:13).
- (3) 또한 악의 세력 가운데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다.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말은 '그 효능을 잃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사망이라는 인간의 오랜 원수도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사망이나 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 (4) 이처럼 사망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세력을 떨치지만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서시는 날 그 세력은 영원히 멸절되고 말 것이다(참조, 계20:14).
- (5)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지만 수많은 악과 그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는 날 그 모든 악의 실체들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대해 비난하거나 자포 자기하기에 앞서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히 실현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이다(참조, 계22:20).

15. **㉠** 메시아 왕국의 통치는 어떤 형태를 이룰 것인가? (27, 28절)

- ㉠** (1)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킬 것이지만 그 지배권은 성부 하나님을 제외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萬有)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 (2)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무한한 주권을 부여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자신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해도 아닌 것이다.
- (3) 그런데 성자의 성부에 대한 복종은 결코 삼위 일체론을 부인하지 않는다. 즉 성자가 자발적으로 성부에게 복종한 것은 그 본질과 성품이 성부에 미치지 못하거나 성부에게서 파생된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복종이 곧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서만이 성취되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마26:39).
- (4)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으며 그 일을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다(참조, 빌2:5-1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은 결코 굴욕적이거나 저급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며 화해시키기 위한 신적인 행위였으니 만물의 복종의 예표가 되는 행위였다(참조, 고전12:6).
- (5) 여하튼 이러한 복종의 결과 성자 예수께서는 죽음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으며 당신의 능력으로 죄와 절망과 무질서 상태에 있는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당신이 통치하고 계신 모든 만물을 절대 주권자이신 성부에게 이양하실 것이다. 결국 성자의 희생적이고 자발적인 복종은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롬11:36; 빌2:11).

16. **㉠** ‘죽은 자들을 위해 받는 세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9절)

- ㉠** (1) 본절은 성경의 난해 귀절 중 하나로 그 분명한 뜻을 추적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혹자(Alford, Meyer)는 이 규정이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다른 이웃을 위하여 살아 있는 신자가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 (2) 그러나 죄 사함의 공식적인 표시로서 행하는 세례가 타인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면 이는 비성경적인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1:1의 만남에서 해결되어야 한다(참조, 겔18:2-4).
- (3) 고로 이 귀절에서 나오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재해석하여 ‘죽음에 관하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본절의 난해한 내용을 쉽게 풀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 (4) 즉 본절의 내용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날의 자신이 죽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 ‘죽음에 관한 세례’는 무가치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말이 된다.

- (5) 사실 부활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믿는 내용과 신앙하는 대상과 종교적 의식 모두는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삶 전체를 좌우하는 삶의 중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17. **㉠**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이 언급한 자신의 경험은 무엇인가? (30-32절)

- ㉠** (1) 그는 부활을 믿기에 때마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한 날마다 죽는다고 했으며 에베소에서 범인처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는 이런 경험을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면서 얻었던 '자랑'이라고 말했다. 즉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애썼던 흔적들(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 등)을 하나의 자랑거리로 알았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 (2) 여기서 '때마다의 위험'이란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만났던 죽음의 위험과 도전 등과 같은 시련을 가리킨다(참조, 4:9; 고후4:10; 11:23-27).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은 바울이 극도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은 날이 없었음을 가리킨다.
- (3) 더우기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투기장에 나가 맹수와 싸우는 고난까지 겪었다'기 보다는 맹수처럼 바울을 대항하는 반대자들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참조, 4:11-13; 고후4:8-12; 11:23-29).
- (4) 그런데 바울이 이 같은 자신의 고난을 언급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두 견디어 낼 수 있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닦치는 대로 살 것이다(참조, 사22:13).
- (5) 즉 그는 부활이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즐겨 참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부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면 차라리 쾌락을 추구하여 매일을 즐기고 사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이처럼 부활 신앙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매일의 삶을 긴장하게 만들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타락과 나태의 극치를 달리게 만든다.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어떤 역경에도 담대히 대처할 수 있다(참조, 욥19:25,26; 고후4:16-5:10).

18. **㉠**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33, 34절)

- ㉠** (1) 바울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의 허황된 말에 속지 말라고 하였다. 대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
- (2) 고린도 교인들 중 어떤 자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유치한 미신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순진한 교인들을 미혹하여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바울은 이들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결여된 자들이라고 단언하면서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부추기는 자들을 악의 무리로 규정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금하라고 했던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부활을 부인하게 되고(참조, 마22:29) 결국에는 영원한 허무와 절망의 미래만이 남게 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며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꾸짖었다.
- (4) 여기서 '깨어'로 번역된 헬라어 <에크네프사테>는 원래 '술 취한 상태로부터 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분별력을 찾으라'는 의미이다. 윤리적인 문제든 종교적인 문제든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심하게 되면 악의 세력은 우리를 정복하고 말 것이다.
- (5)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무지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고 올바른 신앙에 서서 진리의 길을 따르길 권고하였다.
- (6)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지식들 가운데서 진리를 외면하고 편협한 이론에만 빠진 지식은 결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에게 혼돈만을 가중시킬 뿐이다(참조,

전1:8;2:2).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 어떤 학문과 궤변도 용납할 수 없다.

19. ㉠ 바울은 부활체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35-38절)

- ㉠ (1)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 새로운 생명체인 나무를 만들어 내듯이 인간도 죽은 후에는 예전과는 다른 형체를 입고 다시 산다고 하였다(참조, 요12:24).
- (2) 죽 땅에 떨어진 씨가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완전한 멸절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배태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 역시도 육체는 비록 연수가 다하면 땅에 묻혀 썩어지지만 그것은 참생명을 얻게 하는 새로운 부활체를 기대할 수 있는 죽음이다.
- (3) 그런데 부활로 인하여 얻어진 새로운 몸은 옛날의 육체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육신임이 분명하다(참조, 눅24:13-43; 요20:26-29).
- (4) 죽 부활체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주신 새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예전 것으로부터의 발생은 아니다(참조, 마22:30). 우리는 그 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참조, 마13:43; 17:2).
- (5)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과 속죄 및 부활 등은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인만큼 인간은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요3:16).

20. ㉠ 바울은 죽기 전 인간의 모습과 부활체 모습이 다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39-41절)

- ㉠ (1) 지상의 육체들이 자기 다른 모습(39절)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들(40절)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별들의 빛깔과 모양이 각각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41절)도 서로 다르다.
- (2) 이 같은 바울의 표현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각각의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영광도 질서가 다름과 같이 상이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특질의 몸들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제심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죽기 전의 인간의 모습과 부활 후의 모습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각 창조물에 적당한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49절).

21. ㉠ 죽기 전의 인간의 몸과 부활한 인간의 몸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42-46절)

- ㉠ (1) 육에 속한 몸은 썩게 되며 욱되고 약하지만 부활 후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며,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이다.
- (2) 여기서 '심는다'라는 말은 '몰어 버린다' 또는 '매장한다'는 뜻으로서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것을 '몰어 버리는' 행동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심는' 행위는 또 다른 존재, 즉 부활체를 기대하고 '몰어 버리는' 것이다.
- (3) 한편 본질에 제시된 여러 대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의 하나인 부패에 지배를 받고 있으나(참조, 롬8:21) 부활의 몸은 부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존하는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 (4) 또한 인간의 몸이 '욕되다'고 했는데 이는 단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그 진가에 있어서 대조를 이루는 말이다. 즉 이 땅에서의 육체는 영광된 부활체와는 견줄래야 견줄 수 없는 열등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은 '약하다'고 했는데 이는 인간이 병들고 쇠약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가리킨다(참조, 롬8:11).
- (5) 그러나 부활체는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강건한 몸이 될 것이다. 더 우기 인간이 지닌 죄성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부활 전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과 신령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에 그 몸은 '묻어 버려야' 하며 대신 부활을 통하여 신령한 몸 곧 성령이 그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는 몸으로 변화하여 영생과 신령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 (6) 따라서 부활 후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현재의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우리가 예수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활 전의 모습은 알아볼 수 있으나(참조, 요20:27) 부활하신 예수는 시공의 구애를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었다.
- (7) 바울은 이와 같이 뚜렷이 대별되는 두 종류의 몸에 관해 육체적인 몸을 지닌 대표자로 아담을, 부활체의 대표자로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이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시된 신령한 몸과 삶을 바라보라고 권하였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육됨과 약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와 그를 통한 이 땅에서의 삶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원천이 되시며 부활로써 우리의 신령한 몸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며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22. ㉠ 우리 인간이 흠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47-49절)**

- (A) (1) 첫 사람 곧 아담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만드신 존재(흠에 속한 자)이며(참조, 창2:7) 둘째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에서 나셨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분은 아담처럼 흠으로부터 기원하지 않고 하늘에서 나셨다(참조, 요3:31;6:38).
- (2) 그런데 '흠에 속한 존재'인 아담은 자신의 본성들을 이 땅의 인간들에게 물려주었으며 역시 그의 본성 중 하나인 죽음의 운명도 물려주었다. 그러므로 죽음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찾아올 운명이며 흠에서부터 출발한 인간은 흠으로 돌아가게 된다. 결국 죽음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3)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영'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속에 있게 되면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곧 영광스런 부활체로서의 모습을 입게 되는 것이다(참조, 빌 3:21).
- (4)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썩어 없어져 버리는 아담 곧 흠에 속한 자의 형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생을 제공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지니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어야 한다(참조, 고후3:18).
- (5)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요11:25)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러한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11:26).

**23. ㉠ 죽음을 맛보지 못한 성도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50-53절)**

- (A) (1) 이땅에서 '혈과 육'을 입고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가 살았든 혹은 죽었든 (잠자다 라고 묘사됨)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부활의 모습을 덧입을 것이다.
- (2) 여기서 '혈과 육'이란 곧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이다(참조, 롬8:13). 이러한 '혈과 육'으로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않을 유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의 변화이다. 물론 이 변화를 주도하는 이는 썩어질 인간이 아니라 부활의 주이다.
- (3) 예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나라와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세상 끝날에 천사장의 소리 및 나팔 소리와 더불어 강림하셔서(참조, 살전4:16) 죽은 성도 뿐 아니라 그때까지 지상에서 살고 있을 성도들의 변화를 주도하실 것이다. 여기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현이다(참조, 마24:31; 계8:2; 10:7).

- (4) 그런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있을 인간의 변화는 극히 순간적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순식간'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아토모스>는 쪼개거나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5) 한편 그 변화의 성격은 본질적이다. 즉 이제까지 인간이 입고 있던 '썩을 육신'이 질적인 변화를 거쳐서 다시는 '썩지 않을 육신'을 입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것이다(44절).
- (6)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께서 하셨기에(참조, 마24:31) 비록 이 땅에서 썩을 몸을 입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라고 부를 수 있다(참조, 고후4:16-18). 아뭏든 이러한 성도들은 미래에 있을 변화를 기대하며 현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참조, 딤후2:21).

24. **㉠** 바울은 '사망'의 운명은 결국 어떻게 되리라고 보았는가? (54-57절)

- ㉠** (1) 그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 즉 죽은 자들이나 산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망'은 이김의 삼킴을 당하리라고 보았다.
- (2) 이러한 54절의 말씀은 사25:8의 인용문으로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바울의 자유로운 번역이다. 그런데 그 표현은 결국 죽음의 완전한 파멸을 가리킨다.
- (3) 또한 55절도 호13:14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쏘는 것'(헬, 켄트론)이란 벌이나 뱀 등과 같은 것들의 침이나 독니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표현은 '사망'의 해로움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사망은 그 악한 해독으로 인류 전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결과 인류는 모두 죽음 아래 있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롬5:2).
- (4)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56절) 진정한 해로움은 '사망'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인 '죄'라고 말한다(롬6:23). 죄가 사해되면 사망은 쏘는 것을 상실해 버리게 된다. 그러나 죄가 처리되지 않은 곳에서는 사망이 유독한 존재가 된다.
- (5) 여기에 덧붙여 바울은 '죄의 권능'이 곧 '율법'에서 나온다고 말함으로써 율법은 결코 인간을 구원의 상태로 이끌 수 없으며 단지 죄를 죄로 규정하는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 줄 뿐임을 가르치고 있다(참조, 롬5:12; 7:7). 만약 인류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죄 또한 죄로서 단정지어지지 않았을 것이다(참조, 롬4:15).
- (6)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인류에게 자유와 기쁨을 제공해 주기 보다는 인류의 죄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참조, 롬7:8-11) 바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종국에 이르러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 율법의 완성이 되셨으며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다.
- (7) 즉 예수께서는 율법이 죄로 단정하는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시고(사망까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가 악한 해독을 미치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참조, 롬8:1, 33, 34; 히2:14, 15).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던 것이다(참조, 갈3:13).
- (8)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롬7:25). 하지만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다.

25. **㉠** 부활의 확신을 피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 (58절)

- ㉠** (1) 이제까지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증거하면서 그것이 참된 사실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堅固)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권고를 들었다(참조,엡4:14;골1:23;요이1:9).

- (2) 부활의 확실성을 들은 이상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 말하는 이론들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 (3) 한편 여기서 '일'(헬, 에르곤)이란 단어 뒤에 '수고'(헬, 코포스)라는 말이 뒤따라 나오는데 이것은 자신의 모든 허탄한 것을 떨쳐 버리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애씀이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 (4) 이제 우리는 부활이 확실한 이상 이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여 방탕하게 살 수 없다. 더우기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향해 가는 이때에 믿는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며 불신자들에 대하여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참조,엡5:2;요일2:6).
- (5)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히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탄한 말 장난과 지식 싸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관(棺) 속에서 일어나 부활하시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을 새긴 이 철보 세공품은 12세기경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 및 초대 교회의 500여 형제들이 목격한 역사적인 사건이다(3-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 뿐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들의 의심과는 관계 없이 예수께서는 엄연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로써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셨다(12-20절). 우리는 스스로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견지할 뿐 아니라 오고오는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58절).

## 제 16 장 헌금에 대한 호소

단락구분 1-4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헌금을 준비하라 / 5-9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과 자신의 여정(旅程) / 10-12 디모데를 추천하고 아볼로의 사정을 설명하다 / 13-14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라 / 15-18 다른 형제들을 잘 대하라 / 19-20 아시아 교회의 문안을 전하다 / 21-24 바울의 마지막 교훈

1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니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5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6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랍시다

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9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

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결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권하여라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15 형제들이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17 내가 스테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교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18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 주라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20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 1. ㉠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 (1)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호소한 이유는 첫째, 원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을 뿐 아니라 여러 번의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 피폐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였다 (고후8,9장; 갈2:10).

(2) 둘째,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의 단일성을 고취시키려 한 것이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종이 다르거나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도울 책임이 있음을 깨우치려 했다. 그러므로 바울의 교회관은 편협한 개(個)교회주의를 탈피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일치주의였다.

(3) 셋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의 실제적 교훈인 사랑을 실천하려 한 것이다.

바울은 그 헌금 모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덕을 실천할 기회를 주려고 하였다.

- (4) 이와 같이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 중에 새로운 교회의 개척과 다양한 사업의 전개도 중요하지만 교인들 상호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의 빛을 사회의 그늘진 곳에 전할 수 있는 선교 내용도 구비되어야 하겠다(참조, 롬12:5; 갈3:28).

2. ㉠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연보를 명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절)

- ㉠ (1)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호소한 사실을 가리킨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기록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지만 갈2:10의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 (2)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으며(참조, 행2:45;6:1) 거기다가 팔레스틴 전역을 휩쓴 기근(참조, 행11:29)과 극단적인 유대교도들에 의한 수탈과 박해(참조, 히10:34) 등으로 인해 절대 빈곤에 처해 있었다.
- (3)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러한 가난은 그 당시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복음의 빛을 지고 있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큰 관심거리였다.
- (4)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부유한 삶을 살던 고린도 교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갠도록 종용했던 것이다. 특별히 이때는 자기들도 넉넉치 못한 형편에 있던 마게도냐 교인들까지 그 일에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다(참조, 고후8,9장). 특별히 바울은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기를 원했다.
- (5) 이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어느 한 지역에서 폐쇄적인 예배 활동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임을 서로 인식하여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필요를 따라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다(참조, 갈6:2,10).

3. ㉠ 바울이 갈라디아와 고린도 교회에 명한 헌금 방법은 어떤 것이었는가? (2-4절)

- ㉠ (1) 이는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利)를 얻은 대로 저축하였다가 바울이 그 교회에 도착하는 대로 그 교회에서 인정(認定)하는 사람 편에 돈과 편지를 같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방식을 취하였다.
- (2) 여기서 '매주일 첫날'이란 요즈음의 주일(主日)을 가리킨다. 초대 교회에서는 주로 안식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으나(참조, 행15:21;16:13;18:4) 차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 한 주간의 첫날, 즉 주일을 기념하여 그날에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게 되었다(참조, 행20:7). 특별히 유대교와의 구별을 위해서 그날의 모임을 활발히 가졌으며 A.D. 4세기 초에 비로소 주일 개념을 확립할 수 있었다.
- (3) 이처럼 바울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와 교제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정기적으로 해줄 것을 명하고 있다. 여기서 정기적인 헌금에의 권면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구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다.
- (4) 또한 '이(利)를 얻은 대로' 헌금하도록 권했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십일조 정신을(참조, 말3:8) 이어받는 것으로서 자기가 소유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참조, 마23:23).
- (5) 그리고 '저축하여 두어서' 바울이 방문할 때에 그제서야 서둘러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즉 준비된 헌금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준비된 헌금은 준비된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 아님을 보여 준다.

4. **㉠**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는가? (3, 4절)

- ㉠** (1) 바울은 그 헌금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인정한(선임한) 사람들에게 그 헌금을 맡기고 바울 자신은 단지 편지를 써 주어 그들 편에 헌금과 편지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고자 하였다.
- (2)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여 그 헌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신도 교회에서 선임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헌금을 자기 자신이 직접 인수하여 운반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 (3) 이처럼 바울은 거룩하고 선한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결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나 의혹을 사지 않겠다는 결의를 통하여 자신의 순수한 태도를 지켜 나갔다(참조, 고후8:20; 12:16-18).
- (4)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교회 제정에 관여하여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참조, 벧전5:2).

5. **㉠** 바울의 고린도 방문 계획과 변경된 사실은 무엇인가? (5-9절)

- ㉠** (1) 에베소에서 유월절 무렵(5:7,8)에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바울은 먼저 오순절까지 계속 에베소에 머물 계획을 밝혔다.
- (2) 따라서 최초 그의 여행 계획은 에베소를 출발하여 직접 고린도를 방문한(고후1:15,16) 후 마게도냐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고린도에 들를 예정이었다(5절).
- (3) 그러나 위와 같은 최초의 계획을 변경하여 본서신에서 바울은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7절).
- (4)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바울을 믿음이 없는 자, 신실하지 못한 자 또는 변절한 사람이라고 비난하였고 바울은 이 사실을 극구 부인한바 있다(고후1:17).
- (5) 즉 바울은 자신의 안일과 욕심을 위해 이처럼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비방거리가 될 수 없다고 했던 것이다(참조, 고후1:18-24).
- (6) 한편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는 길에 고린도에 잠시 들르기로 했으나 혹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6,7절).
- (7) 이런 사실과 연관지워 행20:1-3의 기록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 (8) 이와 같이 바울은 당대의 가장 권위 있는 교회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 떼와 온 교회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들이 자신과 더불어 화평하며 지속적인 교제와 사랑을 나누기 원했던 것이다.

6. **㉠**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6절)

- ㉠** (1) 바울은 고린도 방문(5절) 후의 여정(旅程)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다.
- (2) 그러나 그가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낸 후 정해지지 않은 목적지로 떠날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여행을 준비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한 것이다.
- (3) 즉 그들이 바울의 여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바울에 대한 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의도였다(참조, 행15:3; 17:5; 롬15:24).
- (4)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는 것은 성도의 큰 덕목 중의 하나이다(참조, 갈6:6).
- (5) 그러나 목회자들이 교육을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성도들로부터 물질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처럼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으로 아예

말을 꺼내지 않음이 마땅하다(참조, 벧전5:2).

7. **㉠**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이라는 귀절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7절)
- ㉠** (1) 비록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계획하고 애쓰는 바울일지라도 그의 계획과 앞일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2) 또한 바울이 아무리 선을 위해 모든 일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항상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이와 같이 비록 인간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여 진행시켜 나갈지라도 일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참조, 잠16:1).
- (4) 그러므로 인간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계획에서부터 결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 할 수 있다(참조, 시143:10; 마26:52).
8. **㉠**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있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첫째, 아직도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공효'로 번역된 헬라이어 <에네르게스>는 '활동적인', '효과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그리고 '문'이란 말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리킨다(참조, 행14:27; 고후2:12; 골4:3).
- (2) 그러므로 바울의 이 같은 표현은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특별히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자기에게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에베소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 (3) 둘째, 에베소에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바울은 이들이 자신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한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의 반대자들이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행19:23-27을 통해서 볼 때 그 대적자들 중에는 은장색인 데메트리오 같은 이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그를 괴롭혔다(참조, 행24:18-21).
- (4)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애 또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본질은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수행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마10:38; 눅9:23). 복음의 일꾼들은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지 드러난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항상 자신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9. **㉠**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였는가? (10, 11절)
- ㉠** (1) 바울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게 되면 디모데를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며 떨시치 말고 잘 대우하여 돌려보낼 때는 평안히 자기에게 보내기를 원했다.
- (2)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다(4:17). 행19:22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고린도 교인인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낸 기사가 나온다. 아마 바울이 그 당시 그러한 지시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가도록 명령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참조, 4:17).
- (3) 이러한 디모데 일행의 고린도 파견 이외에도 바울은 본서신을 접하고 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디도를 위시한 몇몇의 일꾼들을 그곳에 파견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사역자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참조, 고후2:12, 13).
- (4)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절의 내용과 같은 부탁을 한 이유는 디모데의 부끄러워하는 성격과 그의 나이가 어림에도 있겠지만(참조, 딤펴4:12) 무엇보다 디모데 일행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보내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까 염려해서였다.

- (5) 더우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이 있어서 자신의 동역자이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졌기 때문이다(참조, 고후10:10;11:6,7,29;12:11,16,21).
- (6)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를 바울과 동등하게 대해야 함은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살전5:13). 즉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일꾼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디모데 일행을 대접해야 했던 것이다.
- (7) 이처럼 비록 교회의 목회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세상 경험이 부족해도 일반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대접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를 목회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더우기 목회자는 비록 세상 경험이 적다고 할지라도 신앙 전반에 걸쳐 예수의 말씀에 입각한 교인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히13:17).

10. **㉠**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실토하였는가? (12절)

- ㉠**(1) 바울은 복음의 동역자이며 그 당시 온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아블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블로가 그 일을 거절했다. 그때 바울은 아블로의 의사를 존중하여 더 이상 그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 (2)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1장에서 언급되었듯이 파당 문제로 곤욕을 치루고 있었다. 특히 아블로를 추종하던 무리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아블로를 자기들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아블로를 추종하던 무리들은 의기 양양해질 것이며 대신 바울을 추종하는 자들은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 분명하다.
- (3) 이런 관점에서 아블로를 고린도에 보낸다는 점은 바울 자신으로 보아서 손해나는 일임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블로를 설득해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결코 명예욕이나 불건전한 야망에 휩싸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 (4) 그러나 아블로는 하나님의 뜻이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임을 확신하고서 바울의 간곡한 권유를 듣지 않고 거절하였다. 즉 그는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 순위에 두는 참다운 신앙인이었다.
- (5) 이와 같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도 동역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던 바울의 인격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던 아블로의 신앙도 아름답다. 여러 가지 잘못된 권위주의와 물질 숭배로 말썽이 많은 오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11. **㉠** 13, 14절에 언급된 바울의 강력한 명령은 무엇인가?

- ㉠**(1) 바울은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強健)하라.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명했다.
- (2)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라’ 또는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말로 일시적인 긴장 상태를 가리킨다기 보다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가 사단과 그 활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어 경계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져 버릴 가능성이 높다(참조, 골4:2;벧전5:8).
- (3) 또한 ‘믿음에 굳게 서다’라는 말은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게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도전에도 굴복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이다(참조, 살전4:14;딤후2:8).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어떤 일 처리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닌 미성숙성이나 연약함

을 떨쳐 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자신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되어 교회나 한 공동체가 분쟁을 일으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이다(참조, 13장).
- (5) 이처럼 균형 있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수하고 악에게 대항하는 '강함'과 더불어 형제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를 돌아보는 사랑과 같은 '부드러움' 또한 필요하다.

12. ㉠ 바울은 '스테바나'의 가정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5, 16절)

- ㉠ (1) 바울은 그의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이며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집안이라고 소개하였다.
- (2) 여기서 '첫 열매'란 첫번째로 결신하여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이다(참조, 롬16:5). 스테바나와 그 집안 식구들은 아가야 지방 복음 전파의 첫 결실로서 그들이 받은 바 복음의 도리를 따라 믿는 형제들을 위해 아낌없는 봉사를 하였다.
- (3) 그런데 그들이 그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의 부탁을 듣고 한 것도 아니며, 교회를 통해서 맡은 것도 아니고 더우기 그 일로 인해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들은 그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작정하고' 자진해서 한 것이다.
- (4)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같은 자들과 함께 일하며 이같이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명하였던 것이다.
- (5)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권위 아래 있어 그가 명령하는 바를 따르라는 의미보다는 그의 인격과 애씀을 인정하고 그와 보조를 맞추어 선한 일을 성취하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다(참조, 롬8:28).
- (6) 이러한 길이 곧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바이다. 교회 안에 형제를 위한 봉사의 사역이 많아지고 그 행위를 인정하는 작업이 계속될 때 그 교회는 분명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할 수 있으며 부흥을 이룰 수 있게 된다(참조, 빌1:6).

13. ㉠ 스테바나와 브르나도 그리고 아가이오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17, 18절)

- ㉠ (1) 바울은 이들이 온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였는데 그것은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부족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 (2)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지금은 떨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식을 무척 궁금해 했다. 그런데 이들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옴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궁금증과 아쉬움을 풀 수 있었다.
- (3) 또한 18절의 '시원케 하다'란 동사는 마11:28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준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4) 따라서 이 말은 만일 고린도에서 소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쉼을 얻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고 계속 고통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그런데 이 소식은 바울에게만 '시원함'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소식으로 인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다.
- (6) 이들 세 사람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타인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쉼을 가져다 주며,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14. **㉠**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인물인가? (19절)

- ㉠** (1) 그들은 로마 출신 유대인들로서 장막 짓는 일에 종사하였으며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들이었다. 특히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는 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참조, 행18:1-4) 자들이다.
- (2)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A. D. 41-54)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였을 때 그들은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정착하였다.
- (3) 그 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들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과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들은 예배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는 열심을 보였다(참조, 롬16:5).
- (4) 이처럼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자신들의 생을 투자했으며(참조, 롬16:4)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칠 정도로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행18:26).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참조, 행18:26).
- (5) 그런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보다 먼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는 당시 교회에서 남편보다 더 비중 있는 인물임이 분명하다(참조, 행18:26).
- (6) 이와 같이 한 가정이 모두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더우기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며 그 자녀들 또한 복음의 빛을 발한다면 그 빛은 사회 전체를 밝게 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마5:14,16).

15. **㉠** 고린도 교회를 향해 문안한다고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9, 20절)

- ㉠** (1) 바울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도 문안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아시아 교회'란 예게 해에 면한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곳에는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 등이 있었다. 한편 바울이 직접 방문했던 곳은 에베소 교회뿐이다(참조, 행18:18).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 머물고 있었던 이곳 교회들이 분쟁의 위기에 놓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 문안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 (3)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참조, 롬16:5).
- (4) 한편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있는 교회도 고린도 교회에 문안하였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규모가 큰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 한 가정을 빌어 예배와 교제를 실시하였다(참조, 행12:12;16:40;골4:15;딤후3:15). 이 가정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과 성도간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결코 폐쇄적이지 않았다.
- (5) 또한 '모든 형제'들이 문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형제'란 에베소 지역에 거주하는 교인 모두를 가리킨다.
- (6)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거룩한 입맞춤'(참조, 고후13장 **㉠** 11) 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도 연합하라고 권하였다.
- (7) 모든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는 바울의 언급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지 않게 함은 물론 오히려 인종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깨우침을 준다.
- (8) 이처럼 비록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모인 모든 교회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합의 장(場)을 이루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겠다(참조,

요13:35).

16. ㉠ '친필로 문안한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1절)

- ㉠ (1) 바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쓰게 한 후 끝에 가서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 몇 마디를 썼다(참조, 골4:18; 살후3:17; 몬1:19).
- (2) 이 같은 그의 친필은 이 서신이 바울의 것임을 입증하는 한 증거이며 그 편지에 사도적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한편 그가 갈라디아서를 제외해 놓고는(참조, 갈6:11) 모든 서신을 대필하게 하고 끝 부분에 사인을 한 것은 그의 시력이 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여하튼 그는 자신이 보내는 편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더불어 자신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였다. 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줄 만큼 성도들을 깊이 사랑했던 바울의 열정과 애정어린 모습을 충분히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17. ㉠ 바울이 말한 저주받을 대상은 누구인가? (22절)

- ㉠ (1)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본질에 나오는 저주받을 대상에 해당된다.
- (2) 여기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란 곧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다.
- (3)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된 자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참조, 롬9:3; 갈1:8).
- (4)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참조, 마16:24,25). 그러나 이것은 복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즐겨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저주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참조, 요일4:10).

18. ㉠ '주께서 임하시니라' 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22절)

- ㉠ (1) 이 말의 헬라어는 <마라나다>인데 원래 아람어로부터 음역한 것으로서 초대 교회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인사말이었다.
- (2) 본질에 제시된 이 말은 주석가들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내려지고 있는 표현이다. 그 견해들을 대별해서 살펴보면 먼저 크리소스톰(Chrysostom, A. D. 347-407)은 그리스도의 화육(化肉)으로 보아 '우리 주께서 오셨다'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어떤 학자는 마18:20에서 사용한 대로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고 서술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가장 타당성 있는 견해는 본질의 내용을 기원문으로 이해하여 '우리 주여 오 시옵소서'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초대 교회의 기도라 할 수 있다(참조, 계22:20).
- (4) 초대 교회 교인들은 이 말을 기원문과 인사말 등으로 사용하여 서로간의 영적 긴장을 조성하였으며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모두가 하나라는 의식을 새롭게 하기도 하였다.
- (5) 초대 교인들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서로를 두려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그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의식을 지녀야 하겠다. 결국 이러한 기원은 미움과 시기와 분쟁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세상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참조, 고전1:7; 딤후4:8).

19. ㉠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간구는 무엇인가? (23, 24절)

- Ⓐ (1)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며,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길 간구했다.
- (2) 바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서신을 종결하면서 그 서신의 수신자들에게 ‘은혜’가 있길 간구하였다(참조, 롬16:20; 고후3:13; 골4:18). 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3)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험했던 사랑을 근거로 한 자신의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 모두에게 보내고 있다. 이는 비록 그들 중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 (4)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한 자는 그 어떤 감정의 장벽도 뛰어넘어 형제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
- (5) 오늘날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자신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결핍에 기인한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되물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할 대상의 폭이 무한대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화보자료

로마 시대의 필기 도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로마 시대의 서기(書記)가 사용하던 것이다.



본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진필로써 본서신을 기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21절) 아마 그가 편지를 쓸 때 사용하였던 필기 도구도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은 종류였을 것이다.